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 January Vol·265

1 MUSIC
이 무지치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신년호 부록 2014 탁상캘린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무대에 한국을 알린 자랑스런 아티스트
천상의 목소리 **신영옥**



SHIN YOUNG OK

2014 신년음악회
소프라노 신영옥 콘서트
with 모스틀리필하모닉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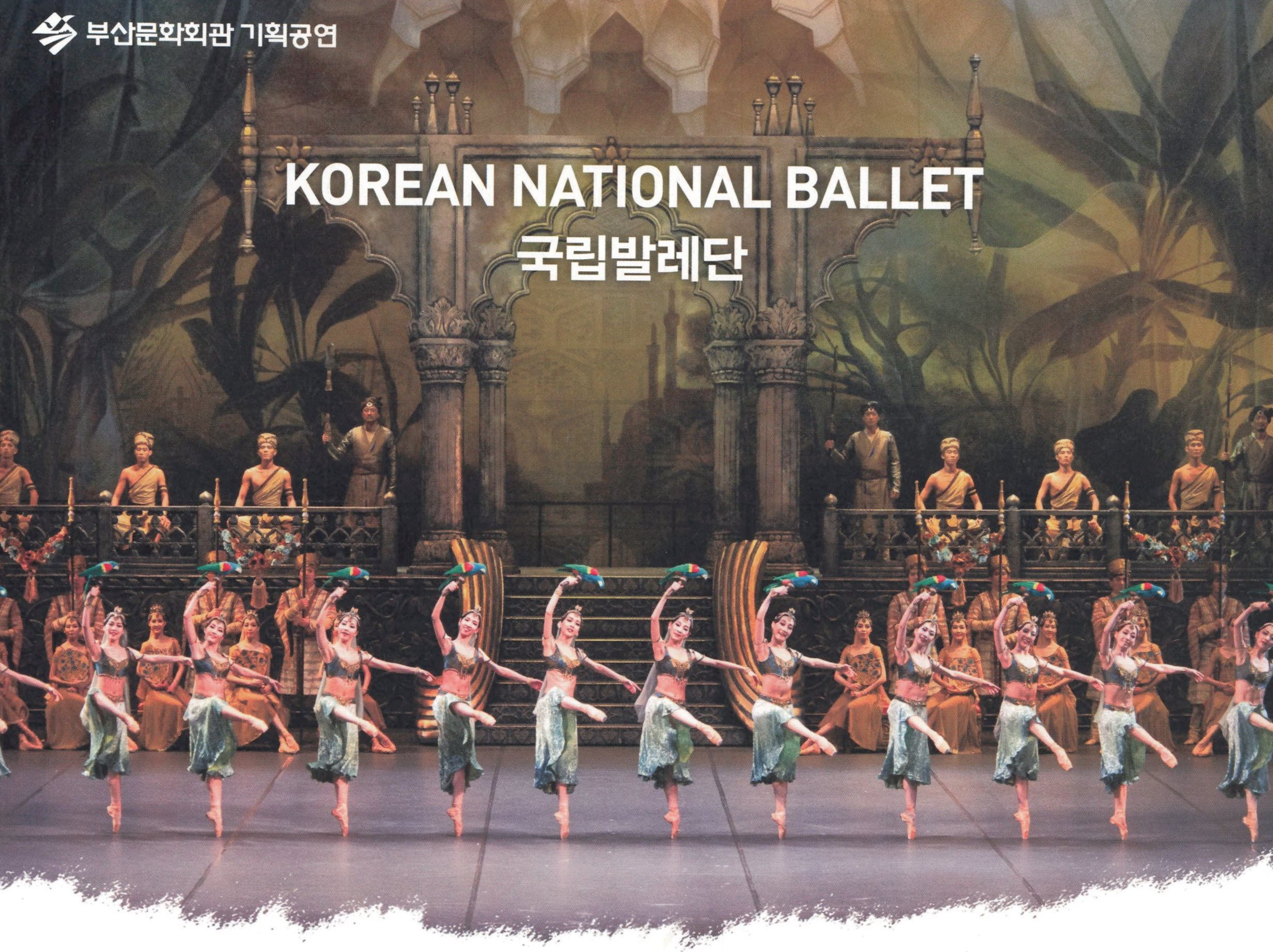
2014. 1. 24(금) 19: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주관 부산문화회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티켓링크 문의 051)607-6058 티켓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KOREAN NATIONAL BALLET

국립발레단



러시아 발레의 숨겨진 보석, 새로운 해석으로 더 아름답게 빛날

LA BAYADERE

라 바야데르

with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년 2월 28일(금) 19:30 / 3월 1일(토) 1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출연** 국립발레단 **음악** 루드비히 밍쿠스 **안무** 유리 그리가로비치

주최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주관 부산문화회관 문의 051-607-6058



DYNAMIC BUSAN NEW YEAR'S CONCER

Dynamic
BUSAN 신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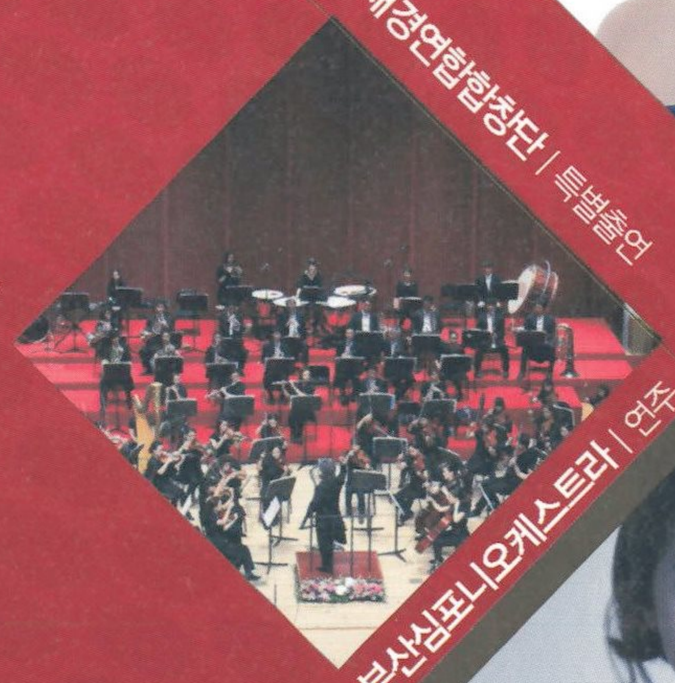
오충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Oh Choong Keun & Busan Symphony Orchestra



오충근 | 지휘

- 교향시 '돈 후안' 작품20 / Symphonic Poem 'Don Juan' Op.20 — 슈트라우스 / R. Strauss
- 카르멘 환상곡 / 'Carmen' Fantasy — 왁스만 / F.Waxman
- 교향시 〈부산 기질〉 / Symphonic Poem <Busan Blut> — 하순봉 / Soon-Bong Ha



재경연합합창단 | 특별출연



박은주 | 소프라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연주

김재원 | 바이올린

2014. 1. 26(SUN) PM 7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 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부산상공회의소 · 부산시 중·고 재경동창회 협의회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주 관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ARTS & ARTISTS ARTISTS MANAGEMENT + A&R PRODUCTION

특별후원 BS금융그룹 · 부산은행

후 원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일보사 · 국제신문 · KBS 부산방송총국 · 부산 MBC ·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문 의 부산_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051-621-4577 www.bso21.com 서울_아트앤아티스트 070-8879-8485 www.artsnartists.com

티 켓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예 매 SAC 예술의전당 Ticket 02-580-1300 www.sacticket.co.kr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ticket.interpark.com

부산 클래식의 아이콘 오충근과 BSO!
한국 민간 오케스트라의 센세이션!!
지역문화의 희망!!!
서울에 울려 퍼지다!!!!



지휘 오충근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대학원 졸업
-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오케스트라 지휘) 졸업
- 6세에 바이올린을 시작, KBS교향악단 단원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최연소 악장(만25세) 역임
- 미국 Melrose Symphony Orchestra, Boston Conservatory Orchestra, Quincy Symphony Orchestra, 러시아 국립 에르미띠쥐 오케스트라, 헝가리안캄머필하모니,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구리시교향악단,창원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 지휘
- 오페라 리골레토, 라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등 지휘
-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축하공연, 부산국제음악제 등 수백회 연주
- 제30회 부산음악상(지휘부문) 수상
- 제9회 KNN 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 수상
- 현재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문화적 위상과 자부심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BSO!

아름다운 열정과 역동적인 면모를 발휘하는 사단법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21세기 문화환경 요구에 부합하는 교향악단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클래식 팬들에게 다가가는 정통 오케스트라로 호평 받고 있다.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부산음악인 시리즈, 오페라공연, 조수미콘서트, 호세카레라스 독창회, 부산바다축제, 한.일 빅콘서트, KNN OST 콘서트 그리고 기업 메세나음악회 등 수많은 연주를 통하여 문화상품화의 가능성과 함께 음악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03년, 2004년 문화관광부 주최 전국 순회음악회에 지방교향악단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지방문화 창달에도 기여하였으며 2006년, 2007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축하공연과 2007년 부산국제합창제 전야 대음악회, 2008년, 2012년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등의 국제적 행사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다.

DYNAMIC BUSAN NEW YEAR'S CONCERT



소프라노 박은주

부산이 낳은 한국의 프리마돈나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독일 쾰른 음대 Diplom 및 Konzertexamen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에리콰 콰트 성악콩쿠르 1위 및 다수의 성악콩쿠르 입상
- 1995년 Lucia di Lammermoor로 유럽 무대 데뷔
- 비엔나 국립오페라단, 베를린, 하노버, 뒤셀도르프, 도르트문트, 만하임 등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다수의 극장에서 주역가수로 활동
- 2011년 청와대 초청 신년음악회 출연 및 오페라 돈조반니, 사랑의 묘약, 호프만 이야기, 파우스트,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라보엠, 미뇽, 후궁으로 부터의 도주, 멜루지네, 현대 오페라 트로이 연인들, 칼라 등의 주역으로 출연
- 현재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바이올린 김재원

한국 클래식계의 희망

2012년 이탈리아 리피처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 입상과 함께 '영뮤지션상', '오케스트라 협연상'도 수상하며 클래식계의 주목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부산예술중학교 수석입학, 부산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입학한 김재원은 2013 홍콩 쇤펠트 국제 현악콩쿠르 3위, 2009 독일 클로스터 센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최연소 2위 및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이탈리아 초청독주회, 밤베르크 심포니와 스페인 순회공연, 미국 몬테시토국제음악제, 대관령국제음악제 참가 등 유럽과 아시아를 무대로 활동 중이다.

합창 재경연합합창단 (특별출연)

연주곡목 Program

슈트라우스 R. Strauss	교향시 '돈 후안' 작품20 Symphonic Poem 'Don Juan' Op.20	왁스만 F. Waxman	카르멘 환상곡 'Carmen' Fantasy
도니제티 G. Donizetti	오페라 '루치아' 중 〈깊은 침묵은 밤을 덮는다〉 <Regnava nel silenzio> from Opera 'Lucia di Lammermoor'	하순봉 Soon-Bong Ha	교향시 〈부산 기질〉 外 수 곡. Symphonic Poem <Busan Blut>

아시아 최고의 음악축제를 지향하는 명품앙상블!

2014 제9회 부산국제음악제 콘서트 시리즈
(Busan Music Festival Concert Series)



1월 17일(금) 오후 7시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모차르트 | 바이올린협주곡 제2번
요한 스트라우스 | 오페레타 [박쥐] 중에서 "친애하는 후작님"
프란츠 레하르 |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에서 "빌랴의 노래"
푸치니 | 오페라 [토스카] 중에서 "별은 빛나건만"
베르디 |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여자의 마음"
베르디 | 오페라 [춘희] 중에서 "축배의 노래"
차이코프스키 |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베토벤 |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

지 휘 | 조엘 스미어노프
오케스트라 | BMF오케스트라 (부산국제음악제 페스티벌오케스트라)
협 연 | 김남윤(Vn.), 백혜선(Pf.), 홍혜란(Sop.), 최원휘(Ten.), 문태국(VC.)

1월 20일(월)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거장의 실내악1 -브람스의 회상-

'자유롭게, 그러나 고독하게(Frei aber Einsam)'
브람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울함과 비장함이 어우러진 감동이 함께하는
브람스 실내악의 묘미를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브람스 | 바이올린소나타 제1번, 제2번 (Vn./ 조안 권 Pf./ 백혜선)
브람스 | 현악6중주 제2번

피 아 노 | 백혜선
바이올린 | 조안 권, 고이치로 하라다
비 올 라 | 조엘 스미어노프, 에르완 리샤
첼 로 | 로렌스 레써, 민혜 클라라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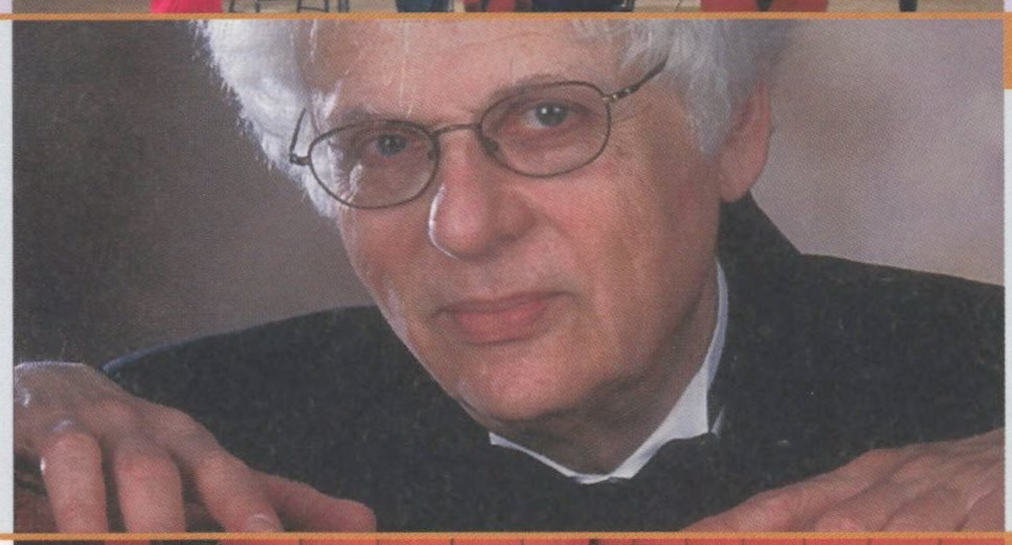
1월 21일(화)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거장의 실내악2 -피아노와 스트링의 만남-

부산국제음악제 초청 스타음악가들의 여유와 관록이 어우러진 피아노3중주, 피아노5중주의감동의 앙상블이
연주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와 첼로영재들로 구성된 첼로앙상블의 그윽한 앙상블이 연주됩니다.

슈베르트 | 피아노3중주 제1번
프 랑 크 | 피아노5중주 외

피 아 노 | 알렉산더 마자르, 이경숙
바이올린 | 백주영, 김동욱, 가즈노 나카
비 올 라 | 에르완 리샤
첼 로 | 박상민, 민혜 클라라 김, 문태국과 첼로 영재



1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첼로의 거장 로렌스 레써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바흐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칭송받는 무반주첼로모음곡은
첼리스트들이라면 도전해 보고 싶은 음악의 성서와 같은 곡으로
여러운 기교와 감성적인 표현과 선율이 얽혀있는 감동적인 곡입니다

연주곡 | 바흐 무반주 첼로모음곡 1, 2, 3, 6번



1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폐막연주회 '가족음악회'

명피아니스트들이 펼치는 피아노 Extravaganza (화려한 이벤트)! 바이올린 영재들이 펼치는 즐거운 감동

쇼스타코비치 | 로망스
몬 티 | 차르다쉬
비 발 디 | 사계
거 쉬 인 | 2대의 피아노를 위한 "랩소디 인 불루"
코플란드 |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살롱드 멕시코" 외
(연주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 아 노 | 알렉산더 마자르, 필립케윈, 주희성
바이올린 | 김남윤과 바이올린오케스트라
첼 로 | 박상민

가족음악회는 성인 1명이 입장권 1장을 구입하면
동반 자녀 1명은 무료입장 됩니다.

- 주 최 | (사)부산국제음악제 • 주관 : (사)부산국제음악제 운영위원회,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후 원 |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S 부산은행 코스모스악기 COSMOS CORPORATION
- 입 장 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각 음악회 동일가격)
- 예 매 처 | 인터파크, 티켓링크, BS 부산은행 전지점
- 단체할인 | 20%할인(20명 이상, 전화예매자) 문화회관 회원 10%할인
-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www.busanmusicfestival.com www.busanarts.com

2014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1월 17일(금)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세계최정상의 연주자들이 들려줄 협주곡의 감동!

백혜선이 연주하는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
김남윤이 연주하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2011퀸엘리자베스국제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1등 우승의 주역 소프라노 홍혜란과 테너 최원휘가 들려줄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 장한나를 잇는 차세대 첼로스타 문태국이 들려주는 차이코프스키 로코코변주곡을
조엘 스미어노프가 지휘하는 부산국제음악제 페스티벌오케스트라(BMF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여러분의 새해를 행복하게 열어줍니다.

출연

지　　휘 | 조엘 스미어노프
오케스트라 | BMF오케스트라
(부산국제음악제 페스티벌오케스트라)
협　　연 | 김남윤, 백혜선, 홍혜란, 최원휘, 문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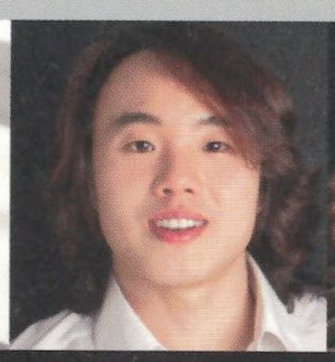
프로그램

모차르트 | 바이올린협주곡 제2번
요한 스트라우스 | 오페레타 [박쥐] 중에서 "친애하는 후작님"
프란츠 레하르 |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에서 "빌랴의 노래"
푸치니 | 오페라 [토스카] 중에서 "별은 빛나건만"
베르디 |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여자의 마음"
베르디 | 오페라 [춘희] 중에서 "축배의 노래"
차이코프스키 |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베토벤 |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


김남윤 (Vn.)


백혜선 (Pf.)


홍혜란 (Sop.)


최원휘 (Ten.)


문태국 (VC.)

| 조엘 스미어노프



1 | 17

- 주　　최 | (사)부산국제음악제　• 주관 : (사)부산국제음악제 운영위원회,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후　　원 |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S 부산은행 코스모스악기 COSMOS CORPORATION
- 입 장 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 예 매 처 | 인터파크, 티켓링크, BS 부산은행 전지점
- 단체할인 | 20%할인(20명 이상, 전화예매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www.busanmusicfestival.com www.busanarts.com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4 RONN BRANTON'S

JAZZ VALENTAIN

FLOWER & LOVE

서정적이고 지적인 피아니스트

론 브랜튼의

Jazz Valentain

재즈 발렌타인 콘서

*출연진

신소이 Shin So Ei (보컬 Vocal)
리차드 로 Richard Rho (색소폰 Saxophone)
류크 도일 Luke Doyle (기타 Guitar)
최진배 Choi Jin Bae (베이스 Bass)
임경진 Im Kyung Jin (베이스 Bass)

2014. 2.15(토) 오후4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공연문의 홍보마케팅부 607-3100 / 공연과 607-6057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ticketlink 1588-7890 / BS 부산은행 전지점
입장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CONTENTS

2014 January Vol·265 culture.busan.go.kr

10 **신년사** | 온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을 꿈꾼다 _허남식

12 **신년시** | 새해 첫 해_동길산

14 **부산문화회관 2014 주요계획**

26 **프리뷰**

32 **문화가 화제** | 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라이프 사진전–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34 **반갑습니다** | 소프라노 신영옥

3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극단 하이바이(hi–bye)의 '이와이 히데토' _이홍이

40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㉕** |
오스카 와일드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1_이동신

42 **불멸의 거장 – 강태홍 ①** | 효산 강태홍 선생과 가야금 산조_ 김혜진

44 **그림, 풍류를 만나다 ㉟** |
검을 찬 신선과 날아오르는 학 '해산선학(海山仙鶴)' _ 변광석

46 **그곳에 가면** | 별 내리는 병산골 송예원

48 **우리는 문화가족** | 트럼펫터 부산지부

50 **테마가 있는 여행** | '별주부전'의 슬픈 설화가 전해지는 사천

53 Culture Life

67 부산문화회관 소식

68 **부산문화회관路** | 갤러리 예가

70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1월호 통권 265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발행인 | 박성택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3년 12월 25일

인쇄처 | (주)대주애드 Tel. 051)803–6631







온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을 꿈꾼다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희망찬 갑오년(甲午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은 십이지 동물 가운데 용호와 함께 튼튼한 육체와 활력을 상징하는 대표 동물로 우리와 매우 친숙합니다. 새해에는 희망과 밝은 미래를 약속해주는 역동적인 말의 기운이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았던 부산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영화·영상산업의 허브로, 해양과 물류·금융의 도시로 세계에 이름을 알리며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시민공원에 '미래도약 100년'을 위한 '희망 부산 100년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새해에는 부산시가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국제적 관문도시로, 세계 10대 광역경제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우리 부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상징인 영도다리가 47년 만에 도개(跳開) 기능을 복원해 새로운 명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스토리 중심의 모범적 도시 재생 사례인 부산 도시재생 사업–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대한민국 희망박람회 지역발전대상, 지역공동체 활성화 최우수상을 받고 초·중·고교 지리·사회 교과서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산복도로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부산을 찾고 있습니다. 부산의 정서를 살린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부산스타일의 문화 재생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 새해, 우리 시는 부산다운 매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에 온 힘을 쏟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에 문화의 옷을 입혀, 문화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창조문화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중심의 현장감있는 문화행정을 펼치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예술창작공간의 확충과 함께, 문화 예술활동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인프라와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는 소프트 문화시정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부산문화의 본당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문화회관에는 창단 50주년을 넘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우리 음악의 전승,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40주년을 맞아 원숙미를 더해가는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의 역동성을 그려내고 있는 부산시립극단, 세계무대에서 그 저력을 뽐내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7개 단체가 상주하며 부산시민들을 위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은 특히 지난해 7월 초대 개방형 관장이 취임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중심이 되는 고객 중심운영을 비롯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획공연과 시립예술단 운영시스템 개선, 노후 공연시설 리모델링, 입장료 현실화 등을 차근차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는 다양성을 전제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때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빛을 발합니다.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더욱 다양화, 양극화 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에서도 온 부산시민들이 행복해지는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가족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평안하고 여유로운 한해가 되기 바랍니다. 문화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부산의 희망찬 발걸음에 시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취임 후 "모두의 소망과 꿈이 모이면, 그것이 미래가 됩니다"라는 문구를 화두처럼 떠올렸습니다. 새해에는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소망과 꿈이 모두 이루어지고 그 소망과 꿈을 모아 '부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오년(甲午年)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과 화평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새해 아침에

부산광역시장

신년시

새해 첫 해

동길산 시인

보기만 해도 무거워 보이는 해가
속을 비우고 가벼워진 듯 떠오른다
집을 떠난 사람들은
차가운 길 끝에 서서 우두커니
떠오르는 해를 맞이한다
해를 닮고 싶어
몸이 얼어가는 것도 참아낸 사람들
사람의 속은 구불구불하고
그리고 복잡할지라도
한참을 울고 나면 개운해지지 않던가
마음을 새로 먹게 되지 않던가
집을 떠나 차가운 길 끝
새해 첫날 첫 해가 떠오른다
한참을 울고 나서 개운해진 듯
마음을 새로 먹은 해가 떠오른다

동길산 1960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무크지 '지평'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뻐꾸기 트럭' '무화과 한 그루' 등과 산문집 '시가 있는 등대 이야기' '우두커니' 등을 펴냈다.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부산문화회관

더욱 풍성한 볼거리로 즐거움 선사

2014년 신년, 부산문화회관은 여느해 보다 더욱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문화회관은 2014년 기획공연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통해 부산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수준높은 작품을 선사하고 아울러 온 가족이 부담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문화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2014년 부산문화회관의 기획 프로그램에 특히 관심이 높다. 2014년 첫 기획 프로그램은 개관이래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획전시 '라이프 사진전'. 1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리게 될 '라이프 사진전'은 20세기 최고의 사진잡지 '라이프(LIFE)'의 위대한 기록을 전시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이다. '라이프(LIFE)'는 1936년 사진으로 소통하는 저널을 표방하며 헨리 루스(Henry Luce)에 의해 탄생된 사진잡지로, 당대 최고의 사진작가로 평가 받는 알프레드 아이젠슈테트, 유진 스미스, 로버트 카파, 더글러스 던컨 등이 활동했다. 주간 판매량이 1,300만부에 이를 만큼 절대적인 대중의 사랑을 받는 잡지로 성장했지만 1972년 12월 29일 최종호를 발간하고 '그 해의 사진들'을 끝으로 폐간되었다. '라이프 사진전'은 세종문화회관에서 81일간의 전시기간동안 15만명이 관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4년에는 유명 연주인, 연주단체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을 통해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다. 기획공연 첫무대로 1월 16일 세계 최장수, 최고의 실내악단 '이 무지치'가 부산



재즈 발렌타인 '꽃과 사랑'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I

시민들에게 희망찬 신년메시지를 전한다. 열정의 연주와 정제된 스타일, 흠잡을 데 없는 예술적 기교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이 무지치'의 비발디 '사계'를 이번 신년음악회에서 만날 수 있다. 1월 특별한 신년을 열어줄 또다른 주인공은 '소프라노 신영옥'. 1월 24일 세계적인 리릭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신영옥이 부산문화회관 리모델링 후 처음으로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 한국의 정서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사랑, 평화 등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예정이다.

1월 26일에는 부산문화회관 기획 공연으로 '다이나믹 부산신년음악회'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지방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부산출향인들의 힘을 모아 새해 도약하는 부산을 보여주기 위한 이번 무대는 고신대학교 오충근 교수가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 부산대학교 교수 소프라노 박은주, 부산출신의 유망주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의 협연 무대로 역동적인 부산의 힘, 부산문화의 자존심을 서울 전역에 알릴 계획이다.

2월에는 정상급 재즈 뮤지션 론 브랜톤이 펼치는 로맨틱 재즈 콘서트 재즈 발렌타인 '꽃과 사랑', 지난해 국내 발레 공연 중 유일한 신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국립발레단의 블록버스터급 발레 '라 바야데르'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펼쳐진다. '라 바야데르'는 인도 무희 니키아와 용맹한 전사 솔로르, 솔로르와 정략결혼을 하게 될 감자티 공주, 니키아를 흠모한 제사장 브라만의 얽히고 설킨 사랑 이야기로 1877년 고전발레의 아버지 마리우스 프티파에 의해 탄생한 이후 마린스키, 누레예프, 마카로바 등 다양한 버전의 안무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무대는 국립발레단 강수진 신임단장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국립발레단의 2014년 첫 무대가 될 작품이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월에는 피아니스트 프레디 캠프 초청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의 밤이 펼쳐진다. 피아니스트 프레디 캠프는 1998년 제11회 차이코프스키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 입상과 더불어 관객의 만장일치로 청중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다. 이날 무대에서는 3개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한 무대에서 연주할 예정이다.

6월에는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부산을 찾는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비엔나 체임버와 젊은 클래식스타 빅3와 함께 비엔나의 여름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날 무


다이나믹 부산신년음악회


소프라노 신영옥



이 무지치

대는 2006년 이후 8년만에 내한하는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정통의 비엔나 사운드에 음악애호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월에는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I '라 트라비아타'가 펼쳐진다. 올해 처음 기획된 이번 무대는 클래식계의 슈퍼스타 금난새의 유익한 해설과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로 7월 '라 트라비아타'에 이어 11월 '카르멘'으로 전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오페라 레퍼토리를 금난새의 재미있는 해설로 만날 수 있다.

8월에는 釜山 · 福岡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공연으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세이료고등학교의 합동연주가 펼쳐진다. 부산시 자매도시 후쿠오카현을 대표하는 공연장인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과 부산문화회관의 청소년 교류공연 프로젝트으로 추진되는 이날 무대를 통해 한·일 청소년들이 음악으로 하나된다.

8월은 특히 볼거리가 많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무대 외 부산문화회관에서 '제1회 부산첼버뮤직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다.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2014년 의욕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부산첼버뮤직 페스티벌'은 국·내외 유명 실내악팀과 부산첼버페스티벌오케스트라의 앙상블을 즐길 수 있는 여름 음악축제로 첫 장을 연다. 페스티벌의 성공을 위해 신년 시작과 함께 연주단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구성해나갈 계획이다.

8월을 장식할 마지막 무대는 국립오페라단 초청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무대. 국립오페라단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오페라 '카르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 중 하나로 인간이 욕망과 육체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10월에는 샹트 페테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랜만에 부산문화회관 초청으로 부산을 찾는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낭만적이고도 비장한 유럽풍 클래식으로 특별한 가을을 즐길 수 있다.

우수 단체 초청 무대 외에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악기가족 이야기',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부산시립합창단 가요합창음악회 '팝과 가요합창의 밤',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춤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팥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2014 제야음악회 등으로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 공연, 행사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다양한 기획과 특별한 무대로 감상의 즐거움 선사

지난해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조명하는 '베토벤 사이클'을 기획,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예술적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해도 다양한 기획과 특별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난다.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취임 후 지난 5년간 베토벤, 브람스의 곡을 기저로 R.슈트라우스, 바그너, 말러, 브루크너 등 후기낭만주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14년에는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 등 그동안 무대에서 잘 만날 수 없었던 프로그램을 선곡,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다채로운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월 10일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11회 정기공연과 7회 특별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2014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기를 맞아 4월 1일 제499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모음곡을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의 편곡으로 들려주며, 11월 28일 제504회 정기연주회에서는 '4개의 마지막 노래', '죽음과 변용',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등 슈트라우스의 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관객과 만난다. 특히 제500회 정기연주회를 맞는 5월 13일 무대에서는 바르톡의 오케스트라 협주곡을 선곡,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음색을 유감없이 발휘할 예정이다. 오페라 전곡을 오케스트라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 in 콘서트'는 올해 10월 17일,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무대에 올리며 브런치 콘서트로 사랑받고 있는 웰빙콘서트는 2012년부터 계속되어온 오페라 하이라이트로 꾸며진다.

국내외 실력파 연주자들을 만나는 것도 2014년 최고의 기쁨. 우선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대구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곽승과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오스트리아 찰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는 유베르트 수당이 객원 지휘자로 부산을 찾고 피아니스트 올리버 케른, 예카테리나 메체티나, 예브게니 이조토프,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송 샤오첸, 클라리네티스트 마이클 콜린스, 소프라노 김유섬, 이화영, 레이 슈, 테너 김지호, 김영환, 조윤환, 김정하, 바리톤 고성현, 박대용, 강경원, 제상철 등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시민클래식교실은 오페라 속 다양한 사랑의 스펙트럼을 주제로 1월 8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되며, 어린이 관객을 위한 악기가족이야기는 1월과 7월에, 청소년 관객을 위한 '클래식은 내친구'는 8월에 마련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일상생활 속에 스미는 국악의 향기

지난해 외교통상부의 '지자체 공연단 해외 파견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간호사 파독 50주년을 기념한 독일 순회공연을 통해 우리의 흥과 멋을 전 세계에 알리며 창단 이래 가장 분주한 한해를 보낸 부산시립국악관현단은 2014년 새해를 맞는 각오가 남다르다.

2014년은 1984년 부산지역에 우리 음악의 맥을 잇고 새로운 음악의 창작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 30주년을 맞는 해. 김철호 수석지휘자를 비롯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전 단원들이 시민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주는 음악을 만들어 내기 위해 새해에도 땀흘린다는 각오로 새해를 맞는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월 30일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축하하고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을 시작으로 총 15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매년 3월 열리는 신춘음악회, 5월 소외 계층을 위한 순회공연 '천원의 행복',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음악회 '상생', 흥겨운 국악으로 즐기는 여름국악축제 '팥빙수 같이 시원한 음악회', 청소년 유망주를 위한 청소년 협연의 밤,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음악회 등 기존의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면서 30년 전 부산시민들을 위해 첫 무대를 준비하던 창단 당시의 첫 마음을 되돌아볼 계획이다.

5월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이의경 초대 지휘자를 비롯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동, 배양현, 박호성 지휘자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역대 지휘자들과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는 기념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부산국악애호가들과 조우하게 될 지휘자나 특별 프로그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철호 수석지휘자는 역대 지휘자 초청 무대 외 여건이 된다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의 의미를 살리는 자료집, 세미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초연 위촉곡을 중심으로 한 음반 제작 작업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을 통해 부산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레퍼토리 발굴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지금의 부산을 있게 한 근, 현대 부산의 역사를 재조명 해보는 부산다운 작품 구상도 계속 진행해나가고 싶습니다."

2014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국악의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지 못하는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지역 순회공연 등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립합창단

2014년 새로운 40년의 축제를 노래하다

2013년 창단 40주년을 맞아 오세종 수석지휘자와 전 단원들이 어느 해 보다 분주한 활동을 펼친 부산시립합창단은 2014년 새로운 40년 역사의 새 장을 연다.

부산시립합창단은 2014년 한해 정통적인 합창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정기연주회와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별·기획 연주회 등 18회의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2월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신년음악회 '2014 축제를 노래하다'에서 부산시립합창단이 선택한 첫 레퍼토리는 서민의 축제음악으로 불리는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브라나'. 2012년 카르미나 브라나와 B-Boy 'StepCrew'와 만남으로 색다른 무대를 선보인 바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은 2014년 풀 오케스트라 버전이 아닌 타악앙상블과 두 대의 피아노로 새로운 느낌의 '카르미나 부라나'를 들려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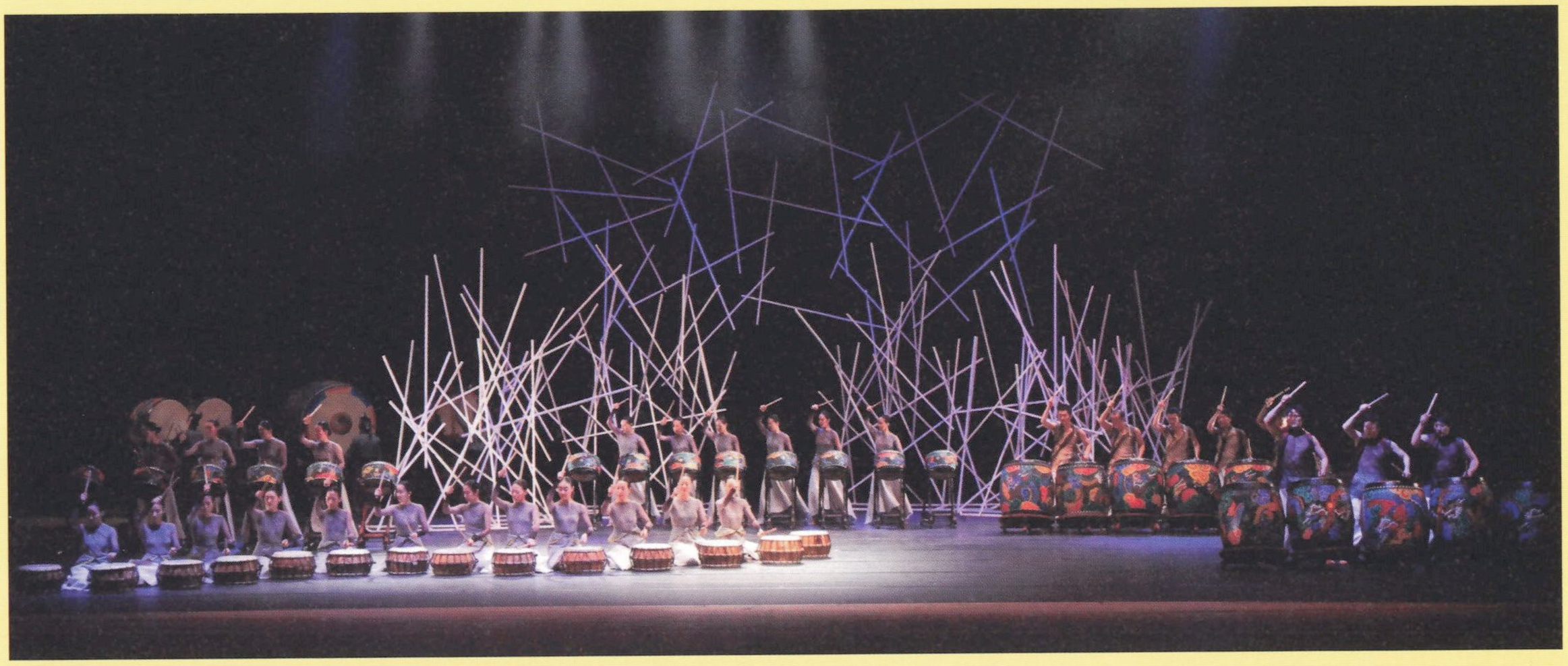
3월로 계획 중인 제150회 정기연주회는 '합창으로 맛보는 음식백화점'이라는 독특한 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아름다운 노랫말과 정감있는 가사를 가진 많은 합창곡들 중 '꽁보리밥에 된장, 김치 넣고 비벼!' '남자끼리 한상차려' '여자끼리 수다 떨며' 등 '음식'을 주제로 한 곡, 음식이름이 제목인 합창곡들을 모아 감각적인 '맛있는 합창'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무대를 위해 음악평론가 탁계석 씨가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다.

5월에 펼쳐질 가요합창음악회에서는 'R.G.B' 곡들을 합창음악으로 재해석, 합창음악의 즐거움을, 호국 보훈의 달 6월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반주로 포레의 레퀴엠을 들려줄 계획이다. 8월에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세계합창심포지움'에 초청된 해외 우수 단체와의 교류 무대를 기획, 미국, 아르헨티나, 스웨덴 합창단과 함께 '써머 판타지' 무대를 연다.

가을에는 감성이 묻어나는 감미로운 합창 무대로 합창음악애호가들과 만날 계획이다. 9월로 계획된 제153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내일을 향해 쏴라, 쇼생크 탈출, 닥터 지바고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OST를 합창으로 만나는 '영화음악의 밤'으로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감성적인 무대를, 11월에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시인들의 '시'를 합창음악으로 재해석한 프로젝트 음악회 '시와 합창의 만남'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시와 합창의 만남'은 지역 정서를 담은 지역 시인들과 함께 공동 작업으로 특히 기대가 크다.

그 외에도 송년음악회의 주요 레퍼토리로 연말 무대를 장식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부산지역 최고의 합창 축제인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과 함께 하는 '부산합창제',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등은 2014년에도 활발하게 펼쳐질 계획이다.





부산시립무용단

잠재 관객 발굴을 위한 우수 레퍼토리 발굴에 주력

1973년 전국시도립무용단으로 처음으로 창단, 지역 문화 발전, 무용인구 활성화를 위해 땀 흘려온 부산시립무용단은 지난해 창단 40주년을 맞아 어느 해 보다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지난 해 11월 창단 40주년을 기념해 부산시립무용단이 의욕적으로 선보인 '40-춤추는 영혼'은 그동안의 전통을 토대로 한 독창적인 스토리 전개와 작품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잠재 관객 개발에도 큰 몫을 했다. 2014년은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인만큼 부산시립무용단은 홍경희 예술감독과 함께 쉽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춤을 선보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올해 상, 하반기 진행하던 정기공연과 우리 춤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우리춤 산책, 단원들의 창작 열정을 만날 수 있는 '한여름 밤의 춤 작가전',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름마당 춤판'과 시민 무용인 양성을 위한 '풍류' 등 기존 공연일정을 소화하며 부산시립예술단에 대한 친근감,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여름 주요 프로그램인 '여름마당 춤판'은 올해 잊혀져가는 규방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해보기 위해 '규방칠우쟁론기'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예술감독 취임과 함께 불혹을 맞은 부산시립무용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남다른 고민을 거듭해온 홍경희 예술감독은 지난해 부산 관객들의 취향을 파악한 만큼 새해 더욱 좋은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춤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과 밀접한 장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춤을 응용한 '우리춤 체조'와 우수 레퍼토리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수 레퍼토리 발굴을 위해 40년간 발표한 많은 작품들 중 뛰어난 역작들을 다시 찾아내 부산시립무용단의 우수 레퍼토리化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른 장르와 달리 1회 공연으로 끝나는 무용작품의 특성상 뛰어난 작품들이 쉽게 잊혀지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죠. 당시 영상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사장된 좋은 작품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관람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홍경희 예술감독은 현대춤을 가미한 새로운 형식의 창작무대, 다양한 스토리로 부산시민들과 만나고 싶다. 무용 인구저변확대를 위한 시민무용교실, 어린이 한국춤 교실, 풍류,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복지관 순례 공연, 지역문화예술회관 순회공연, 청소년들 위한 공연 등은 2014년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

부산시립극단

우수 레퍼토리, 명작 무대로 즐거움 선사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한 '격정천리'로 2013년을 마무리한 부산시립극단은 2014년에도 부산의 활력을 담은 열정적인 무대로 부산 연극애호가들과 만날 계획이다.

2012년 8월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취임, 고향 부산에서 새로운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석봉 예술감독은 지난해 우리 전쟁사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문화의 생성, 변천사를 보여준데 이어 2014년에는 배우와 직접 만나는 라이브 콘텐츠의 매력과 재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로 부산 연극애호가들과 만날 계획이다.

부산시립극단은 2014년 연극공연의 대중화, 시민연극교실, 산학협력 공연 활동, 단원들의 대외 활동 권장 등 4개 방침을 정하고 3회의 정기공연과 1회의 특별공연 등 총 30회의 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 첫무대는 연극공연의 대중화 도모를 위한 첫 작업으로 2월, 2013년 무대에 오른 작품들 중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던 화제작을 엄선,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현재 언챙이 곡마단, 귀족 수업 등의 작품을 꾸준히 연습중인 부산시립극단은 두 작품 중 한 작품을 엄선, 앞으로 계속적인 공연을 통해 완성도 높은 부산시립극단 레퍼토리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8월에는 제50회 정기공연을 세계적인 명작열전으로 진행하고, 10월로 계획 중인 제51회 정기공연에서는 소극장 규모의 새로운 창작 작품을 계획하고 있다. 2014년에도 연말연시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부산연극애호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그 외 단원 기량향상과 소그룹 공연제작을 위한 배우 워크샵, 연극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여름연극교실,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연극 제작, 세계적으로 널리 공연되고 있는 작품을 만나는 명작열전 등을 통해 부산시립극단의 고정 관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극교실의 경우 전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이 수강생들을 지도하며 관객과 배우와의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매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년 만에 부산연극제에 참가해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은 부산시립극단 간판 배우 이혁우 씨의 도전처럼 부산연극 발전에이바지 할 수 있는 단원들의 대외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문석봉 예술감독은 젊은 배우 지망생에게 완성도 높은 대형무대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한 산학협력 공연 활동도 계속 진행, 부산지역 연극 활성화를 위해 부산연극계와 꾸준히 교류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오페라 속 오케스트라 시리즈로 관객들과 조우

2013년 올 한해 아카데믹한 자세로 보다 깊이있는 음악들을 선보였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14년 새해에도 기본에 충실한 내실있는 무대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예술적 소양을 키워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창단 20주년을 맞는 올해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수석지휘자 이동신과 전 단원들이 최상의 호흡을 맞추고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부산의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2014 신년음악회' 초청무대로 2014년 갑오년을 힘차게 출발한다. 한·일 양국의 우호를 기리기 위해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임가진의 협연으로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 속의 미녀' 중 '왈츠', 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서곡, 림스키 코르사코프 '스페인 기상곡' 등 신년에 어울리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일본공연에 앞서 1월 18일 토요상설무대를 통해 협연곡을 제외한 같은 레퍼토리로 부산관객과 만난다.

지난해 '발레음악' 시리즈로 발레음악의 진수를 선사했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2014년 새로운 연주 키워드는 '오페라 속 오케스트라'. 3월 25일 제46회 정기연주회 '독일 오페라'를 시작으로 5월 22일 제47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러시아 오페라', 10월 23일 특별연주회에서는 '프랑스 오페라' 편을 마련한다. 시리즈 마지막으로는 12월 12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주년 기념음악회 및 송년무대를 겸해 '이탈리아 오페라 갈라'로 2014년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이날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했던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가 오랜만에 지휘봉을 잡아 수석지휘자인 이동신과 함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20주년을 축하한다.

9월 23일 열리는 제48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호흡을 맞추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거장과의 만남을 통해 단원들의 음악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무대는 평소 청소년교향악단에 관심이 많았던 리 신차오가 빚어내는 앙상블에도 큰 기대가 모아진다.

이밖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자체 오디션을 거쳐 우수한 단원들에게 협연기회를 제공하는 '솔로이스트들의 축제'와 토요상설무대, 순회공연은 2014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매년 차세대 연주자들의 발표무대로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던 '제13회 솔로이스트들의 축제'는 오는 7월 3일 펼쳐진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의 해

지난해 창단 40주년을 맞아 여느해보다 바쁜 연주활동을 펼쳤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4년 올해 새로운 40년을 향한 도약의 해로 삼고 힘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0여회의 크고 작은 음악회를 통해 최고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서의 위상을 확인시켰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도 40년 역사에 걸맞는 탄탄한 음악성과 기획력으로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월 27일과 28일 특별연주회 '작은 음악회'로 2014년 첫 일정을 시작한다. 단원들의 독창, 중창, 합창무대로 꾸며지는 '작은 음악회'는 그동안 단체무대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단원들의 개인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4월 5일 제141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 마지막 작품이자 레퀴엠 작품 중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꼽히는 모차르트 '레퀴엠'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남성단원 모두가 출연하는 대형무대로, 미사곡 특유의 성스로운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10월 25일 열리는 제142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독도의 날을 기념, 독도를 소재로 한 시인 선용의 시에 곡을 붙인 독도음악회로 꾸며진다. 2014년 마지막 무대인 12월 20일 제143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연말 가장 사랑받고 있는 오페라 '아말과 크리스마스'를 무대에 올린다. 메노티의 성탄 오페라인 '아말과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는 동방박사들의 여정 중에 일어날 만한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역경에서 사랑의 기적과 감동을 빚어내는 온가족을 위한 오페라이다.

이밖에 5월 24일 특별연주회에서는 환경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환경음악회'가, 여름방학기간인 8월 14일에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가 펼쳐진다. 9월 28일에는 청소년 합창문화의 발전과 합창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해온 제28회 청소년합창제도 열린다.

매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활약은 2014년 올해도 계속된다. 특히 지난 2012년 독일 할레국제어린이합창축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 대상 수상팀 자격으로 독일, 체코 순회연주회를 가지면서 현지인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5월 열리는 독일 할레국제어린이합창축제(5월 8일~11일)에 다시한번 공식 초청받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그 명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할레국제어린이합창축제에 앞서 열리는 독일 드레스텐 국제합창축제(5월 1일~7일)에도 초청받아 화제가 되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해외 초청무대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위상도 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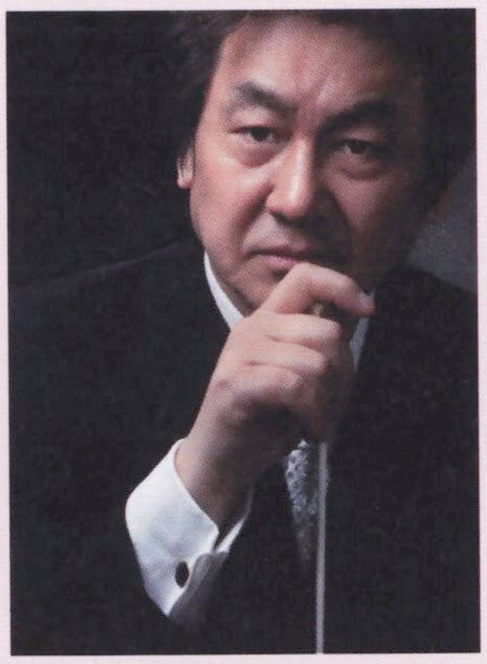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대극장	기획	1/16(목) 이무지치 1/24(금) 신영옥	2/15(토) 재즈 발렌타인 2/20(목) 2/28(금) 국립발레단	3/1(토) 국립발레단		5/19(월)	6/17(화)
	예술단	1/10(금) 교향(496회 정기)	2/14(금) 합창(합창단) 2/21(금) 교향(497회 정기)	3/6(목) 교향(498회 정기) 3/13(목) 국악(171회 정기) 3/21(금) 교향(신춘음악회) 3/25(화) 청교(36회 정기)	4/1(화) 교향(499회 정기) 4/5(토) 소년소녀합창단 (141회 정기) 4/29(화) 합창(151회 정기)	5/13(화) 교향(500회 정기) 5/14(수)~15(목) 합창 5/22(목)~23(금) 국악 5/24(토) 소년소녀합창단 5/28(수)~29(목) 무용(70회 정기)	6/20(금) 교향(501회 정기) 6/27(금) 합창(152회 정기)
중극장	기획	1/18(토) 토요상설무대					
	예술단	1/30(목) 국악(특별)	2/7(금) 교향(웰빙) 2/27(목)~28(금) 소년소녀합창단	3/27(목) 합창(150회 정기)	4/17(목) 국악(청소년협연) 4/25(금) 교향(웰빙)	5/22(목) 청교(37회 정기)	
소극장	기획	1/4(토), 1/11(토), 1/25(토) 토요상설무대	2/8(토), 2/15(토) 토요상설무대	3/8(토), 3/22(토), 3/29(토) 토요상설무대	4/26(토) 토요상설무대	5/17(토), 5/24(토), 5/31(토) 토요상설무대	6/7(토), 6/14(토), 6/21(토) 6/28(토) 토요상설무대
	예술단	1/8(수) 교향(시민클래식교실) 1/10(금) 무용(시민무용교실) 1/13(월)~14(화), 1/16(목)~17(금) 교향(악기가족 이야기) 1/22(수)~23(목) 무용(우리춤 산책)	2/21(금)~26(수) 극단(49회 정기)	3/1(토)~5(수) 극단 3/11(화)~20(목) 무용			6/24(화) 무용(풍류 9기)
국제회의장		1/6(월)~9(목) 무용(강습) 1/15(수), 1/29(수) 교향(시민클래식교실)	2/5(수), 2/12(수), 2/19(수) 2/26(수) 교향(시민클래식교실)	3/5(수) 교향(시민클래식교실)			
지역(區) 문화회관 및 야외극장						5/30(금) 국악(해운대)	6/12(목) 무용(영도) 6/17(화) 무용(금정) 6/19(목) 무용(을숙도) 6/26(목) 국악(을숙도)
순회공연			2/24(월)~3/7(금) 무용(복지관 순회공연)				

※이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화) 금난새 7/4(금) 교향(502회 정기)	8/4(월) 8/23(금)~30(토) 국립오페라단	9/19(금)	10/7(목) 10/23(월)~30(목)	11/10(월) 11/29(토)~30(토)	12/1(월)~7(일) 12/20(토)~21(일) 12/24(수)~28(일)
	8/12(화) 합창 8/13(수) 교향 8/14(목) 소년소녀합창단 8/22(금) 국악	9/18(목) 교향(503회 정기) 9/23(화) 청교 9/26(금) 합창(153회 정기) 9/27(토) 소년소녀합창단 (28회 합창제)	10/17(금) 교향 (오페라인 콘서트) 10/22(수)~24(금) 합창 10/25(토) 소년소녀합창단 (142회 정기) 10/31(금) 교향(504회정기)	11/20(목)~21(금) 무용(71회 정기) 11/26(수)~27(목) 합창 11/28(금) 교향(505회 정기)	12/9(화) 무용(특별) 12/10(수) 무용(특별) 12/12(금) 청교 12/18(목)~19(금) 교향(송년) 12/23(화) 국악(176회 정기) 12/27(토) 소소(143회 정기) 12/31(월) 교향(제야)
	8/28(목)~25(월) 부산첼버뮤직 페스티벌				
7/3(목) 청교(솔로이스트) 7/10(목) 교향 7/16(수) 국악(174회 정기) 7/24(목)~25(금) 교향(악기가족 이야기)	8/1(금) 교향(웰빙) 8/14(목) 무용(한여름밤의 작품전) 8/21(목)~25(월) 극단(50회 정기)	9/25(목) 국악(특별) 9/26(금) 교향 (청소년 협주곡의 밤)	10/23(목) 청교(특별)	11/7(금) 교향(웰빙) 11/11(화)~12(수) 극단(청소년) 11/18(화)~19(수) 교향(청소년) 11/20(목) 국악(175회 정기) 11/27(목) 국악(청소년협연)	12/4(목) 합창(특별) 12/24(수)~28(일) 극단
7/5(토), 7/12(토), 7/19(토) 7/26(토) 토요상설무대	8/2(토), 8/9(토), 8/16(토) 8/23(토), 8/30(토) 토요상설무대	9/6(토), 9/13(토), 9/20(토) 9/27(토) 토요상설무대	10/4(토), 10/11(토), 10/18(토) 10/25(토) 토요상설무대	11/1(토), 11/8(토), 11/15(토) 11/22(토), 11/29(토) 토요상설무대	12/6(토), 12/13(토), 12/20(토) 12/27(토) 토요상설무대
7/25(금) 무용(발표)	8/1(금) 극단(발표)		10/17(금)~23(목) 극단		12/2(화) 무용(풍류)
7/21(월)~27(목) 무용(무용교실) 7/28(월)~31(목) 극단(여름연극교실)					
7/17(목)~18(금) 무용(무용 마당출판)				10/23(목) 국악(금정)	
7월중 극단 국공립 연극 페스티벌(경주)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신년음악회


■ 지휘 김덕기

2013 제야음악회로 2013년 한해를 마무리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월 10일 2014 신년음악회로 희망찬 새해를 연다.

서울대학교 김덕기 교수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이화영, 테너 김영환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희망찬 새해를 알리는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을 시작으로 신년음악회의 주요 레퍼토리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폴카 등으로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음악활동을 시작한 지휘자 김덕기는 오페라에 대한 탁월한 연주와 해석력을 보여주는 지휘자로, 국립오페라단과 시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과 수십편의 작품을 지휘하였으며, 유니버설 발레단과는 호두까기인형을 그리스 테살로니키 국립극장에서 지휘하는 등 청중 뿐 아니라 연출가, 성악가 등 오페라와 발레 무대 전문가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지휘자이다. 김덕기는 그동안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부천 필하모닉, 대구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등 국내 교향악단을 비롯해 일본 신세이 교향악단, 니혼 필, 동경도립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하며 음반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 소프라노 이화영은 1986년 계명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수석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Beniamino Gigli(Accademia di canto Lirico), Ateneo Opera Accademia, Valsesia Music Accademia를 졸업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이화영은 계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오지모 아카데미아, 피렌체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테너 김영환은 스페인 '자코모 아라갈' 국제 성악콩쿠르 1위, 이탈리아 '엔리코 카루소', 'G.B.비오티', '카를로 코치아' 등의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입상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탈리아 베르첼리 시립가극장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의 로돌포역으로 데뷔무대를 가진 김영환은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소프라노 이화영은 1부에서 '강건너 봄이 오듯',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 중 '어머니는 돌아가셨죠'를, 테너 김영환은 '고향의 노래', '너는 왜 울지 않고'를 솔로로 들려주고, 푸치니 오페라 '마농 레스코' 중 '그대, 그대, 내 사랑?'을 듀엣으로 선사한다. 신년음악회의 주요 레퍼토리인 왈츠, 폴카로 구성된 2부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집시남작' 중 '개선행진곡', 폴카 '기차여행' '천둥과 번개' '트리치-트라치', 왈츠 '비엔나 기질' 등으로 희망찬 2014년을 열어준다.


■ 소프라노 이화영


■ 테너 김영환

일 시 1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4 이 무지치 신년음악회



열정의 연주와, 정제된 스타일, 흠잡을 데 없는 예술적 기교로 원초적 삶의 충동을 가져오게 하는 이 무지치의 연주는 현악 사중주단과 같은 음의 섬세함과 정결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풀 현악 오케스트라 사운드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감탄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6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최장수, 최고의 실내악단 '이 무지치'가 2014년 새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이탈리아어로 '음악가들(The Musicians)'을 뜻하는 '이 무지치'는 지난 1952년 이탈리아의 명문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12명의 촉망받는 음악인들로 창단된 후 지금까지 바로크, 낭만파 음악은 물론 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긴 역사를 가진 만큼 이 무지치와 함께한 유명 연주자들도 많다. 그 동안 펠릭스 아요를 리더로, 프랑코 탐포니, 브루노 지우라나, 로베르토 미첼루치, 살바토레 아카르도, 마리아 테레사 가라티, 루치오 부카렐라 등 당대 최고의 연주자들이 이무지치를 만들어왔으며 70세를 정년으로 원년멤버들이 은퇴하면서 새로운 실력가들을 영입, 이무지치의 전통을 이어왔다.

이번에는 한 얼리뮤직 앙상블에서 활동하며 조금은 다른 연주경험을 쌓아온 프란체스카 비카리의 영입으로 전통에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콘서트 마스터 안토니오 안셀미는 인터뷰를 통해 "멤버들이 각자의 음악적, 인간적인 경험을 그룹에 평등하게 가져온다는 생각 하에 활동하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이 무지치의 강점이고 이 무지치를 풍부하고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무지치의 많은 앨범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단연 비발디의 '사계'이다. 이무지치는 1955년 비발디의 '사계'를 세계 최초로 레코딩하여 2,500만장이라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했다. '사계의 바이블'로 불리는 이 무지치의 '사계' 음반은 당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상처받았던 관객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며 카라얀과 함께 지금까지도 클래식 부분 판매량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975년 첫번째 내한공연을 가진 이무지치는 열정적인 한국관객에 매료되어 국내 기획사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2년마다 내한하며 감동을 선사해왔다.

이번 신년음악회에서는 '심플리 바로크 1, 2'와 '오페라스틱' 총 세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 코렐리와 비발디로 완벽한 하모니와 강약의 절묘함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전설적인 챔버 그룹의 실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 시 1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6만원·S석 5만원
A석 4만원·B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2014 제9회 부산국제음악제



세계적인 스타연주자들의 패기와 열정, 관록과 여유가 묻어나는 명연주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온 부산국제음악제 2014년 축제가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영화의전당에서 막이 오른다.

최장수 민간주도형 국제음악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음악제는 2014년 '소통시키는 클래식'을 주제로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실내악으로 2014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제 9회 부산국제음악제를 찾는 음악가들의 면면도 더욱 화려해졌다. 섬세함과 열정을 겸비한 우리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백혜선을 비롯해 한국피아노음악의 대모 피아니스트, 리즈, 부조니, 제네바 콩쿠르 우승의 실력파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마자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문 연주자 시대를 연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이경숙, 미국 뉴올리안즈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서울대학교 주희성 교수,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빼어난 피아노교수법으로 각광받는 피아니스트 필립케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 명교수로 각광받고 있는 일본 음악계의 대부 고이치로 하라다,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린계의 대모 김남윤, 부산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YCA, 시벨리우스, 파가니니, 롱티보 콩쿠르 등에 입상한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서울대학교 교수 백주영이 부산국제음악제를 찾는다.

그외에도 바이올리니스트, 비올리스트, 지휘자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리블랜드 음악원 총장 조엘스미어노프,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매력적인 연주로 각광받는 재미 바이올리니스트 조안 권, 일본 센조쿠 음대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가즈노 나카, 솔로이스트와 실내악주자로서 활발한 펼치는 독일출신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 2003년부터 줄리아드 예비학교의 가장 촉망 받는 교수로, 독주자와 실내악 연주자로서 잘 알려진 첼리스트 민혜 클라라 김, 미국을 대표하는 거장 첼리스트 로렌스 레써,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최연소 종신단원을 거쳐 현재 한국예종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박상민, 미국에서 활동하는 촉망 받는 테너 최원휘, 2011 퀸엘리자베스국제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1등 우승의 주역 소프라노 홍혜란, 앙드레바바라 국제콩쿠르, 주니어 차이코프스키에 입상, 장한나를 잇는 천재 첼리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라이징스타 첼리스트 문태국 등이 부산국제음악제를 찾는다.

부산국제음악제는 1월 17일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축제음악회 시리즈가 펼쳐진다.

일정

- ▶ 1월 1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 ▶ 1월 20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중극장
  거장의 실내악1-브람스의 회상-
- ▶ 1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대극장
  거장의 실내악2-피아노와 스트링의 만남 -
- ▶ 1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첼로의 거장 로렌스 레써-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 ▶ 1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폐막연주회-가족음악회
- ▶ 1월 24일 금요일 오후 8:00 서울 페리지홀
  첼로의 거장 로렌스 레써-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일 시 1월 17일-25일 금요일-토요일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중극장, 영화의전당
입장료 R석 5만원·S석 4만원·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부산아트매지니먼트(740-5833)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4 우리춤 산책


■ 장고춤

평소 실제 강습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춤을 연마해 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우리 춤에 대한 열정과 빼어난 춤솜씨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2014년 우리춤 산책'이 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올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인 승무를 비롯해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산조춤, 진주교방굿거리, 훈령무, 검무, 진쇠춤 등 다채로운 우리춤을 한자리에서 골고루 맛볼 수 있다.

첫 날인 22일에는 단원 황동하가 선보이는 한국 민속무용의 정수 '승무'를 시작으로 달 밝은 밤 남녀가 어우러져 즉흥성을 띄며 추는 '산조춤'을 단원 장래훈, 서정연의 2인무로 선보인다. 이어서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한국 춤의 네 가지 요소인 한, 흥, 멋, 태를 고루 갖춘 춤사위가 아름다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는 단원 김주령의 멋들어진 춤으로 만날 수 있다. 그외 이매방 선생의 조부인 '이대조류'의 맥을 잇고 있는 이매방류 호남검무를 단원 김주연이, 우리 고유의 타악기인 꽹과리를 일컫는 '진쇠'를 들고 국태민안을 비는 '진쇠춤'은 단원 김진영과 남산놀이마당이 함께 펼친다. 군무의 작품을 독무로 구성한 '이매방류 검무'는 여불타령, 자진타령에 맞춰 까치걸음, 잉어걸이, 비정비탈, 상오리, 대머리 등의 춤사위가 이어지면서 장중하던 춤사위가 후반 이후 흥겹고 경쾌한 춤사위로 전화되어 활달한 춤으로 바뀐다.

둘째날인 23일에는 단원 오숙례가 선보이는 춤사위와 발디딤이 섬세하고도 격조있는 한국 전통춤의 백미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이매방류)'을 시작으로, 단원 이정인의 흥과 멋이 넘치는 가락과 춤이 맛깔스러움을 더하는 '산조', 구한말 구군의 모습을 연상해 만든 춤으로, 훈련에 임하는 훈령의 비장한 각오가 절제된 춤사위로 표현된 '훈령무'는 단원 권봉정, 김병주, 오수연의 춤사위로 펼쳐진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한영숙류)'는 단원 이현주가, 마지막 무대로는 아름다운 장고가락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켜 흥을 돋우는 '장고춤'을 단원 이상민, 박은혜, 김도은, 김시현이 멋과 신명으로 풀어낸다.

·무용감독/홍경희(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훈련지도자/서정숙

·해설/김공주

일 시 1월 22일-23일
수-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균일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4 신년음악회 소프라노 신영옥 콘서트



일 시 1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만원·S석 5만원·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소프라노 조수미, 홍혜경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3대 소프라노로 찬사 받고 있는 아름다운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신영옥이 2014년 신년 부산음악팬들을 찾아온다.

이 시대 최고의 리릭 콜로라투라 가수로 사랑받고 있는 신영옥은 1990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입상을 통해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입성했다. 1990~1991년 오페라 '세미라미데'의 '아제마' 공주 역으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데뷔한 이래 높은 음악성을 바탕으로 영국 로열오페라, 워싱턴 오페라, 바스티유 오페라 등 전 세계 오페라 하우스를 누비며 활약했다.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천사의 목소리'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신영옥은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사랑의 묘약'을 공연하는 등 전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질다(베르디 '리골레토' 중)와 루치아(도니제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중)로 이름을 떨치며 세계무대에 한국을 알려왔다.

콘서트 아티스트로서도 수많은 공연을 해온 신영옥은 링컨 센터의 모스틀리 모차르트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제임스 콘론의 지휘 아래 신시내티의 메이 페스티벌에서 '카르미나 부라나', 하이든의 '로드 넬슨 미사', 스트라빈스키의 '나이팅게일',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와 '말러 8번',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시즌 오프닝 갈라 콘서트에서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서울에서는 호세 카레라스와 갈라 콘서트, 카네기 홀에서 콘서트, 토론토의 로이 톰슨 홀에서 리사이틀, 피츠버그 리사이틀 시리즈를 통해 섬세한 음악성을 보여주었다.

박상현이 지휘하는 모스틀리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반주로 진행될 이번 무대는 바리톤 우주호가 특별출연, 1부는 헨델의 Lascia Ch'io Pianga 등 클래식 곡들로, 2부는 영화음악의 거장 엔리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영화 '미션(the mission)'의 아름다운 테마 '넬라 판타지아(nella fantasia)' 등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대중적이고 친숙한 곡들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바리톤 우주호는 이태리 국제콩쿠르에서 잇달아 우승하면서 이태리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우주호는 독일의 '오픈벨트' '프랜츠브르크지'와 이태리의 '일 템포' '꼬레 델 세라' 등에서 '무대를 위해 태어난 성악가', '베르디가 원하는 바리톤'으로 극찬 받은 바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설맞이 국악한마당



우리 민족 최고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정갈하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1년의 무병장수와 풍요를 기원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설맞이 국악한마당'이 1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2014년 창단 30주년을 맞아 더욱 의욕적인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시민들과 만나는 2014년 첫 무대인 만큼 더욱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한해의 복을 기원하는 신명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무대를 위해 이현미 무용단, 국립국악원 소리꾼 김세윤, 이은혜, 부산예술단 등이 춤과 노래가 있는 흥겨운 무대로 갑오년의 희망찬 기운을 함께 전해준다.

첫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채수만 악장의 집박으로 시작하는 궁중연례음악 '수제천'으로 문을 연다. '수명이 하늘과 같이 가지런하다' 는 뜻으로,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수제천은 궁중에서 정재(宮中舞踊)의 반주나 왕의 행차 등에 연주하던 궁중음악이다. 맑고 고요하면서도 기운 넘치는 음향으로 인해 인간의 마음을 가장 평온하게 해주는 태교음악으로도 선정된 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천년만세'. '천년만세'는 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 등 세 개 악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으로, 영산회상과 함께 조선시대 선비들에 의해 주로 연주되던 곡이다. 느린 한배의 첫 곡에 이어 빠른 한배를 가진 '양청도드리'가 연주되고 마지막 곡에서 다시 속도가 느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1년의 복을 기원하는 수제천, 천년만세에 이어 이현미, 이미란, 장경화, 전영란, 노명덕 등 이현미 무용단은 한해의 복을 기원하는 '태평무'로 부산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인 태평무는 궁중의 왕비의상과 같은 화려한 복식을 갖추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표현하는 춤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성희, 정선희와 국립국악원 김세윤, 이은혜는 새해에 밝고 흥겨운 기운을 담은 성주풀이, 남원산성, 노랫가락, 태평가, 경복궁타령 등 민요로 새해의 기운을 북돋아준다.

설맞이 국악한마당 마지막 무대는 음악과 놀이의 종합예술 '판굿'으로 장식한다. 순수 연희적 풍물놀이인 '판굿'은 음악, 춤, 놀이가 함께 연희되어 고도의 기량을 발휘하는 종합예술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주헌, 최오성, 박재현과 김상헌, 정성훈, 정은진, 박승빈, 황진삼, 권교휘, 박성규, 윤지풍 등 부산예술단이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살려 완성도 높은 춤과 기예로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일 시 1월 30일 목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문화가 화제

LIFE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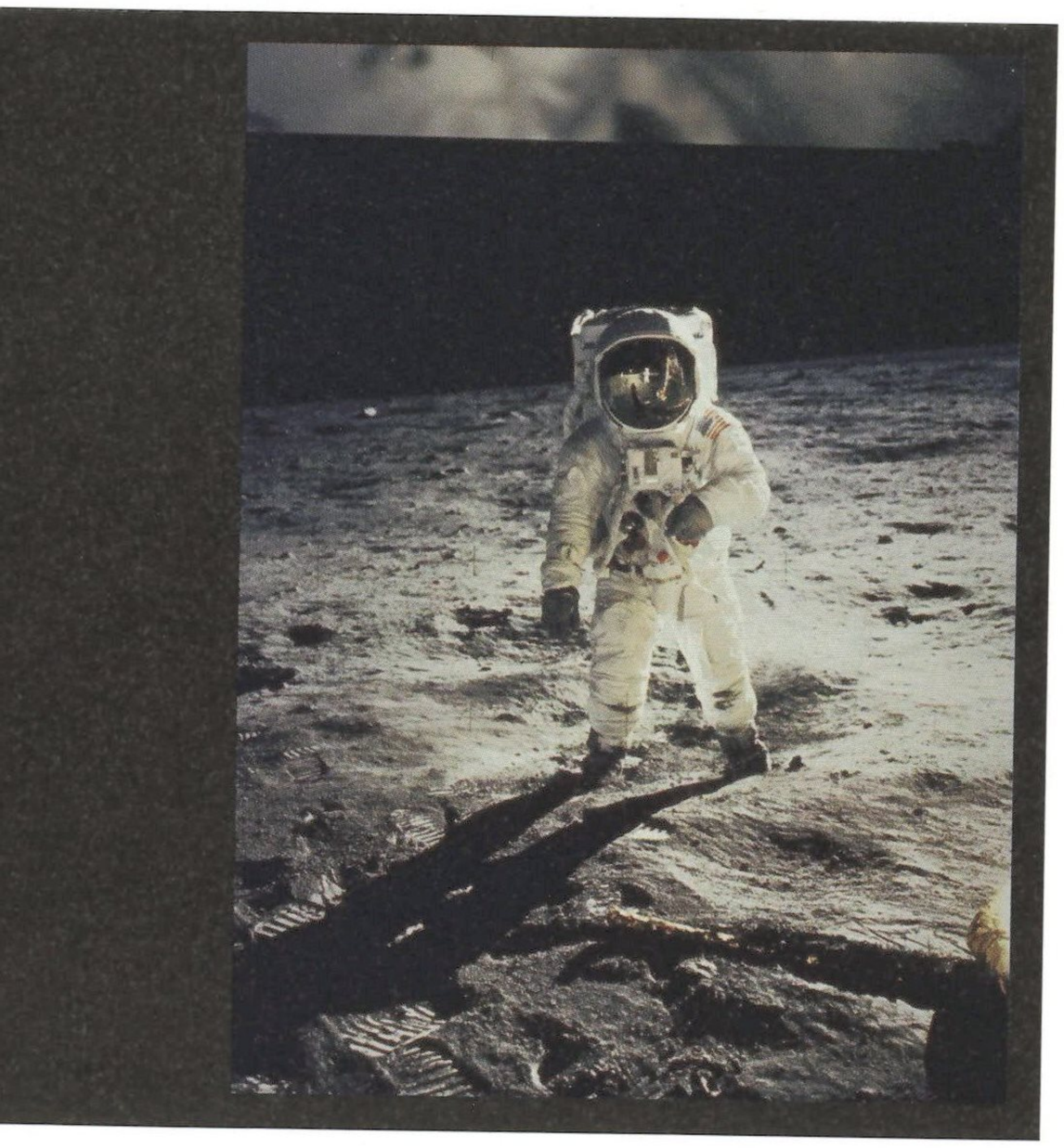
LIFE

부산문화회관 기획 전시회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라이프 사진전

정점의 순간에서 전설이 된 20세기 최고의 사진잡지 '라이프(LIFE)', 그들이 선택한 위대한 기록을 전시로 만날 수 있는 라이프 사진전이 2014년 새해 부산시민들을 찾는다.



1936년 사진으로 소통하는 저널을 표방하며 헨리 루스(Henry Luce)에 의해 탄생된 '라이프'는 최고의 사진작가로 평가받는 알프레드 아이젠슈테트, 유진 스미스, 로버트 카파, 더글러스 던컨 등이 활동했으며, 주간 판매량이 1,300만부에 이를 만큼 절대적인 대중의 사랑을 받는 잡지로 성장했다. '라이프'의 커버를 장식한다는 것은 당시 모든 사진작가들의 자부심이었으며, TV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라이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라이프'는 사진을 통해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라이프'는 1970년대 들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1972년 12월 29일 최종호를 발간하고 '그 해의 사진들'을 끝으로 폐간되었다. 이후 1978년 월간지로 복간되었으나 폐간과 복간을 거듭하다 2007년 완전히 폐간됐다. 현재 '라이프'는 인터넷을 통해 9백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사진자료를 제공하며 전 세계 4천만 명이 넘는 독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라이프지에 소속된 최고의 사진작가들이 남긴 900만장의 사진 중 엄선된 최고의 사진 130여장을 'People:인간 vs 인간' 'Moments:역사에 기억될 순간들' 'It's Life:이것이 우리의 삶' 등 3가지 섹션으로 선보인다. 세종문화회관에서 81일 전시기간동안 15만명이 관람, 화제를 모은 라이프 사진전은 세계 근현대사의 굵직한 순간들을 기록한 사진들과 평범한 일상에서 심오한 인생의 철학을 드러내는 사진에 이르기까지 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 근현대사를 조명해보는 'People:인간 vs 인간'에서는 민족의 지도자로 칭송 받았지만 암살당했던 간디와 김구, 정치적인 앙숙이었지만 미술에 대한 소질, 출중한 연설 능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졌던 처칠과 히틀러, 인간의 몸을 치유했던 슈바이쳐와 인간의 지친 마음을 치유했던 채플린 등 시대를 앞서갔고 시대를 만들어갔던 역사적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해본다. 'Moments:역사에 기억될 순간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핵실험, 달착륙과 텔레비전의 탄생 등 그 자체로 역사가 된 중요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 평범한 일상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본질을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It's Life: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덤에서 한 인간의 삶이 막을 내릴 때까지 인생의 희로애락을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기록하지 않았다면 스쳐 지나갈 찰나의 순간들을 불멸의 역사로 남긴 라이프, 그들의 작품을 통해 인생과 역사에 대한 소중한 순간들을 만나 볼 수 있다.

- 일　　정 | 1월 5일(일)–4월 12일(토)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 관람시간 | 오전 10시~오후 8시
- 관 람 료 | 일반, 대학생 1만 2천원
  중고생 1만원
  초등학생, 유아 8천원
  (만 4세 미만 무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매에 한해 2천원 할인)
-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3)
  디커뮤니케이션(612-6619)

반갑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고
청아한 음색으로 감성을 적시는
소프라노

신영옥

소프라노 신영옥이 부산문화회관 초청으로 2014년 오랜만에 부산무대에 선다.
소프라노 신영옥은 1990년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1991년 오페라 '리골레토' 속 여주인공 '질다'로 데뷔, 특유의 고운 음색과 풍부한 성량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영옥은 지난해 베르디 탄생 200주년 콘서트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로 박수갈채를 받은 바 있다. 2014년 신년 무대를 앞두고 신영옥과 지면으로 특별한 만남을 가져본다.

부산 팬들을 위한 신년인사 부탁드립니다.

- 무엇보다도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부산팬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올 새해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소원하시는 희망들이 꼭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2013년은 다채로운 공연 준비로 분주하게 보낸 것 같아요. 2014년에도 여러 장르의 공연들로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 만에 갖는 부산 공연인가요?

- 2010년 전국 투어 공연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요. 한국의 첫 데뷔 무대가 부산이었기에 더 부산에 정이 갑니다. 특히 이번 연주는 부산문화회관의 대극장이 레노베이션 되어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음악에 대한 꿈은 언제부터 꾸게 되었는지, 음악과의 첫 만남이 궁금합니다.

- 일찍이 제가 노래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신 어머니는 저에게 풍금을 치시면서 동요를 알려주시곤 하셨어요. 결국 오디션을 거쳐서 4살 때 KBS 어린이 합창단 최연소 단원으로 뽑혀 본격적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매니아층이 특히 많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 가끔 성악가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리와 맞지 않는 배역을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저 또한 욕심났던 배역들의 제의도 있었지만 제 목소리에 맞는 오페라만을 해왔어요. 그 점이 오페라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공연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고, 그런 점을 팬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배역, 어울리는 배역을 꼽는다면?

- 모든 작품마다 다 애착이 가지만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는 특별한 역할이죠. 메트 콩쿠르 우승 이후 제가 맡은 첫 여주인공이 바로 '질다'역 이었고, 특히 좋아하는 오페라여서 늘 준비를 철저히 했었기에 공연이 대성공이었어요. 내가 원하던 무대에 섰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질다'역은 늘 제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원한 질다' '가장 아름다운 질다' '깃털같이 보드라운 은빛 목소리의 질다' 등의 수식어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 해외 미디어에서 제 특유의 빛깔로 노래하고 연기하는 질다를 그렇게 묘사했는데 그 당시에 자주 접해서 그런지 저도 자연스레 친밀감을 느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 이제까지 출연한 모든 작품들이 저에겐 다 소중하지만 1997년 메트로폴리탄오페라에서 공연한 벨리니의 오페라 '청교도'라는 작품이 기억에 남는군요.
파바로티와 함께 오페라 '가면무도회'에 공연 하던 중 어느 날 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혹시 청교도를 근래에 해봤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8개월 전 토리노에서 했다 하니 연기 없이 오케스트라에 맞춰 노래만 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오케이했죠. 다음날 한 시간 정도 지휘자와 카덴자 등을 맞춰본 뒤 무대에 올랐어요. 다른 출연자들과 리허설 할 시간도 없었으니 정말 무대 위를 제 마음대로 꾸미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니 항상 준비가 되어 자신을 믿고 무리 없이 공연 했었던 것 같아요.

오랜 해외 생활 중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비법이 궁금합니다.

-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는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연습에만 집중하죠.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특히 따뜻한 된장찌개와 쌀밥이면 최고라고 할 수 있죠. 평소에는 운동도 하고 가족들과 맛있는 레스토랑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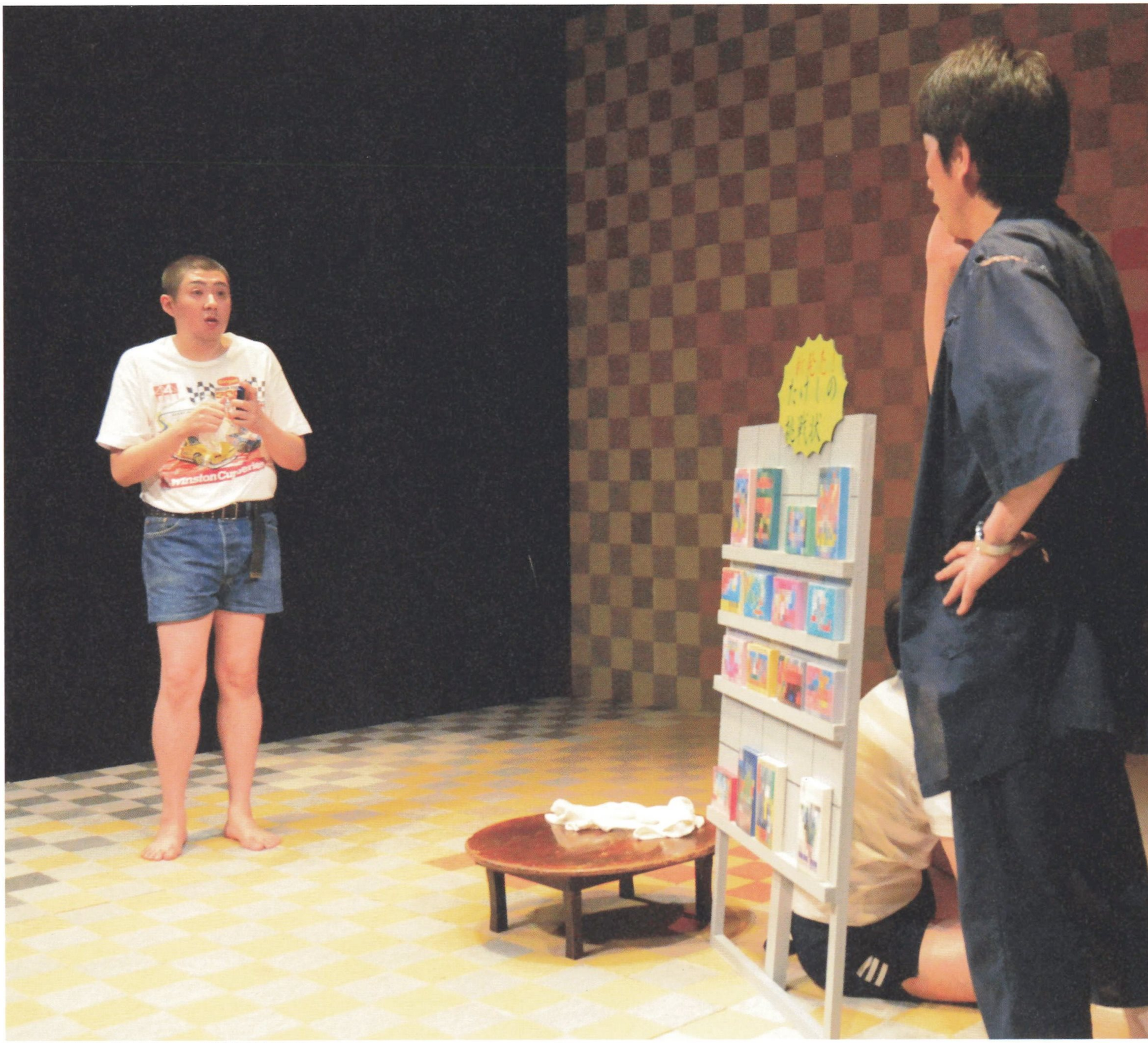
2014년 신년 연주회의 간단한 소개와 감상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 이번 콘서트 프로그램은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뮤지컬, 한국 가곡까지 아주 다양하게 꾸며보았어요. 1부는 클래식 곡들, 그리고 2부는 대중적이고 친숙한 곡들로 진행될 예정이라 아마 관객 분들이 각각 분위기가 다른 무대를 경험하실 수 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새해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2014년 주목해야 할 작가 겸 연출가, 배우

극단 하이바이(hi-bye)의 '이와이 히데토'

■ 이홍이_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박사과정, 한일연극교류협의회 전문위원



■ 〈퐁퐁 너의 자의식을 향해 총총총 흔들고 싶어져 퐁퐁〉 ⓒ曳野若菜

새로운 스타는 어김없이 등장하지만, 그런 정점에 있으면서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람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2013년 한 해에도 일본연극계 안에서는 수많은 작가, 연출가,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이와이 히데토(岩井秀人)'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그의 전성기가 이제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2012년에는 최고의 TV드라마 각본가에게 주어지는 무코다 쿠니코 상을, 바로 다음 해인 2013년에는 가장 유명한 희곡상인 키시다 쿠니오 상을 수상하며, 이와이 히데토는 자신이 최고 수준의 작가임을 증명했다. 물론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작가가 아니다. 1974년생인 그는 2003년 극단 하이바이를 결성했고, 이미 〈히키 칸쿤 토네이토〉, 〈부탁해 방과후〉, 〈퐁퐁 너의 자의식을 향해 총총총 흔들고 싶어져 퐁퐁〉, 〈손〉 등 많은 대표작을 발표했다. 눈여겨볼 점은, 그가 2007년부터는 극단 청년단 연출부에도 소속되어 활동했다는 것으로, 여기서 청년단은 〈도쿄 노트〉, 〈과학하는 마음〉, 〈결혼〉 등의 작품을 통해 한국에도 잘 알려진 히라타 오리자의 극단이다. 따라서 하이바이 역시 현대 일상 그대로의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관습을 강조하는 청년단의 연극 스타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보고 있으면 괜히 얼굴이 붉어질 만큼 생생하고 리얼한 연극. 그래서 더 웃음이 나고, 또 눈물도 나게 만드는 것이 이와이 히데토 식 연극이다. 이것은 그의 연극이 보여주는 형식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과 스타일의 이야기는 미뤄두고, 먼저 그의 독특한 이력을 소개하고 싶다. 그것은 작가 본인이 만16세부터 20세까지, 5년 동안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다는 점이다. 우리말로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되곤 하는 이 용어는, 일본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집에 틀어박혀있는 상태, 혹은 물건을 사러 외출하기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정의된다.

'히키코모리'였던 사람이 어떻게 연극을 만들고, 무대에 직접 오르는 작가 겸 연출가 겸 배우가 되었을까? 마치 이 질문을 하고 싶어 근질근질한 사람들의 입을 막기라도 하듯, 이와이 히데토는 자신의 대표작 〈히키 칸쿤 토네이도〉라는 작품을 통해, 너무나 사실적인 히키코모리의 모습을 그려냈다. 이 작품은 2003년 초연된 이래 최근까지 꾸준히 재공연되고 있는데, 약간의 변형으로 속편까지 낳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줄거리는 단순하다. 10년 동안 집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토미오'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인 여동생 '아야'에게 프로레슬링을 가르쳐주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어느 날, 아들 걱정에 지쳐 버린 엄마가 '출장 카운슬러'라는 남자 '케이치'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황당하게도 케이치는 토미오와 함께 집안에 틀어박히게 된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카운슬러가 집으로 찾아오고, 두 사람을 집밖으로 내보낼 새로운 수를 내놓는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간 토미오는 불량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고 다시 방문을 굳게 닫는데, 또 한 번의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온다.

이 작품에 대해, 연극 평론가 아즈미 쿄코는 "지나치게 리얼하다고 느낄 정도로 리얼했다(2009년 5월 15일, 나나츠데라 연극정보센터 SD통신)"라고 평했는데, 그것은 허무맹

랑한 코미디 속에 히키코모리와 그 가족의 일상, 고민들을 치밀하게 쏟아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언어 대신 철저하게 일상의 언어를 고집하는 연기스타일도 큰 몫을 한 것이다. 실제로 그의 다른 대본을 보면, 첫 페이지에 "어미는 말하기 쉽게 자유롭게 바꾸어달라"는 주문이 적혀있곤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와이 히데토가 소위 '극사실주의'라 불리는 연극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연극은 언제 시작하는 지도 모르게 모호하게 시작되며, 남자가 천연덕스럽게 여자 역을 연기하기도 하고, 고작 손잡이만 덩그러니 있는 가상의 문으로 서로 다른 공간을 뛰어 넘기도 한다.

"남자가 여자 역을 연기하거나 배역과 실제 배우의 연령이 많이 어긋나는,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그냥 아픔은 아픔대로, 바보 같은 모습은 바보 같은 모습 그대로, 그 현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 3월 23일 주니치 신문)

〈히키 칸쿤 토네이도〉를 말하며 내비친 이와이 히데토의 이 연극관은, 사실 그의 모든 작품에 담겨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자신의 기억과 마음을 적나라게 해부했다면,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손〉에서는 그의 가족을 그 해부대 위에 올려놓았다. 어린 시절 상습적으로 아버지의 학대에 시달렸던 네 남매가 성인이 되어도 그 상처를 떨쳐내지 못한, 어디선가 봤을 법한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작가 본인의 가족 이야기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애써 포장하지도, 동시에 일그러진 분노와 원망으로 관객에게 호소하지도 않는 이 연극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족의 실체를 무대 위에 올려놓은 작품이다.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심한 말, 이기적인 행동이 쓴 맛이 나는 코미디로 그려진다. 그것도 한 번은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또 한 번은 엄마의 관점에서, 한 집에 살면서도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다르고, 영원히 용서할 수 없으면서도 완전히 헤어질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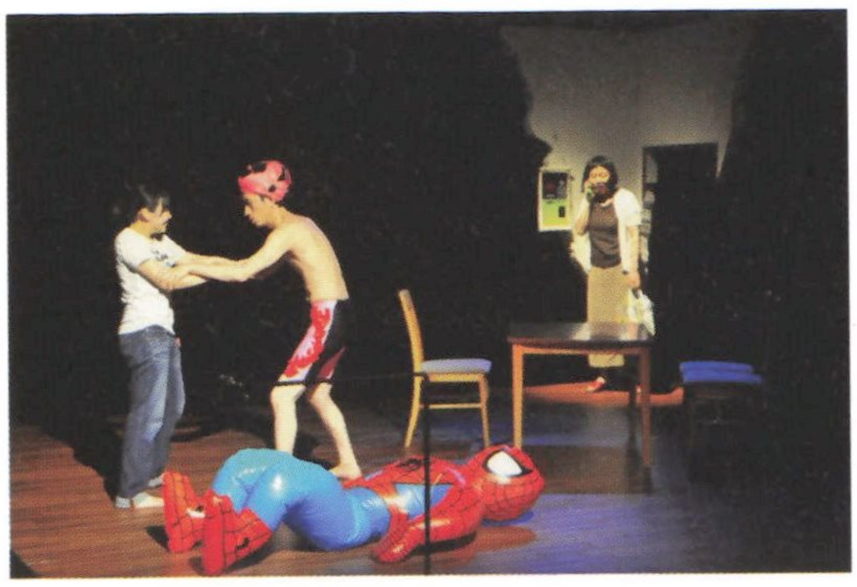
2008년에 초연된 〈손〉 역시 다수의 재공연과 한 번의 각색버전 공연을 거쳐, 2013년에는 극단 하이바이 10주년 기념공연으로 5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도쿄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투어를 마쳤다. 단순히 '나'에서 '가족'으로 주인공이 바뀌었다고 하기에 아까울 만큼, 〈손〉은 극단 하이바이의 10주년을 대표하기에 손색 없을 작품으로 성장했다. 누구라도 나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더욱이 자신의 상처에 현미경을 들이미는 일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와이 히데토는 그 작업을 해냈고, 성공했다.

이와의 히데토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이러한 작업, 즉 객관화시킬 수 없는 대상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기억하고 드라마로서 재구성한 일이, '자신'에서 '타인'으로 그 주인공을 바꿨기 때문이다.

2013년 키시다 쿠니오 상의 수상작 〈어떤 여자〉가 그 대표적 예다. 이 작품은 실제 불륜을 경험한 여성들을 취재한 결과로 만들어졌다. 그녀들의 생생한 체험이, 타카코라는 한 여자의 일상과 망상이 교차하는 무대로 재현된 것이다. 2012년 초연되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이 작품에는, 아예 이와이 히데토 본인이 여장을 하고 등장한다. 비련의 여주인공이 같이 울어줄 것을 바라거나, 노골적으로 여성의 성을 표현하려는 의도는 애초에 배제된다. 어쩌다 보니 불륜을 하게 되었고, 또 어쩌다 보니 그 관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어쩌다 빠져 나오고 보니 한 없이 초라한 여자가, 코믹하면서도 담담하게 그려질 뿐이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형식의 변화인데, 최근 그의 다른 작품 〈퐁퐁 너의 자의식을 향해 총총총 흔들고 싶어져 퐁퐁〉이나 〈영혼을 보는 소녀 히도미〉와 마찬가지로, 영상을 적극적으로 쓰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





■ 〈히키 칸쿤 토네이도〉 (c)曳野若菜

존에 그가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하나의 무대가 어느 장소든 될 수 있었고, 문의 손잡이만 두고 모두 생략해 두 공간 간의 이동이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던 것이, 인물들의 기억 혹은 망상 세계로 안내하는 또 다른 편리한 장치가 등장했다. 이와이 히데토가 영화나 TV쇼에 출연하는 배우이기도 하기 때문일까, 영상 속의 연기와 기술, 감각은 흔히 연극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다.

문득 10년 전 작품 〈히키 칸쿤 토네이도〉 무대에는 벽이 없고, 집 안과 밖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히키코모리도, 히키코모리가 아닌 인물들도 그저 한 공간을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 결국 양자간의 차이를 없애버렸던 것이 떠오른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와이 히데토의 무대 위로는 어떤 공간이든 자유롭게 삽입될 수 있게 되었다. 또 10년이 지난 후 그의 무대에는 무엇이 더해져 있을까? 그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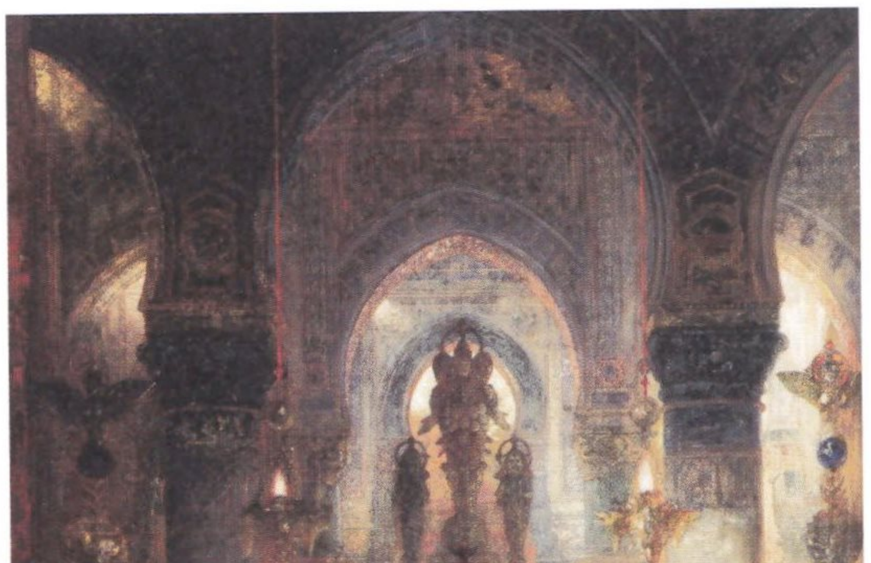
■ 〈영혼을 보는 소녀 히도미〉 (사진제공 : quinada)

오스카 와일드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1)

■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마태복음 14장 6절-11절에 실린 살로메의 이야기는 기원 후 30년 경에 벌어진 유대의 왕 헤로데의 세례 요한 참수사건을 담고 있다. 의붓아버지 헤로데왕 앞에서 춤을 춘 대가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는 이 소재는 후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많은 예술작품의 원천이 되었다. 사건 자체도 섬뜩하지만 자신이 제공한 즐거움의 대가로 사람의 목을 요구한 살로메가 끊임없이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귀스타브 모로, 에드바르 뭉크의 회화작품 '살로메',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소설 '에로디아스', 마스네의 오페라 '에로디아드'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많은 작품 속에서 살로메는 흔히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에 탐닉하다 보면 파멸을 불러오는 위험한 여성으로 재현되었다. 살로메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남성의 타락과 파멸의 시작으로 보는 남성들의 집단적 공포감이 잘 담겨있는 문화기호인 것이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살로메'의 원작으로 쓰인 오스카 와일드(1854-1900)의 '살로메'는 '데카당스의 지침서'로 불릴 만큼 세기말적 정서로 가득하며 '팜므 파탈 신화'의 극단적 표현이다. 1892년에 쓰인 이 희곡은 죽음과 피,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 그로테스크한 상징 등으로 넘쳐나는 세기말의 병적 감수성의 진수이다. 성서에서는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에 의해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와일드의 여주인공 살로메는 요한의 목소리와 아름다운 몸에 반해 헤로데에게 그의 목을 요구한다. 살로메가 잘린 요한의 목에 입 맞추는 장면은 작가 와일드가 지향했던 탐미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 귀스타보 모르 作 '헤로데 앞에서 춤추는 살로메'

유대의 왕 헤로데의 궁전에서 화려한 연회가 열리고 있고 왕비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정원에 나와 달빛 속을 거닐고 있다. 연회장 앞에서 경비를 서다가 넋이 빠져 공주를 바라보는 호위대장에게 시종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때 우물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남편을 죽이고 남편의 이복형제인 헤로데와 혼인한 왕비 헤로디아의 죄를 비난하며 "주님이 오셨다. 사람의 아들이 가까이 계신다"고 외친다. 살로메는 자신에게 욕망의 눈길을 던지는 계부 헤로데 때문에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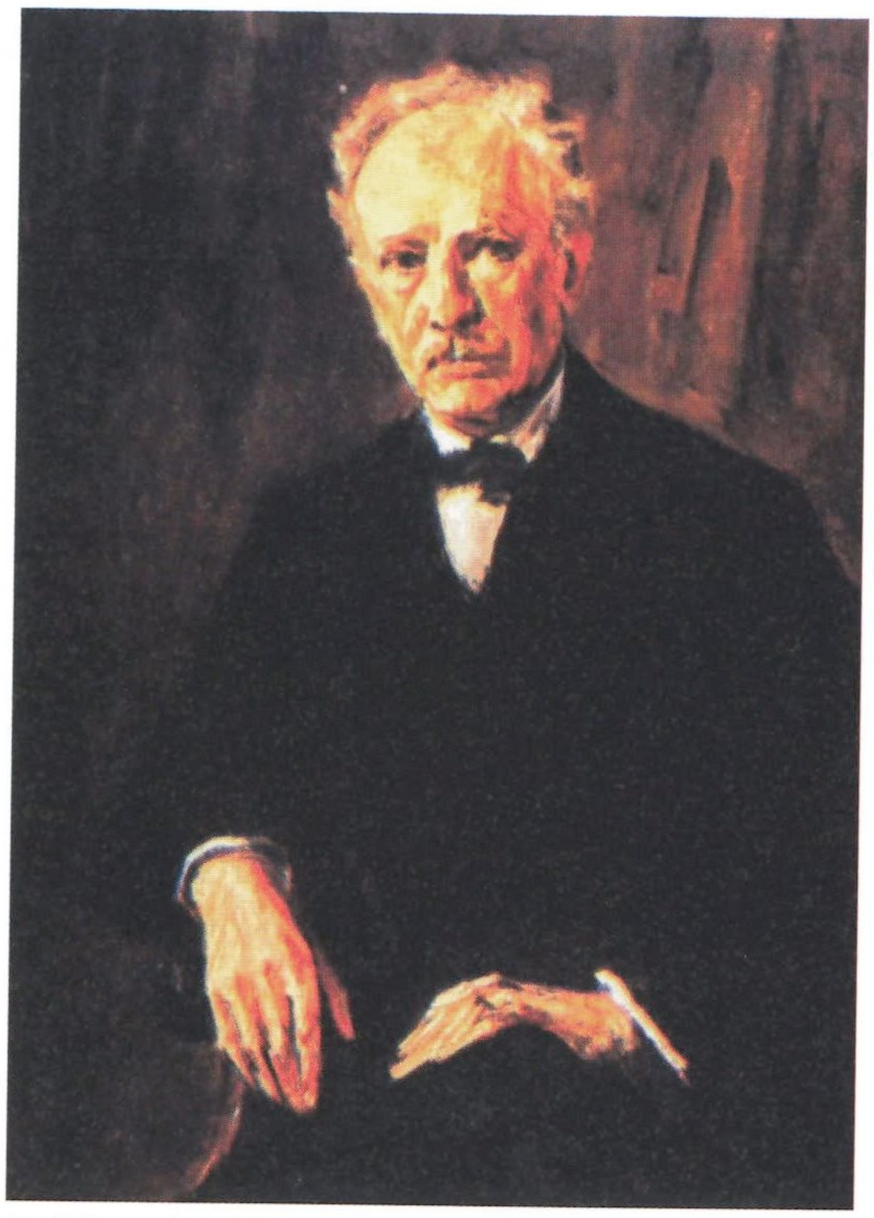
짧아져 연회장에서 나왔다가 요한의 목소리를 듣고는 자신에게 빠져 있는 호위대장을 설득해서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데려오게 한다. 헤로데와 헤로디아의 죄를 계속 외치던 요한은 살로메를 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라고 묻고 그의 목소리와 외모에 불같은 욕망을 느낀 살로메는 "나는 당신의 몸을 사랑해요. 그 입술에 키스하게 해주세요"라고 대답한다. 요한은 살로메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신이 간절히 흠모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욕망을 드러내자 충격을 받은 호위대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나 살로메는 최면에 걸린 듯 호위대장의 죽음에도 아랑곳 않고 요한에게 구애를 계속하지만 요한은 "간음녀의 딸아, 그대를 구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한 분, 바로 내가 말했던 그분이시다"라고 말하고는 감옥으로 돌아간다.

살로메가 연회장에서 사라진 걸 알고 헤로데왕이 그녀를 찾으러 나올 때 다섯 명의 유대인이 헤로데에게 요한의 처형을 요구하지만 요한을 두려워하는 헤로데는 "요한은 진정 그대들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들의 청을 거부한다. 다시 요한의 비난이 들려오자 헤로디아는 저 소리를 멈추게 하라고 외치고, 헤로데는 살로메에게 자기를 위해 춤을 춰달라고 부탁하지만 살로메가 춤을 추지 않겠다고 하자 춤을 추면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살로메를 설득한다. 그러자 살로메는 관능적인 음악에 맞춰 욕망을 표현하는 몸짓으로 베일을 한 겹씩 걷어내며 '일곱 베일의 춤'을 추어 헤로데의 넋을 완전히 빼놓는다.

춤이 끝나자 헤로데는 소원을 말하라고 하고 살로메는 은쟁반에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달라고 한다. 당황한 헤로데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지도 모르고 신성한 자이므로 "그가 죽으면 내게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다른 선물로 살로메의 주의를 돌리려 하지만 살로메는 집요하게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다. 이에 지쳐버린 헤로데는 "그 어미의 딸년이 틀림없구나"라고 하면서 결국 요한의 사형집행을 허락하고 병사가 감옥 안으로 들어가 요한을 죽인 뒤 요한의 머리를 은쟁반에 담아온다. 살로메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 요한에게 말한다. "아! 당신의 입에 키스했어. 그런데 당신 입술에선 쓴맛이 나네. 아마 사랑의 맛이었을 거야. 사랑은 쓰다고들 하잖아. 요한, 결국 당신의 입에 키스하고 말았어." 그리고는 죽은 요한의 입술에 열정적으로 키스한다. 그 광경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헤로데가 "저 계집을 죽여라"라고 외치자 병사들이 달려들어 방패로 살로메를 눌러 죽인다.


■ 오스카 와일드

와일드는 살로메가 자신의 사랑을 거부한 세례 요한에 대한 복수심과 그의 육체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의 목을 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살로메를 욕망의 화신으로 설정함으로써 19세기말의 퇴폐적인 감성을 담아냈다. 그는 사랑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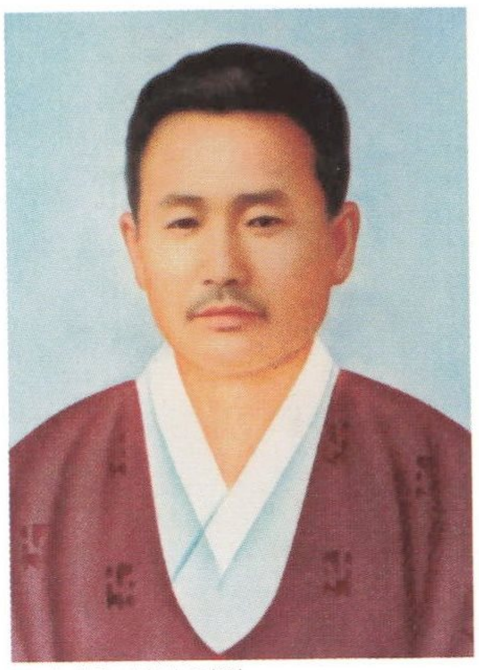
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잃는 사랑의 파멸적인 힘을 괴기스러우면서도 시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극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극에서 노골적인 표현이나 묘사는 찾아볼 수 없다. 와일드는 집착과 탐닉을 나타내는 반복적인 대사와 상징적인 신비감을 통해 은밀하게 등장인물의 비정상적인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등장인물의 일반적 성향은 광기이다. 호위대장과 헤로데는 살로메를, 살로메는 세례 요한을 광적으로 갈망하기 때문에 '살로메'의 여성성을 분석한 음악학자 멜라니 운젤트는 이 등장인물들의 욕망을 '세기말적 부르주아 사회의 억압된 히스테리'로 칭하기도 한다.

와일드는 원래 대배우 사라 베르나르를 출연시킬 의도로 이 작품을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썼지만 검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베르나르가 출연하지 않아 1896년의 파리 초연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연극이 1903년 막스 라인하르트의 연출로 베를린에서 공연되었을 때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당시 '돈 후안',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그의 교향시로 명성을 얻었던 서른 아홉 살의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이 공연의 독특한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살로메'를 오페라로 작곡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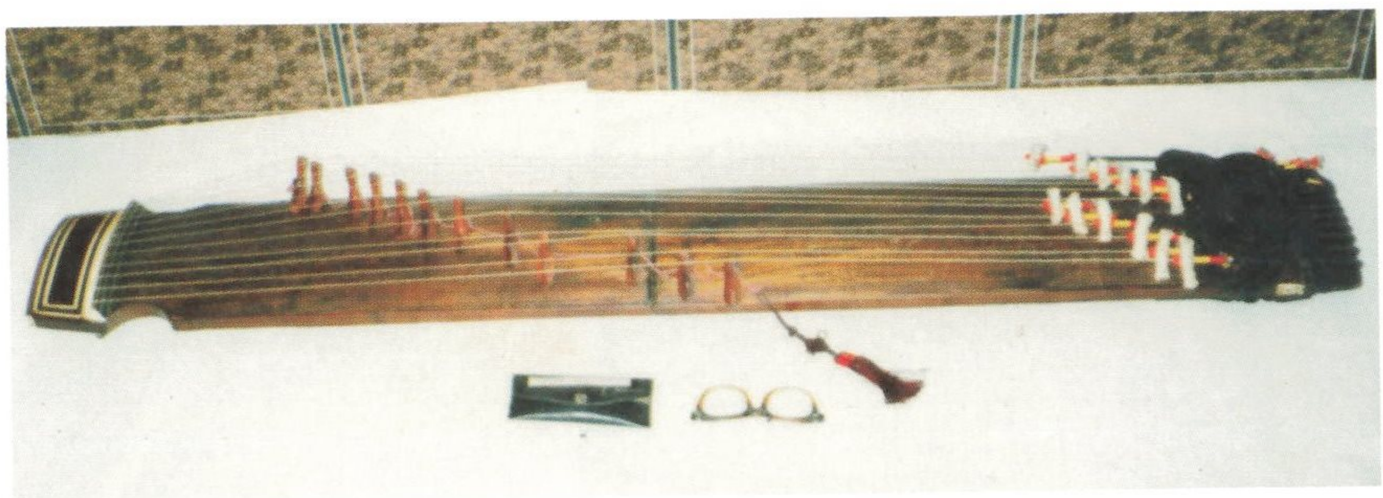
효산 강태홍선생과 가야금산조

■ 김혜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가야금산조 보유자 호보

우리의 현실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도 더욱 어려운 것이 우리 음악이 정통을 지키는 일이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구태여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악의 순수화를 위한 노력은 그 무엇보다 값진 일이며 절대로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 강태홍 선생 진영

많은 사람들이 국악은 느려서 지루하다고 한다. 국악에 느린 곡이 많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하나의 음을 서양 사람들보다 깊이 있게 음미했기 때문이다.
빠른 음악에서는 여러 음이 모여 어떤 모양을 이루느냐가 중요하지만 느린 음악에서는 한 음의 모습과 가치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서양의 템포 개념은 맥박, 곧 심장의 고동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그것은 호흡의 주기, 즉 폐부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경우 박자의 단위인 박을 비트(beat), 혹은 펄스(pulse)라고 한다.
펄스라는 말은 곧 인체의 맥박을 의미하듯이 서양 음악은 원초적으로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했다고 하겠으며, 이에 비해서 우리의 전통 음악은 모음 변화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길게 장인하며 호흡의 리듬을 타고 있음을 볼 때 호흡에 뿌리를 둔 음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 음악이 유장한 맛에 정적인 명상성을 짙게 드러내는 것은 폐부의 속성 때문이고 서양의 전통음악이 발랄한 분위기에 동적인 진취성을 강하게 띠는 것은 바로 심장의 속성에서 배여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또 국악에서는 변화가 없이 꼭 같은 것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루하다고 한다. 무릇 사물은 변화하지 않는 면과 변화하는 면을 동시에 지니며, 그 변화의 종류도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다.
가령 국악에는 서양음악에서처럼 갑자기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변화는 적다. 그러나 서양음악의 대표적인 음악 형식인 소나타가 주제 선율을 계속 재현시켜서 반복하는 데


■ 강태홍 선생 유품 가야금과 안경

대하여, 우리의 산조에서는 같은 선율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선율로 발전되어 간다는 점에서 변화무쌍한 것이다.

산조(散調)를 듣노라면 무엇보다도 그 풍부한 변화성에 희열을 느끼게 된다. 산조는 전라도의 시나위와 판소리 가락에서 발전된 기악독주곡으로 장구의 반주로 연주되며 연주가들의 독창성과 음악성이 마음껏 발휘되는 우리음악의 정수이다.

산조는 보통 3악장으로 연주되는데, 느린 장단에서 시작되어 점점 빠른 장단으로 변화되어 연주된다. 기본 장단은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인데, 중모리와 자진모리 사이에 중중모리와 엇중모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자진모리 다음에 더욱 빠른 휘모리와 단모리가 들어가기도 한다. 가야금에서 시작된 산조는 이후 거문고 산조, 대금 산조, 피리 산조, 해금 산조, 아쟁 산조 등으로 확대된다.

"가야금의 신인(神人) 강태홍 선생이 부산에서 살았다. 강태홍 선생의 가야금 산조는 소리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짜여 있다. 선생의 가락은 메마르고 기이하고 섬세하며 듣는 이를 조바심 나게 긴장시킨다. 강태홍 선생의 산조를 듣노라면 처음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점점 그 마력에 끌려 나중에는 호흡조차 힘들 만큼 황홀지경에 빠지고 만다. 가난하고 메마른 듯 하면서도 달콤한 맛과 신비로운 멋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말년에 부산에서 아편을 맞으며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작고했는데, 그 무렵 일가친척도 없이 홀로 누워 있는 방에 간호해 주는 사람이란 젊었을 때 강태홍 선생을 사랑하던 어느 노기(老妓)뿐이었다고 한다.



■ 강태홍 선생(1937년 경성방송국. 가야금은 정금도)



■ 강태홍 선생(당시 47세. 앞줄 왼쪽은 둘째 형 태종, 뒷줄 왼쪽은 큰형 태민의 아들)

부산에 피난 내려왔던 가야금 주자들 중에 강태홍 선생을 찾아다니며 배운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그 가락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몇몇은 되지만 그 가락의 참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절묘한 주법(奏法)의 비밀은 누구도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일는지 모른다"라고 황병기 선생은 말한다.

이런 강태홍 선생의 가야금 산조 세계를 5회에 걸쳐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1.가야금 산조
2.강태홍의 생애
3.강태홍의 음악적 특성(1) - 음율을 중심으로
4.강태홍의 음악적 특성(2) - 미적, 종교적, 자연관
5.강태홍 산조를 이어가는 사람들과 국악의 역활

검을 찬 신선과 날아오르는 학
해산선학(海山仙鶴)

■ 변광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예부터 학(鶴)은 고고함을 대변하며 선비의 상징이었다. 또 학은 신선이 타고 다니기에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선학(仙鶴)·선금(仙禽)·노금(露禽)이라고도 한다. 단원은 노년에 학을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렸다. 아마 심중에 학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감상할 작품은 단원이 1798년(54세)에 그린 〈해산선학도(海山仙鶴圖), 종이담채, 29.4×43cm, 개인소장〉이다. 화면 가운데 높은 암봉 위에 우뚝 서있는 인물이 중심을 이룬다. 화면 오른쪽 위로 가파른 절벽과 성긴 나뭇가지가 보이며 그 너머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고즈넉하게 비쳐준다. 이 순간에 그 앞으로 학이 날개짓하며 오르고 있다. 인물을 대칭점으로 하여 오른쪽 상단의 학과 달에 대비하여 왼쪽에는 암벽 아래로 나뭇가지를 묘사하였다. 검을 찬 인물과 날아오르는 학이 화면의 포인트이다. 묵의 농담(濃淡) 기법으로 암봉의 육중함을 나타내되, 특히 화면에 물을 살짝 칠하여 마르기 전에 붓을 갖다대는 선염법(渲染法)으로 몽롱한 묘미를 더했다. 왼쪽의 제화시에서 그림의 내용을 웅변해주고 있다.

바닷가 산에서 취흥에 춤추고 노래하니 / 醉舞高歌海上山
하늘이 불어낸 이슬은 금단을 맺었네 / 天吹仙露結金丹
밤이 깊자 학은 가을 창공에 날아오르고 / 夜深鶴透秋空碧
만리에서 부는 서풍에 한자루 칼 싸늘하네 / 萬里西風一劒寒

이 시구는 고사인물도에 자주 나오는 당나라 인물들 중에 여동빈(呂洞賓)이 쓴 시에서 원형이 비롯되었다. 바다같이 드넓은 동정호반의 암벽에 서있는 자가 바로 그림의 주인공이다. 그는 팔선(八仙) 중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현령으로 지내다가 홀연히 종남산에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강호에서 종리권(鍾離權)에게 금단(金丹; 金石을 달구어 만든 불로장생약)의 비결을 전수받아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중국의 소설이나 희곡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검(劒)은 인간의 온갖 탐욕과 번뇌를 막아주는 상징적 무기다. 흔히 '단 칼에 베어 끊는다'는 말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선비들은 주위의 유혹을 막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곁에 항상 두곤 했다.

이 그림은 남산한담도(南山閑談圖) 등과 함께 화첩으로 제작하여 변치화(卞穉和)에게 주었던 작품이다. 따라서 산속의 자연을 배경으로 선비가 등장하는 점에서 양자는 모티브가 비슷하다. 무위자연의 분위기다. 그런데 변치화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마침 필자는 한 문집에서 그에 관한 기록의 편린을 볼 수 있었다. 조선후기 문신으로 성리철학은 물론 도가학적인 문학론까지 섭렵했던 홍석주(洪奭周;1774~1842)의 〈연천문집(淵泉文集)〉(권20, 題跋, 題海夫詩卷)에 나오는 기록의 일부를 소개한다.

"변치화는 집이 동래(東萊)고을 동남쪽으로 큰 바다와 경계하고 있다. 바닷가 사람이라



■해산선학(海山仙鶴)

고기와 조개잡이를 생업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그를 해부(海夫)라 부르는데 대개 낮추어 부르는 것이다. 변치화는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 이름이야말로 나에게 매우 알맞은 것이라 하고는 비로소 스스로 해부(海夫)라 불렀다. 이리하여 해부는 언뜻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다. 해부의 집과 나는 서로 9백리 떨어져 있어 해부의 사람됨은 자세히 모르지만 오직 그의 시(詩)는 잘 안다. 시에 있어서 해부는 스스로 무척 기뻐한다. 두보(杜甫)가 아니면 가까이 두지 않았으므로 그의 시는 의미 사용이 지극히 깊으나 말 만듬이 매우 거칠어서 침울하고 숨어있는 듯 했다."

위 내용으로 보아 변치화는 아마 지금의 부산 바닷가 어디엔가 살았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단원은 그에게 그려주기 위해 여동빈의 시를 빌려오고 동정호반의 배경을 바닷가 산으로 설정한 게 아닌가 싶다. 문득 그는 한양에 와서 일년 남짓 유람하고 간 적이 있었다. 아마 이 무렵 단원을 찾아가 그림을 부탁했던 것 같다. 이 때 홍석주도 시를 인연으로 그를 알게 되었고, 그의 시권(詩卷)을 보고는 논평해준 것이었다. 평소 홍석주는 단원과 서화를 매개로 자주 교류하는 사이였다. 화면의 오른쪽에 단원이 그림을 준 사실을 말해주는 기록이 있다. 다음과 같다.

"무오년(1798) 정월 아흐레 변치화를 위해 처음으로 그린다. 단원 / 戊午望前九日爲卞穉和始開揮灑 檀園"

단원의 관서와 함께 끝에 자와 이름이 새겨진 흰 글씨와 붉은 글씨의 사각도장이 찍혀 있으나 워낙 작아서 글자 판독은 어렵다.

그런데 18세기말 당시 동래부의 무청(武廳)에 소속된 무임장교이면서 화원이었던 해부(海夫) 변지순(卞持淳)이란 자가 있었다. 아마 해부가 그의 호(號)였다면 자(字)는 치화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변지순도 시쓰기를 즐겨 했던 모양이다. 19세기초 문신이었던 박영원(朴永元 ;1791~1854)의 〈오서집(梧墅集)〉(2책, 南棠錄, 寒碧堂聯句)에 의하면, 박영원의 한벽당에 여러 문사들이 주련을 썼는데 그 중에 변지순의 글귀도 보인다. 물론 정확한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본인이 그래도 지방의 화원이라면 굳이 단원에게 그림을 청했다는 게 잘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잠시 유보해 두기로 한다.

필자가 글을 쓰다가 일어서서 연구실 창밖을 보니 멀리 동남쪽으로 황령산과 장산이 눈에 들어온다. 아마 그 사이 어느 동네에 변치화는 살았을 것이다.



지역주민과 즐기는 색다른 문화공간

별 내리는 병산골 송예원

정관 신도시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정겨운 시골마을 병산골은 맛집들이 몰려있어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최근 이 곳에 색다른 문화공간이 들어서면서 병산골을 찾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이 곳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이름부터 멋스러운 '별 내리는 병산골 송예원(이하 송예원)'이다.

병산골에 들어서면 송예원의 독특한 건물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버섯모양과 비슷해 일명 '버섯집'이라고도 불리는 송예원은 2천300㎡의 넓은 터에 버섯 모양의 3층 건물과 작은 연못, 여기에 잘 가꿔진 정원과 여기저기 서 있는 조각상이 눈길을 끈다.

계단을 따라 2층에 들어서면 마치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방문객을 반갑게 맞는다. 레이스 커텐이 쳐진 아치형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는 중앙에는 피아노 한 대가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이 바로 문화행사가 열리는 콘서트홀. 간이의자까지 놓으면 80명까지도 충분히 공연을 즐길 수 있다. 3층은 시집도서관. 중앙의 둥

근 테이블을 중심으로 둥글게 돌아가는 벽면을 따라 1천권이 넘는 시집이 빼곡하게 꽂혀있는 이곳은 시와 어울리는 멋스러움이 넘쳐난다.

송예원은 송영명 한국예술총연합회 부산지회장과 시인 박옥위 부부가 지난 2010년 문을 연 문화공간이다. 본적지가 정관인 송영명 회장이 업체 부도로 건축이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지금의 '송예원'이 탄생되었다. 원래는 예술가인 두 부부의 창작공간으로 사용되었으나 이 곳을 찾는 몇몇 지인들이 살롱음악회를 열면서 지역주민들과도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송예원에서는 매월 넷째주 화요일 저녁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올해로 벌써 3년째. 이 곳을 다녀간 부산지역 예술인들도 일일이 손꼽기 어렵다. 11월에는 테너 조윤환, 소프라노 박나리, 첼리스트 문주원, 피아니스트 서효정, 표세구 씨 등이 특별한 무대를 꾸몄다.

지난 한해는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문화공간 숲'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즐기기'인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연주가, 가수, 시인이 되어 자신만의 실력을 뽑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송예원 뒷 편에 자리한 '병산골 정원집' 대표인 이승호 씨는 멋드러진 노래실력으로 이 곳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하다. 행사의 또다른 후원자인 김종천 정관면 면장은 병산골의 대표명소로 차츰 입소문이 나고 있는 송예원을 위해 가로등을 건설하고 주변 잡초를 제거해주는 환경정비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김종천 면장은 지난 11월 모임에서는 박옥위 시인의 시 '훈맹정음'을 낭송해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계간문예지 '시와 소금' 1주년을 기념해 60여명의 시인, 독자들이 부산문학기행을 오면서 송예원을 방문하는 등 타지에까지 입소문을 타고 있다.

정관파출소 김기호 소장은 6월 정기모임에서 시 낭송을 선보인 후 매월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성탄전야를 피해 하루 앞당겨 12월 23일 열리는 12월 행사에서는 경기민요를 선보인다고 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기존 참석했던 지역 주민 외에도 무용가 박정애, 시조창 정인경 씨 등이 이 곳을 찾을 예정이다.

또 송예원에서는 '병산골 생활문화 예술 나눔'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화요일에는 예술인 문학강좌가, 금요일에는 미술실기 강좌가 열리고 있다. 이밖에 매주 목요일에는 목요영화상영,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는 문화공간 숲이 주관하는 영화인문학강좌가 정관주민자치회관에서 열린다.

지난 11월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제2회 미술향기 나눔전'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나눔전은 마을예술 프로젝트 이벤트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 문화계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류명렬, 백성흠, 엄윤숙, 엄윤영, 오선옥, 윤인수, 이미영, 이옥분, 강이수, 도태근, 박태원, 정희욱 작가 등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중견 미술인들의 작품이 출품되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 문의/별 내리는 병산골 송예원
(010-3596-2874)



■송예원에서는 매월 넷째주 화요일 저녁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1천여권의 시집을 소장하고 있는 3층 시집 도서관



■송영명 한국예술협회 부산지회장과 시인 박옥위 부부



‘금관의 꽃’ 트럼펫의 매력에 빠진

트럼펫터 부산지부

금관악기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트럼펫은 화려하면서도 밝은 음색으로 ‘금관의 꽃’이라 불린다. 트럼펫 만큼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악기도 드물지만 버튼 세 개와 입술, 호흡만으로 연주해야 하기에 배우기 또한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의외로 트럼펫을 연주하는 동호회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지난 2006년 12월 창단된 트럼펫터 부산지부는 그래서 트럼펫 애호가들에게는 마치 한여름 단비같은 반가운 존재이다.

지난 2005년 트럼펫터 김우일 씨가 개설한 트럼펫동호회 ‘트럼펫터’ 부산지역 모임에서 출발한 트럼펫터 부산지부는 현재 2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트럼펫터 부산지부는 현재 매주 목요일 저녁 부산시민회관 연습실에서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12월 28일 열리는 제2회 정기연주회를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어 연말이라 다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습에 여념이 없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제 막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회원들도 함께할 예정이라 더 나은 무대를 선사하기 위한 회원들의 열정이 뜨겁기만 하다.

트럼펫터 부산지부의 활발한 활동 뒤에는 ‘트럼펫터’ 개설자인 김우일 씨의 숨은 노력이 있다. 서울에서 활동중인

그는 지난 9월부터 기초반 수업을 맡아 격주로 부산을 찾고 있다. 모스틀리필하모닉 객원단원,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 코리안오케스트라(UKO) 단원으로 있으며 부산을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펼쳤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김우일 씨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힘든 일정 속에서도 부산모임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지휘까지 맡아 연주회 준비로 더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주로 음악을 처음 접하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많아 박자나 감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젊은층에 비해 꾸준히 연습에 참여해주고 있어 힘이 된다"는 김우일 씨는 "아마추어 동호회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마음"이라 강조한다.

트럼펫터 부산지부의 '안방마님' 이경진 씨. 전국적으로도 몇 안되는 여성 동호인인 그는 2008년 트럼펫터 부산지부와 인연을 맺은 후 열혈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스윙밴드에 도전하는 여고생들의 유쾌발랄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 '스윙걸즈'를 보고 트럼펫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는 특히 트럼펫이 주변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는 악기라 더욱 매력있다고 한다. 50여명 가까운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전주지부와 비교해도 부산지역 트럼펫 인구의 저변이 아쉽다는 그는 정기연주회 뿐 아니라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싶다.

창단멤버이기도 한 김인배 씨는 교회에서 밴드를 결성하면서 트럼펫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처음 소리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씩 소리가 고와지고 높은 고음의 소리가 날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김인배 씨는 엄청 긴장했던 첫 무대와 달리 이번 정기연주회에는 가족과 지인들을 많이 초청했다. 빌려쓰는 연습실이라 아무래도 연습하기에는 불편하다는 그는 새해에는 트럼펫터 부산지부만의 자체 연습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0년 2월에 회원으로 가입한 김남호 씨와 트럼펫과의 인연은 아주 우연하게 시작됐다.

"어머니 친구분이 남편의 환갑선물로 트럼펫을 선물했는데, 암만 불러도 얼굴만 빨개지고 소리가 나지않자 포기하고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데요, 부모님과 여동생들이 재미삼아 불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데, 제가 부니 '빠앙~'하고 소리가 나서 결국 제 것이 되고 말았죠."

우연에서 시작된 트럼펫과의 인연은 이제는 김남호 씨에게는 필연이 되어버렸다. "배우기 어려운 악기인만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동호회 활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많은 트럼펫터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고 놀 수 있는 트럼펫터 부산지부가 되었으면 한다.

올해 8월에 가입한 서경보 씨는 더 늦기 전에 트럼펫을 배우고 싶어 이곳 저곳을 알아보다 트럼펫터 부산지부를 만나게 되었다.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반 강좌까지 개설되어 있어 두말않고 가입했다는 그는 김우일 씨와 선배회원들의 지도로 조금씩 실력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트럼펫을 잡은지 이제 겨우 4개월째라 첫 무대인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긴장되면서도 설렌다는 서경보씨는 최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요즘 연습에 한창이다.

■ 문의/트럼펫터 부산지부
(www.trumpeter.co.kr)





■지난 2006년 창단한 트럼펫터 부산지부가 12월 28일 두번째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연습에 한창이다.

'별주부전'의 슬픈 설화가 전해지는

사천 테마여행

■ 다솔사

2013년 마지막 테마여행이 펼쳐진 지난 12월 13일,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겨울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 가족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12월 테마여행지는 한겨울에도 아름다운 대나무숲으로 유명한 힐링도시 사천.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씨가 동행하면서 회원가족들을 더욱 설레게 했다.



두 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천년고찰 '다솔사'. 일주문도 천왕문도 없는 다솔사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산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솔사를 처음 찾는 이들은 이 소나무 숲에서 절 이름을 떠올리지만 절 이름 '다솔(多率)' 은 다솔사가 자리한 봉명산 산자락이 마치 많은 군사를 거느린 대장군처럼 보인다 해서 부쳐진 이름이다.

다솔사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108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다솔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대양루와 적멸보궁을 만날 수 있다. 원래 대웅전이었던 적멸보궁은 1978년 대웅전 아미여타래 탱화에서 진신사리 108과가 발견되면서 적멸보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발견된 사리는 동양 최대 규모로 건립된 부처님 진신사리 탑에 봉안되어 참배객들을 맞고 있다.

적멸보궁 왼편에 자리한 요사채는 한때 다솔사에서 야학교사로 일했던 작가 김동리 선생이 소설 '등신불'을 쓴 곳이자 일제 강점기에 만해 한용운 선생이 독립선언문 기초를 구상한 곳으로 유명하다. 또 다솔사 뒤 봉명산 주위에는 1만여평의 야생 차나무가 자라고 있어 다인(茶人)들 사이에는 차 문화의 유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다솔사에 이어 달려간 곳은 '별주부전'의 슬픈 설화가 전해지는 비토섬. 하늘에서 보았을 때 토끼가 나는 모습을 하고 있다해서 부쳐진 비토섬은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사천 8경' 중 하나이다. 섬이지만 육지인 서포면과 비토교로 연결되어 자동차로 접근이 가능하며 끝까지 달리면 별주부전의 무대인 월등도가 보이는데, 썰물일 때는 신비의 바다길이 열리면서 비토섬과 이어진다. 월등도의 오른쪽 끝에는 목섬이 자리하고 있는데, 바다길이 열릴 때 함께 연결되며 그 고개를 넘으면 토끼섬과 거북섬이 반긴다.

"이 곳에 전해지는 별주부전의 결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슬픈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거북의 꼬임에 속아 용궁에 갔다가 간을 집에 두고왔다며 거북의 등을 타고 다시 나오



■ 김동리 소설 '등신불'이 탄생한 다솔사 안심료



■ '별주부전'의 배경이 된 비토섬









■ 1. 비봉내 대숲
2. 굴구워먹기
3. 댓잎차만들기
4. 단원 정행심의 모노드라마

는 것까지는 그 내용이 같지만, 달빛에 반사된 섬 그림자를 보고 육지라 착각한 토끼가 거북의 등에서 뛰어내려 바다에 빠져 죽게되는데요, 그 토끼가 죽어서 생긴 섬이 바로 토끼섬입니다. 거북이 역시 토끼의 간을 가지고 돌아갈 수 없게 되자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그 거북이 죽은 자리가 거북섬, 그리고 남편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토끼의 부인이 기다리다 지쳐서 섬이 된 것이 바로 목섬입니다."

운좋게도 비토섬에 도착한 때가 썰물 때라 열린 바다길을 따라 별주부전의 무대인 월등도에 들어간 회원가족들은 해설사가 들려주는 사천판 별주부전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오후 일정을 위해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비봉내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우선 갖가지 나물무침의 정식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대나무숲 탐방에 나섰다. 1965년부터 조성된 국내 최대의 대나무숲을 갖춘 비봉내마을은 1만여평 대나무숲에서 펼쳐지는 숲 산책과 대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대나무숲 해설사의 안내로 대나무숲 탐방에 나선 회원가족들은 하늘마저 가려버린 빽빽한 대나무숲의 아름다움에 연신 탄성을 자아냈다.

이어지는 순서는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의 만남. 이른 아침부터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씨의 모노드라마 '곡쟁이 여자'가 펼쳐졌다. 의자 하나 달랑 놓인 허름한 무대였지만 35년 연기인생이 빚어내는 혼신의 연기에 회원가족들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는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배우의 열연에 무대와는 또다른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12월 테마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댓잎차 만들기와 사천의 특산물인 굴 구워먹기. 댓잎을 가늘게 썰어 덖어 만드는 댓잎차는 특유의 그윽한 향과 맛으로 인기가 좋다. 특히 이 곳 갯벌에서 채취되는 싱싱한 굴맛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데, 정기회원 가족들은 즉석에서 숯불로 구워낸 짭조롬한 굴로 출출해진 배를 채웠다.

어두워지는 사천을 뒤로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한겨울에 만난 푸른 대나무가 선사한 웰빙 체험은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2월에는 합천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테마여행게시판
마감 1월 16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1월 당첨자

● 엽서신청자
백영희(사상구 학장동)
성용호(기장군 기장읍)
오인숙(수영구 광일로)
이은정(북구 덕천1동)
이정희(부산진구 개금동)
전미애(금정구 구서동)
정경선(사하구 다대로)
최지현(금정구 장전동)
한미정(사하구 하단동)
황은지(서구 초장동)

● 신규가입자
곽기만(영도구 청학2동)
김보라미(연제구 연산9동)
김석권(서구 동대신동3가)
서문훈(해운대구 우동)
신정욱(남구 문현동)
유미자(진구 개금동)
이욱재(수영구 광안1동)
이현경(사상구 괘법동)
하지영(동래구 금감로 28)
황지현(연제구 연산6동)

Culture Life

54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58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64 New Music
65 New Book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라이프사진전

1월 5일(일)–4월 12일(토) 대전시실
입장료 | 일반, 대학생 1만 2천원 · 중고생 1만원 · 초등, 유아 8천원(만 4세 미만 무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매에 한해 2천원 할인)
문 의 | 디커뮤니케이션(612–6619)



정점의 순간에서 전설이 된 20세기 최고의 사진잡지 '라이프(LIFE)', 그들이 선택한 위대한 기록을 전시로 만날 수 있는 라이프사진전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1936년 사진으로 소통하는 저널을 표방하며 헨리 루스(Henry Luce)에 의해 탄생된 '라이프'는 최고의 사진작가로 평가 받는 알프레드 아이젠슈테트, 유진 스미스, 로버트 카파, 더글러스 던컨 등이 활동했으며, 주간 판매량이 1,300만부에 이를 만큼 절대적인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1972년 12월 29일 최종호를 발간하고 '그 해의 사진들'을 끝으로 폐간과 복간을 거듭하다 2007년 완전히 폐간되었고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9백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사진자료를 제공하며 전 세계 4천만 명이 넘는 독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제1153회 MBC목요음악회
부산윈드브라스앙상블 신년음악회
나팔소리의 향연

1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정선화(010–4556–4057)


지휘 정선화

매월 다양한 음악장르, 최고의 연주자들과 만나온 MBC 목요음악회 2014년 신년음악회로 2012년 부산 최고의 관악연주자로 구성된 부산윈드브라스앙상블이 브라스 음악의 웅장함과 화려한 앙상블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수사토/수사토 모음곡
드볼작/슬라브무곡 제8번
비제/아를의 여인 모음곡
차이코프스키/심포니 제4번 바장조 작품 36 등 수곡
· 지휘/정선화 · 해설/김윤선
· 연주/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전상윤, 최수용, 황은정, 임승범, 김영민, 서윤호, 노정이, 김성재, 권외석, 조진혁, 조용길, 송희철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신년음악회

1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5천원 ·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김덕기 소프라노 이화영 테너 김영환

오페라에 대한 탁월한 연주와 해석력을 보여주는 지휘자로 폭넓은 활동을 펼쳐온 서울대학교 김덕기 교수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이화영, 테너 김영환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신년음악회.

희망찬 새해를 알리는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을 시작으로 신년음악회의 주요 레퍼토리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와 폴카로 희망찬 2014년을 열어준다.

▶프로그램
바그너/'탄호이저' 서곡
임긍수/강 건너 봄이 오듯
이수인/고향의 노래
조르다노/'안드레아 셰니에' 중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푸치니/마농 레스코 중 '간주곡', '그대, 그대, 내 사랑?'
슈트라우스 2세/'집시남작' 중 '개선행진곡', '기차여행' 폴카, '천둥과 번개' 폴카, 왈츠 '비엔나 기질', 트리치–트라치 폴카 등수곡

요한 스트라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1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 의 | 코리아무지카(02–2272–6516)



Philharmonic Pomorska, Opera Nova, Torun Symphony Orchestra, Polish Chamber Philharmonic, Wagner Festival Orchestra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요한 스트라우스 챔버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푸른 다뉴브' 왈츠, '황제' 왈츠, '라데츠키' 왈츠 등 스트라우스의 다양한 작품으로 새해의 기쁨을 전한다.

· 특별출연/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4 악기가족이야기

1월 13일–14일, 16일–17일 오전 10:30, 오후 3: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악기들을 주제로 연주를 곁들인 연극 상연, 악기 특징 설명,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클래식 명곡 중심의 선곡으로 많은 인기를 모았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어린이 음악회 악기가족이야기 2014년 무대.

▶일정
13일–14일 월–화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찌가 찌가, 바이올린가족 이야기'

16일–17일 목–금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뿌우 뿌우, 나팔가족 이야기'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팀
· 연출/변진호(뮤지컬 컴퍼니 끼리프로젝트 대표)
· 연기/이사라, 오세윤, 조효준, 양지원, 한희경, 박상현

이 무지치 신년음악회

1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 S석 5만원 · A석 4만원
B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열정의 연주와 정제된 스타일, 흠잡을 데 없는 예술적 기교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세계 최장수, 최고의 실내악단 '이 무지치' 부산 연주회.
이탈리아어로 '음악가들'을 뜻하는 '이 무지치'는 지난 1952년 이탈리아의 명문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12명의 촉망받는 음악인들로 창단된 후 지금까지 바로크, 낭만파 음악은 물론 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무지치는 1955년 비발디의 '사계'를 세계 최초로 레코딩하여 2,500만장이라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한 바 있다.

▶프로그램
코렐리/콘체르토 그로소 라장조 작품 6 제4번
비발디/두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작품 3 제11번
코렐리/콘체르토 그로소 바장조 작품 6 제2번
비발디/현을 위한 협주곡 다장조 RV119
비발디/'조화의 영감' 중 합주협주곡 '사계' 등 수곡

테너 김주곤 독창회

1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주곤(010-9313-1624)

부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창원시립합창단 단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김주곤 독창회. 고신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주곤은 진해시립합창단, 양산시립합창단, 마산시립합창단 단원을 역임했다.

▶프로그램
헨델/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내 백성을 위로하라'
R. 슈트라우스/위령제, 헌정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등 수곡
· 특별출연/소프라노 박희정

2014 제9회 부산국제음악제

1월 17일–25일 금요일–토요일
대극장, 중극장, 영화의전당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아트매지니먼트(740-5833)

세계적인 스타연주자들의 패기와 열정, 관록과 여유가 묻어나는 명연주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온 2014년 부산국제음악제.
올해는 '소통시키는 클래식'을 주제로 축제 음악제가 진행된다.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1월 17일(금) 오후 7:30 대극장


김남윤

백혜선

홍혜란

피아니스트 백혜선,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소프라노 홍혜란과 테너 최원휘 등 세계 최정상의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협주곡의 밤 '신년음악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레하르/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빌랴의 노래'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 등 수곡
· 지휘 /조엘 스미어노프
· 오케스트라/BMF오케스트라(부산국제음악제 페스티벌오케스트라)
· 협연/김남윤, 백혜선, 홍혜란, 최원휘, 문태국

▶거장의 실내악1-브람스의 회상-
1월 20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조안권

조엘 스미어노프

로렌스 레써

특유의 서정성과 깊은 음악성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31세의 젊은 브람스가 사랑했던 아가테폰지볼트에 대한 마음과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스스로의 심정을 탄식처럼 그려낸 브람스 현악 6중주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브람스/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제2번
브람스/현악6중주 제2번
· 피아노/백혜선
· 바이올린/조안권, 고이치로 하라다
· 비올라/조엘 스미어노프, 에르완 리샤
· 첼로/로렌스 레써, 민혜 클라라 김

▶거장의 실내악2-피아노와 스트링의 만남 -
1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이경숙

백주영

박상민

부산국제음악제 초청 스타음악가들의 여유와 관록이 어우러진 피아노 3중주, 피아노 5중주의 감동의 앙상블 무대로 세계적인 첼리스트와 첼로영재들로 구성된 첼로앙상블의 그윽한 앙상블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슈베르트/피아노 3중주 제1번

프랑크/피아노 피아노 5중주 등 수곡

· 피아노/알렉산더 마자르, 이경숙

· 바이올린/백주영, 김동욱, 가즈노나카

· 비올라/에르완 리샤

· 첼로/박상민, 민혜 클라라 김, 문태국과 첼로 영재들

▶폐막연주회-가족음악회

1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지난 음악제에서 현란한 활 솜씨와 일체화된 결집력으로 애호가들의 열띤 호응과 탄성을 자아내었던 김남윤 교수의 영재 제자들로 구성된 바이올린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피아노 거장들이 펼치는 명품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로망스

비발디/사계

거쉬인/2대의 피아노를 위한 '랩소디 인 블루'

코플란드/2대의 피아노를 위한 '살롱드 멕시코' 외

· 피아노/알렉산더 마자르, 필립 케윈, 주희성

· 바이올린/김남윤과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 첼로/박상민

제 16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제25회 봉생문화상 수상 기념
시민을 위한 2014년 신년음악회

1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경성대학교(663-4918)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경성대학교 예술대학장)의 제25회 봉생문화상 수상을 기념,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가 봉생문화상 상금으로 문화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등 부산시민들을 위해 들려주는 2014 신년음악회.

1993년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와 제자들로 구성된 현악합주단으로 창단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15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협주곡의 밤, 청소년해설음악회, 기업방문음악회, KBS와 MBC 방송출연 등 수많은 연주회를 열어왔다.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전곡

요한 스트라우스/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차이코프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2악장 왈츠 등

· 예술총감독 겸 솔리스트/임병원(경성대학교 교수)

· 첼발로/이은정(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 연주/김준영, 김은정, 김희진, 김정은, 김언정, 서영희(이상 바이올린), 최영식, 정지윤, 김민경(이상 비올라), 문주원, 배성아(이상 첼로), 박희철(더블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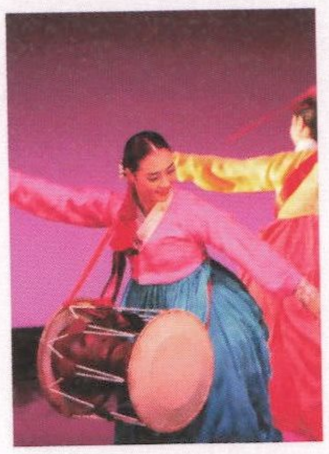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4 우리춤 산책

1월 22일-23일 수-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평소 끊임없이 우리 춤을 연마해 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우리 춤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빚어내는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우리춤 산책'.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인 승무,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를 비롯해 산조춤, 진주교방굿거리, 검무, 진쇠춤 등 다채로운 우리춤을 한자리에서 골고루 맛볼 수 있다.

▶1월 22일

이매방류 승무(춤/황동하 · 반주/허태성)

산조춤(춤/장래훈, 서정연)

진주교방굿거리(춤/김주령), 검무(춤/김주연)

진쇠춤(춤/김진영 · 특별출연/남산놀이마당)

▶1월 23일

살풀이(이매방류)(춤/오숙례)　산조(춤/이정인)

훈령무(춤/권봉정, 김병주, 오수연)

태평무(한영숙류)(춤/이현주)

장고춤(춤/이상민, 박은혜, 김도은, 김시현)

· 무용감독/홍경희(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해설/김공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4 신년음악회 소프라노 신영옥 콘서트

1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소프라노 조수미, 홍혜경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3대 소프라노로 찬사받고 있는 아름다운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신영옥 부산콘서트.

신영옥은 1990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입상을 통해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입성했다. 1990~1991년 오페라 '세미라미데'의 '아제마' 공주 역으로 데뷔한 신영옥은 높은 음악성을 바탕으로 영국 로열오페라, 워싱턴 오페라, 바스티유 오페라 등 전 세계 오페라 하우스를 누비며 활약했다.

▶프로그램

헨델/Lascia Ch'io Pianga

엔리오 모리꼬네/영화 '미션' 테마 '넬라 판타지아'

레온카발로/아침의 노래 등 수곡

· 연주/모스틀리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특별출연/바리톤 우주호

노엘합창단 제54회 정기연주회

1월 25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노엘합창단(010-4183-2293)



1961년 부산지역 크리스찬 남녀고교생으로 출발, 노엘동문으로 구성된 성인합창단으로 발전해온 노엘합창단은

2011년 창단 50주년을 맞아 전국청소년 합창축제 등을 개최하며 부산지역에서 왕성한 합창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합창 1. 종교합창/나팔을 불어라, 난 예수가 필요해요, 알렐루야

합창 2. 미사 케냐/긍휼히 여기소서 영광,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등 수곡

· 지휘/ 김강규 · 피아노/ 윤민화

· 혼/백상흥(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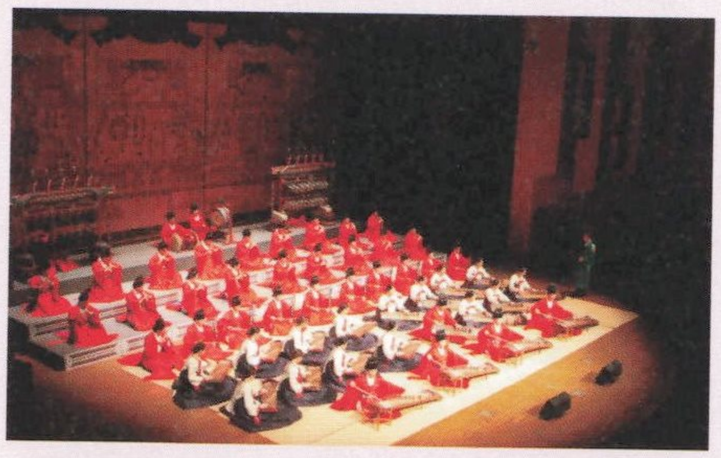
· 특별연주/기타 트리오 Guitar 고충진 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설맞이 국악한마당

1월 30일 목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1년을 준비하는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무병장수와 풍요에 대한 소망을 담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설맞이 국악한마당'.

'수명이 하늘과 같이 가지런하다' 라는 뜻으로 오래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궁중연례음악 '수제천'을 비롯해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 '천년만세', 태평성대를 표현하는 춤 '태평무' 등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신명 마당을 펼친다.

▶프로그램

궁중 연례음악/수제천(壽齊天)(집박/채수만)

천년만세, 이현미무용단 '태평무'

흥겨운 민요 한마당/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노랫가락, 태평가, 경복궁타령 등

· 집박/채수만(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 협연/박성희, 정선희, 김세윤, 이은혜, 이현미 무용단, 이주헌, 최오성, 박재현, 부산예술단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1월 4일 소극장
민들레 인형극단 가족인형극 '피노키오의 모험'



많은 경험을 통해 점점 성장하며, 사랑과 용기로 사람이 되는 피노키오의 모험과 유쾌한 이야기를 통해 희생, 희로애락,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족인형극.

· 출연/이숙자, 김영희(막대인형), 이숙자, 김영희, 차이레, 권순덕, 정명희, 임종호, 이재경, 우경정, 정가영(이상 탈인형)

1월 11일 소극장
JJ 매직패밀리
-마술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겨울방학여행

동아인재대학 마술과 출신의 엘리트 마술사들로 구성된 JJ.Magic Family의 마술공연

▶프로그램

• STAGE MAGIC

비둘기 마술, 지팡이 마술, 카드&CD 마술

• LLUSION MAGIC

SUB TRUNK – 마술사가 수갑을 차고 상자 안에 들어간 다음 보조가 상자를 자물쇠로 채운 상자 위로 올라가 천을 덮었다 내리면 보조와 마술사의 위치가 바뀌어있는 마술.

• PARLOR MAGIC

무대 위에서 마술사가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 하면서 진행하는 마술로 관객의 참여도가 높다.

1월 18일 중극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림스키-코르사코프/스페인 기상곡 작품 34

마스카니/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차이코프스키/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왈츠'

보로딘/이고르 공 중 '폴로베츠 사람들의 춤'

· 지휘/이동신

1월 25일 소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집박/채수만 · 소금/조은경 · 대금/김수일, 이만형, 엄익준 · 피리/김경수, 박춘석, 권미정 · 해금/최윤정, 정수경, 이은주 · 아쟁/권혜정, 홍영혜 · 장구/이장우 · 좌고/이경희)

가야금 산조 '김병호류'(가야금/송영남 · 장구/송강수)

생황, 단소, 양금 중주 '수룡음'(생황/최성교 · 단소/조은경 · 양금/장미진)

대풍류(대금/최재호 · 피리/박순자, 정주아 · 해금/김소현 · 장구/최오성 · 좌고/박재현)

판소리(판소리/박성희 · 고수/송강수)

사물놀이(꽹과리/이주헌 · 장구/전학수 · 징/최오성 · 북/박재현)

· 지휘자/김철호 · 해설/백규진

Music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신명무대
행복한 국악나무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전통예술에 대한 감수성 함양 및 국악 대중화를 목적으로 매주 토요일 마련해온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상설공연 '토요신명무대' 1월 공연. 올해 2014년에는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재, 성악, 민속춤, 민속악, 궁중 문화, 창작음악과 춤, 국악 관현악, 들놀음과 연희, 타악 등 아홉 가지 장르로 나뉘어 다양하게 진행된다.

▶4일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전폐희문, 영관', 처용무, 판소리, 가곡, 아리랑, 강강술래

▶11일 함께하는 우리소리의 아름다움(성악)

회심곡, 가야금병창, 단가와 판소리, 사랑가춤, 시조와 가사, 경 · 서도 민요

▶18일 흐르는 듯 멈추고, 멈춘 듯 흐른다(민속춤)

태평성대, 입춤, 승무, 산조춤, 한량무, 설장구춤

▶25일 가락에 시름을 씻고 흥을 담아(민속악)

푸살, 산조, 동부민요, 시나위와 살풀이, 남도 토속민요, 삼도풍물가락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1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8일 얼터너티브 국악 그리고 초아

국악과 양악의 경계를 허물어 그들만의 색깔있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얼터너티브 국악그룹 '초아'의 무대.

· 연주/김영준(피아노, 작곡), 강주현(베이스, 퍼커션), 고예슬(해금), 이수진(타악), 임진희(피리, 태평소), 황미정(대금, 소금)

▶15일 부산믈라디클라리넷컴퍼니 제4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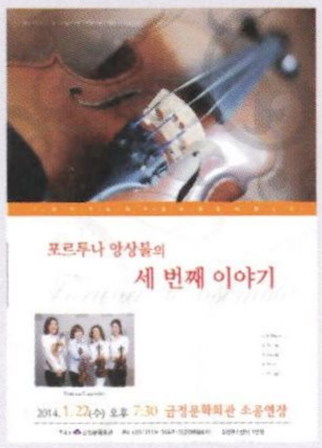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클라리넷콰이어 단원으로 활동중인 클라리네티스트 이원기를 리더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믈라디클라리넷컴퍼니의 4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바르톡/루마니아 민속무곡
루이스 까위작/페이 도끄
요한 스트라우스 2세/봄의 소리 왈츠
하인리히 베어만/클라리넷을 위한 아다지오 등

· 연주/김규현, 이원기, 유지훈, 임경희, 전다은, 박혜진, 김찬호, 이성은, 윤빛나, 김지훈, 김소령, 차호철
· 협연/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22일 포르투나 앙상블의 세 번째 이야기



바이올리니스트 홍기정, 박미정, 백흥선, 조미혜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구성된 포르투나 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텔레만/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장조
비발디/협주곡 제8번 가단조
C. Hampeln/콘체르탄테 작품 17 등

· 피아노/조미영

▶29일 오신정 플루트 독주회 'Flute And …'

서울대학교와 미국 맨하탄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오신정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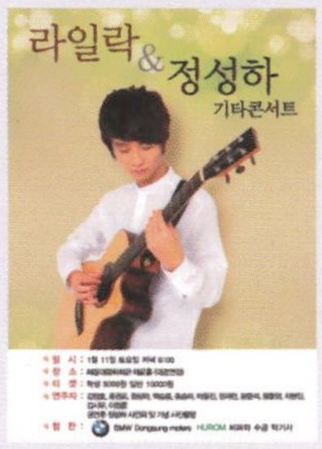
▶프로그램

생상/타란텔라
도플러/안단테와 란도
탁타키슈빌리/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 피아노/이은정
· 협연/김보영(플루트), 정수진(피아노), 최은진(클라리넷), 문동원(오보에), 이부천(트럼펫), 이슬기(바순)

라일락 & 정성하 기타콘서트

1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홍권표(010-7522-0476)



클래식기타리스트 홍권표의 제자들인 '라일락 기타레슨' 학생들과 한국인 최초 유투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해 큰 화제를 모았던 천재기타리스트 정성하가 함께 하는 무대.

· 연주/홍권표, 정성하, 백승용, 김정호, 김시우, 왕준석, 왕준영, 정재민, 박윤진, 차현진,황태웅, 홍승하, 김건곤
· 특별출연/기타리스트 정성하

2014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세계영화 & 음악기행 시리즈
'얼음의 나라 러시아'(소치동계올림픽)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www.dureraum.org)


김용진 김주현 이솔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대표적인 영화와 문화 그리고 음악들을 소개하는 세계영화 & 음악기행 시리즈로 새롭게 마련하는 2014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1월 무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겨울의 나라 러시아의 문화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1월에는 2002년 브람스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주현을 리더로 첼리스트 이솔, 피아니스트 김용진으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 Solist A가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등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준다.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기타듀오 : 폴리포니

1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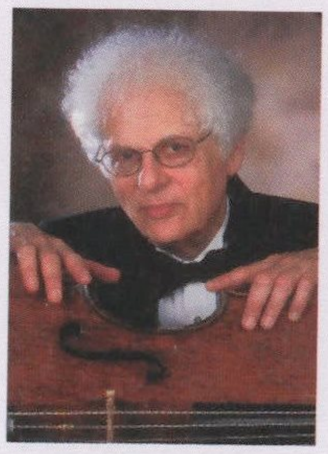


지난 2006년 클래식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결성된 기타듀오 폴리포니의 무대로 마련되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1월 무대.
영화 '디어헌터', '흑인 오르페', '금지된 장난', '시네마천국' 등 아름다운 선율로 사랑받는 영화 주제곡을 듀오연주로 들려준다.

●●●

2014 제9회 부산국제음악제
첼로의 거장 로렌스 레써 '바흐 무반주 첼로모음곡'

1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지난 2005년 시작된 후 부산의 대표적인 음악축제로 자리한 부산국제음악제 2014년 무대.
현재 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 교수로 있는 바흐 연주의 대가인 첼리스트 로렌스 레써가 어려운 기교와 감성적인 표현으로 첼리스트들의 성서라 불리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모음곡을 들려준다.
1966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수상자로, 첼로의 거장 카잘스로부터 '이토록 훌륭한 재능을 준 신께 감사하노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는 로렌스 레써는 바흐 탄생 250주년을 기념한 지난 2000년에는 무반주 첼로모음곡 전곡을 7회 이상 공연하기도 했다.

제22회 동래문화회관 숲속의 열린음악회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1월 23일 목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희망의 대명사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신라대학교 교수,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 하모니스트 이성규가 함께 출연, 신년의 설렘을 다양한 연주곡으로 들려주는 동래문화회관 신년음악회.

●●●

제73회 글로빌 행복음악회

1월 26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 기금 마련)
문 의 | 글로빌아트홀(505-5995)



글로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 시민들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Play

콘서트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9월 26일(목)-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휴관)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할인)
문 의 | ㈜문화락(1600-1602)



뭐든 참견해야 직성이 풀리는 수다남에서부터 사연많은 탈옥수 배철수, 사사건건 잘난 척하는 수상한 여자 김봉자, 무대공포증에 걸린 소심한 가수 김우연까지 한 까페에서 만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섯 남녀의 유쾌한 헤프닝을 그린 창작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

불타는 코미디연극 '불편한 타이밍'

2013년 10월 24일(목)-2014년 3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2/1일 오후 2:00, 5:00, 1/1일, 1/31일,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여자 이야기에 불타오르고 작은 일에 승부욕을 펼치는 엉뚱하지만 매력있는 세 남자들의 이야기 코믹극 '불편한 타이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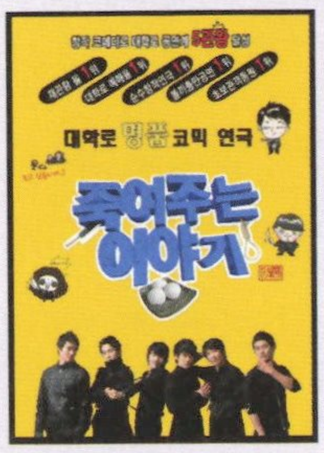
연극 '러브스타트'

2013년 11월 14일(목)–2014년 1월 5일(일) 평일 오후 5:00,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8:00, 일요일 오후 4:00, 7:00(12/31일 오후 4:00, 6:00, 8:00, 10:00, 1/1일 오후 4:00, 7: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첫사랑의 가슴터질 듯한 설렘과 첫사랑의 실패로 가슴 찢어지는 슬픔까지 아픈 첫사랑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본격 치유 코미디극 '러브스타트'.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2013년 11월 14일(목)–2014년 1월 12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5:00,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12/24, 12/31 오후 3:00, 6:00, 9:00, 12/25 오후 2:00,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비너스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사회에서 터부시 되는 '자살'을 소재로 죽음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자살사이트 회장과 자살하기 위해 이 곳을 찾은 두 남녀를 통해 타인의 죽음에 무관심한 현 세태를 풍자한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연극 '행복'

2013년 11월 28일(목)–2014년 2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주)문화락(1600-1602)

운동 후유증으로 치매에 걸린 전직 복서출신의 남편과 심하게 웃거나 울면 죽을 수 있는 코넬리아 디란지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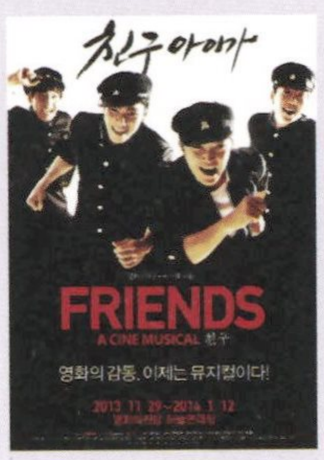


후군에 걸린 아내, 삶의 끝에 서 있어도 서로가 있어 행복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연극 '행복'.

· 작/이선희
· 연출/정세혁
· 출연/장우정, 김쾌남, 이지현, 이태일, 임예나, 김정호

뮤지컬 '친구'

2013년 11월 29일(금)–2014년 1월 12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3:00,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 R석 8만원 · S석 6만원
문 의 | 영화의전당(780-6000)



영화의전당과 비오엠코리아가 제작한 부산 최초의 시네 뮤지컬 '친구'.
지난 2001년 부산을 배경으로 개봉 당시 818만명을 동원했던 곽경택 감독의 흥행작을 뮤지컬로 제작한 '친구'는 원작인 영화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준석과 동수의 대립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선보인다.

· 작/이다윗 · 작곡/박윤영 · 연출/차태호
· 출연/안재모, 조형균, 김찬호, 김지훈, 권민수 외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드립니다'

2013년 12월 3일(화)–2014년 1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12/31일 오후 5:00, 7:00, 9:00, 1/1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짝사랑하는 같은 회사 여직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주인공의 고군분투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로맨틱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드립니다'.

넌센스 로맨틱 코믹극 '도둑과 연인'

2013년 12월 3일(화)–2013년 2월 2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1/30일–31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611-8518)



학습지 교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생계를 꾸려가는 혜교와 그녀에게 빌붙어 사는 남자친구 성민,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에 우연히 도둑질하러 들어온 도둑, 이들 세명이 펼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로맨틱 코믹극.

연극 '셜록홈즈–벌스톤의 비밀'

2013년 12월 4일(수)–2014년 2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12/30일을 제외한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주)문화락(1600-1602)



영국의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주인공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탐정인 셜록 홈즈의 모험담을 그린 연극 '셜록홈즈–벌스톤의 비밀'.
원작 본연의 탄탄한 내용과 기발한 무대장치, 극의 흐름을 이끄는 춤과 음악이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뮤지컬 '프리즌'

2013년 12월 19일(목)–2014년 2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주)문화락(160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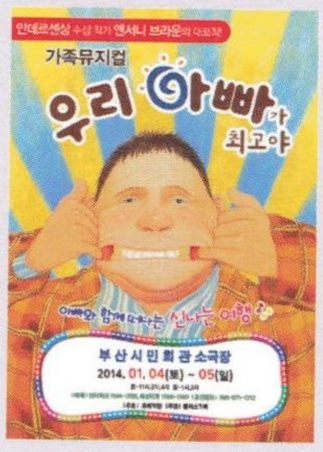
컬투가 만든 화제의 코믹 뮤지컬 '프리즌'.
가수가 되고 싶은 탈옥범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작품으로, 신나는 콘서트와 퍼포먼스, 마술, 개그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재미를 더해준다.



70년 역사의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인 동춘서커스가 펼치는 초대형 서커스 무대.
손에 땀을 쥐게하는 곡예와 묘기, 흥미넘치는 다양한 프로그램, 환상적인 무대연출로 아트서커스의 진수를 보여준다.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1월 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5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플러스기획(080-071-1212)



그림책 작가로서는 최고 명예인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앤서니 브라운의 동명의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가족뮤지컬.
아빠와 함께 사라진 엄마를 찾는 주인공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매직컬 '신데렐라'

1월 18일 토요일 오후 1:00, 3: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환상적인 마술과 뮤지컬이 만나는 매지컬 '신데렐라'.
동화 속에 등장하는 달콤한 상상이 실제 무대에서 환상적인 마법으로 펼쳐진다.

동춘서커스 '테마서커스 변검 홍길동'

1월 24일 금요일 오후 3:00,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감성뮤지컬 '베르테르'

1월 25일-26일 토-일요일 오후 3:00,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1만원 · R석 9만 9천원
S석 7만 7천원 · A석 6만 6천원
문 의 | (주)WSM(1566-5490)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원작으로, 한 남자의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사랑과 심금을 울리는 감성적인 음악으로 사랑받아온 감성 뮤지컬 '베르테르' 부산공연.
지난 2000년 성공적인 초연 무대를 시작으로 매번 업그레이드 된 무대를 선사해온 '베르테르'는 올해 7년만에 다시 만난 연출가 조광화, 음악감독 구소영의 호흡, 뮤지컬 스타 임태경, 엄기준의 출연, 11인조 실내악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로 화제가 된 작품이다.
· 출연/임태경, 엄기준, 전미도, 이지혜, 이상현 외

뮤지컬 '넌센스 A-men'

2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일 일요일 오후 2:00,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9만원 · R석 8만원
S석 7만원 · A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WSM(1566-5490)



수녀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소동을 코믹하게 그려내면서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사랑받아온 뮤지컬 '넌센스' 남자 버전.
뮤지컬배우 송용태, 김재만, 박준혁, 송용진, 김남호와 방송과 뮤지컬 무대를 넘나드는 홍록기, 방송인 겸 배우 홍석천, 가수 손진영이 합세해 유쾌한 무대를 펼친다.

Movie

3인의 여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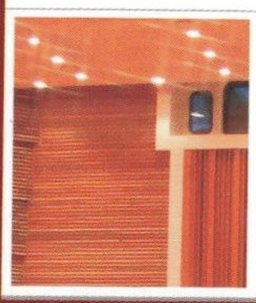
-줄리엣 비노쉬, 줄리 델피, 이렌느 야곱

1월 7일(화)-2월 5일(수)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입장료 | 일반 6천원 · 경로, 청소년 4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프랑스를 넘어 세계적인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줄리엣 비노쉬, 배우로서는 물론 감독으로서도 매력을 내뿜는 줄리 델리, 청순함과 관능적인 매력을 동시에 갖춘 진정한 연기파 배우 이렌느 야곱 등 세 명의 여배우를 함께 만날 수 있는 특별상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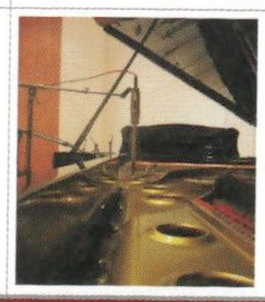
| 국제 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녹음홀 | 글로빌아트홀
www.glovil.org 051 505 5995 / glovil@hanmail.net

대 관
독창회/독주회/실내악/세미나/행사



연주자에게는 편안함을
관객에게는 감동을 주는
연주홀
-부양구조와 음향확산공법에 의한 최적의 어쿠스틱 연주홀
-객석 어느곳에서든지 고른 음향 전달

클래식전문 녹음/녹화
유학 및 국제콩쿨 오디션 제출용 / 개인소장용



실제 공간음을 들으며
녹음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어쿠스틱 녹음홀
영국 BBC 방송사와 동일한 녹음 장비 보유
클래식 녹음 전용 마이크로
음악전공 전문 엔지니어에 의한
녹음, Editing, Mastering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빌아트홀

Concert

The Band NAIDEN with Friends
– KOREA / JAPAN FRIENDSHIP CONCERT –

1월 18일 토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www.mudae.kr)

2010년 3월 'Rock & Blues'를 기반으로 연주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직장인밴드 'NAIDEN'과 프로 뮤지션을 멤버로 한 후쿠오카의 직장인 밴드 'MASAKAMOTO'가 펼치는 특별한 무대 'The Band NAIDEN with Friends'.

●●●

송영주 트리오 콘서트

1월 19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4만원 · S석 3만원
문 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623-0678)



재즈의 메카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재즈피아니스트 송영주의 무대.
2005년 1집 앨범 'Turning Point'로 데뷔한 송영주는 2012년 제9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크로스오버 연주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5

1월 25일 토요일 오후 7:00, 26일 일요일 오후 5:00
KBS 부산홀
입장료 | 균일 7만 7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WSM(1566-5490)



'언어의 마술사, 소통의 아이콘' 김제동의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 5번째 무대.
지난 4년동안 총 157회 공연, 관객 17만명의 기록을 세운 김제동의 토크콘서트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Event

구름빵 키즈랜드

2013년 12월 1일(일)-2014년 3월 31일(월)
영화의전당 비프힐 1층 다목적홀
입장료 | 균일 1만원(1회 이용시간 3시간)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

영화의전당 아트 스케이장

2013년 12월 7일(토)-2014년 3월 2일(일)
영화의전당 두레라움 야외광장
입장료 | 일반 6천원 ·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4천원
(4세 이상 입장)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134)

· 이용시간/오전 10시~오후 10시

●●●

녹색건강놀이터 '콩이랑 아이랑'

1월 3일(금)-2월 28일(금) 부산시민회관 한슬갤러리
입장료 | 일반 1만원 · 어린이 1만 5천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630-5258)



콩을 소재로 한 친환경 교육체험 놀이터 '콩이랑 아이랑'.
콩 관련 동화를 들으며 동화 속 세상을 그리고 만들어보는 '잭과 콩나무', 밀가루, 콩가루 반죽놀이를 하며 쿠기도 만들어보는 '허브쿠키나라', 콩 관찰 및 모자이크 놀이, 콩가루 놀이로 이뤄지는 '콩이랑 가루랑', 콩으로 이뤄진 콩풀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콩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제83회 알바트로스 신년 시낭송회

1월 18일 토요일 오후 5: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김옥균(010-6367-0149)

Gallery

부산시립미술관 기증작품전
드로잉; 문신, 이우환

2013년 8월 31일(토)-2014년 2월 2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기증작품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기획전
빛나는 거미줄

2013년 9월 14일(토)-2014년 2월 1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부산국제영화제 CINEMA MUSEUM
지박콜렉션 특별전

2013년 10월 3일(목)-2014년 3월 31일(월)
영화의전당 비프테라스
입장료 | 플래닛엑스관 1만 5천원
플래닛엑스관+아이리얼파크관 2만 5천원
문 의 | 아이리얼(주)(1599-0322)

고은사진미술관 해외교류전
베르나르 포콩

2013년 11월 9일(토)-2014년 1월 26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1970년대 말 메이킹 포토, 미장센 포토 등으로 불리는 연출사진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사진작가 베르나르 포콩 초청전.

티엘갤러리 개관 기획초대전 방시

2013년 11월 13일(수)–2014년 2월 28일(금)
티엘갤러리
문 의 | 티엘갤러리(070-7882-3712)

'The Earth' 임상섭展

2013년 11월 15일(금)–2014년 1월 13월(월)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문 의 |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731-6200)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NASA : Countdown to Infinity

2013년 11월 16일(토)–2014년 1월 26일(일)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744-3924)



사진평론가 이영준이 수집한, 우주개발과정에서 찍은 NASA(미항공우주국)의 사진을 통해 과학사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특별전.

오치균 '아트 앤 리빙(Art &Living)展'

2013년 11월 16일(토)–2014년 1월 15일(수)
도시갤러리
문 의 | 도시갤러리(756-3739)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권영술 초대전 'Polaris'展

2013년 11월 26일(화)–2014년 1월 26일(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 의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810-2328)

소울아트스페이스 8주년 개관기념
에바 알머슨 초대展

2013년 12월 2일(월)–2014년 1월 13일(월)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점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점(731-5872)



일상의 이야기를 아기자기한 소재들과 접목시켜 동화적으로 풀어내는 스페인 여류화가 에바 알머슨 초대전.
행복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는 상상력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유화, 드로잉, 판화 등 신작 30여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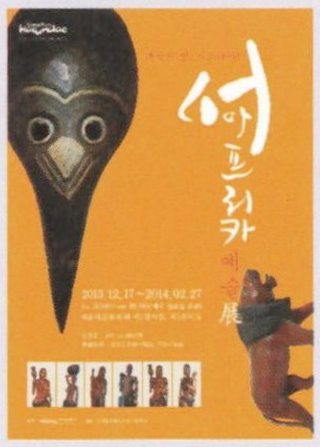
'부산-홍콩, 친구를 만나다' 전시회

2013년 12월 6일(금)–2014년 1월 5일(일)
영화의전당 더블콘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134)

영화도시이자 항구도시라는 공통점을 지닌 부산과 홍콩, 두 도시의 문화교류를 위해 마련한 특별전.

해운대문화회관 기획전
예술의 땅,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예술展

2013년 12월 7일(토)–2014년 2월 27일(목)
해운대문화회관 1, 2전시실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703-7446)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예술작품들을 소개하는 특별전. 서아프리카의 매우 다양한 삶의 형태와 생활풍습을 엿볼 수 있는 가면, 인물상, 동물조각상 등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 관람시간/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관)

이민혁 '부산, 여행자'展

2013년 12월 7일(토)–2014년 1월 4일(토)
갤러리예동 센텀
1월 7일(화)–1월 25일(토) 갤러리예동 마린
문 의 | 갤러리예동(781-5337)

안미선展 '고양이로소이다'

2013년 12월 10일(화)–2014년 1월 10일(금)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747-2612)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의 작고작가 9
송혜수 탄생 100주년 '예술은 마음의 눈물이다'

2013년 12월 14일(토)–2014년 2월 1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스페이스 움 기획전 DRAWING/DREAMING

2013년 12월 16일(월)–2014년 1월 11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557-3369)

· 참여작가/김대홍, 김범수, 양소연, 이수영, 임국, 지민경

부산 현대미술의 오늘 1부 '청년을 만나다'

2013년 12월 19일(목)–2014년 1월 25일(토)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
문 의 |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200-7000)

· 참여작가/박상호, 손현욱, 변대용, 박항원, 이윤주, 박자용, 손몽주, 엔조, 김등용, 정만영

롯데갤러리 광복점 신년기획 책거리 그림展

2013년 12월 20일(금)–2014년 1월 12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



19세기 다양한 책거리 병풍과 책을 소재로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쳐온 작가 양화선의 조각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신년 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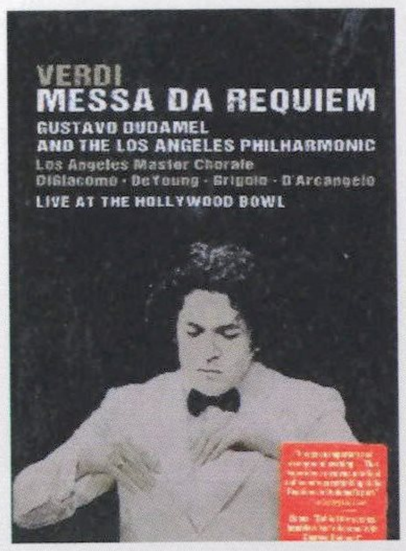
얀 파브르 : 블루의 시간

2013년 12월 21일(토)–2014년 2월 2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벨기에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얀 파브르의 드로잉과 영상, 설치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

바퀴 달린 그림책

1월 13일(월)–1월 29일(수)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557-3369)



베르디 레퀴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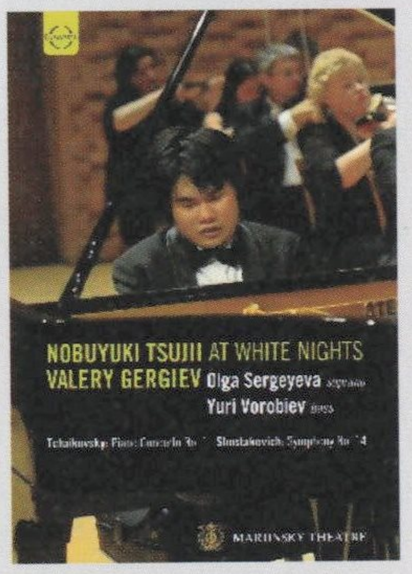
줄리아나 디자코모(소프라노)/ 미첼 드영(앨토)/ 비토리오 그리골로(테너)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베이스)/ LA 마스터 코랄/ LA 필하모닉/ 구스타보 두다멜(지휘)

헐리우드 보울에서 펼쳐졌던 구스타보 두다멜의 베르디 레퀴엠 실황

구스타보 두다멜은 이제 단순한 화제의 인물을 넘어서서 명실상부한 이 시대의 유능한 지휘자로 자신의 입지를 안정되게 구축해나가고 있다. 자신과 불가분의 관계인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와의 긴밀한 활동 이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2009년부터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인 LA 필과도 왕성한 레코딩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이번 영상물은 2013년 8월 LA 인근의 유명한 야외음악당인 헐리우드 보울에서 있었던 특별한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이다. 두다멜과 LA 필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오페라 히어로들인 비토리오 그리골로와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를 위시한 정상급 솔리스트와 함께 베르디의 '레퀴엠'을 무대에 올렸다. 두다멜의 박력 넘치는 지휘와 솔리스트들의 뛰어난 열창, 그리고 LA 필과 LA 마스터 코랄이 함께 만들어낸 큰 스케일의 연주는 '작곡가의 가장 드라마틱한 오페라'라고 일컬어지는 이 걸작의 매력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메인 프로그램인 레퀴엠 연주실황(보너스 영상 제외)에만 한글자막이 함께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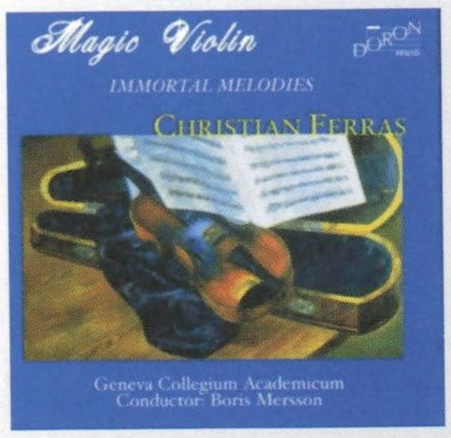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1번/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4번

츠지이 노부유키(피아노)/ 올가 세르게예바(소프라노)/ 유리 보로비에프(테너)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발레리 게르기에프(지휘)



맹인 피아니스트 츠지이 노부유키의 감동적인 백야축제 실황

손열음이 은메달을 차지했던 2009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중국의 장 하오첸과 함께 공동우승의 영예를 안았던 츠지이 노부유키(辻井伸行). 그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이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과 남다른 재능으로 인간승리의 드라마를 써나가고 있다. 이번 영상은 2012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백야축제에 초빙되어서 가졌던 감동적인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협주곡 1번을 협연한 것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독주 리사이틀과 달리, 지휘자, 악단과의 긴밀한 호흡과 조화가 요구되는 협주곡은 앞을 볼 수 없는 그에게 있어서 더 힘든 도전 과제임이 분명할 것이다. 하지만 노부유키는 게르기에프의 사려 깊은 반주에 힘입어서 기대 이상의 놀라운 연주성과를 펼쳐 보이고 있다. 앙코르로 들려준 자신의 자작곡 '쓰나미 희생자들을 위한 엘레지'의 잔잔한 감동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콘서트 후반부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들 중에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가장 파격적인 작품인 교향곡 14번이 장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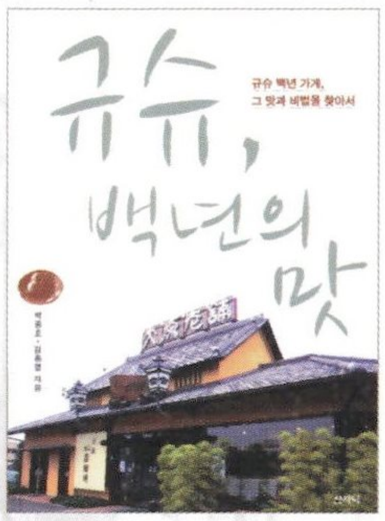
불멸의 선율 바이올린 소품집

크리스티앙 페라스(바이올린)/ 제네바 콜레기움 아카데미쿰/ 보리스 메르손(지휘)

카라얀이 선택한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앙 페라스가 남긴 불멸의 연주

카라얀이 선택한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앙 페라스(Christian Ferras, 1933~1988). 그는 20세기 중반 LP시절에 프랑스에서 가장 명망 높은 음악가였다. 페라스는 6세에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 10세에 리스콩쿠르에 우승했다. 술에 재능을 빼앗긴 많은 예술가 중 한사람이었던 페라스는 49세의 짧은 삶에서 중요한 음반들을 여럿 남겼는데, 이 소품집 역시 그 중 하나이다. 그는 이 음반에서 드보르작, 쇼팽, 슈베르트, 파라디스, 드뷔시, 차이코프스키 등 잘 알려진 소품 뿐만 아니라, 비에니아프스키, 르클레르 등 숨겨진 아름다운 선율들을 녹음했다. 흐트러짐이 전혀없는 강한 보잉과 음악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범상치 않으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낭만적인 감수성은 태양과 같이 강렬하다.

New Book
박현주_북칼럼니스트



규슈, 백년의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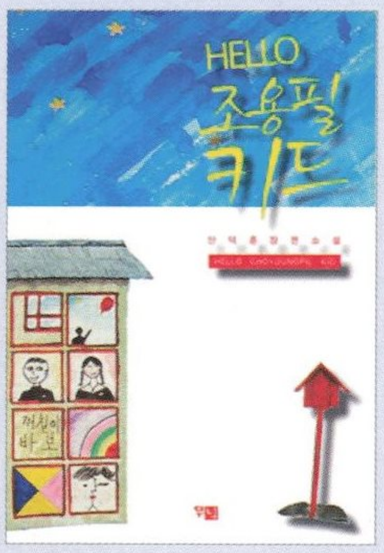
박종호·김종열 지음 / 산지니 / 255p / 1만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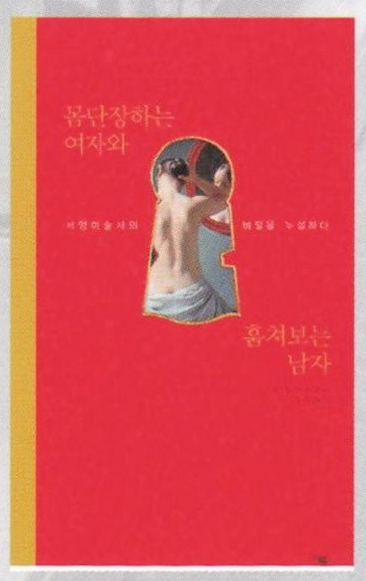
일본 오이타현 기치키 시에는 1698년에 문을 연 오차즈케 음식점 '와카에야'가 있다. 와카에야에서 만들어 파는 음식은 '다이차즈케(도미 오차즈케)' 딱 하나 뿐이다. 현재 16대 당주인 고토 겐타로 씨는 "오늘날의 와카에야는 지역 주민이 만들어준 것이다. 지역주민이 먹어주지 않았더라면 와카에야는 없었다"고 말한다. 사가현 가라쓰 시에는 1893년에 문을 연 료칸 '요요카쿠'가 있다. 프랑스의 장 자크 아노 감독은 "도쿄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묵었지만 요요카쿠에서 비로소 일본을 느꼈다. 요요카쿠는 일본의 아이덴티티다"라고 말했고, 도올 김용옥은 "이 곳에 머무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극찬했다. 부산의 맛집을 다룬 〈부산을 맛보다〉를 펴낸 박종호 기자, 후쿠오카 서일본신문에 교환기자로 파견돼 1년 동안 규슈 지역에서 생활한 김종열 기자가 규수 백년 명가의 맛을 소개했다. 단순히 맛집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맛', '고집', '이야기', '지역', '생각' 등 다섯 가지 주제를 통해 규수의 맛을 소개한다. 메이지 시대에 시작한 고래 코뼈 연골의 술지게미 절임, 재일한국인의 애환이 서린 야키니쿠 전문점, 400년 이상 만들어 온 '조선'이라는 이름의 엿 등 규슈의 오래된 가게들 문을 열어준다.

Hello 조용필 키드

안덕훈 지음 / 무늬 / 312p / 1만 2천원

"7080? 그건 주민번호만큼이나 건조하다. 386 혹은 486세대? 이건 정치적이기 이전에 폭력적이다. 학번 없이 살아온 이에게는 침묵을 강요하는 억압이며 몰염치이다. 이들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공연장을 나서는데 문득 '조용필 키드'가 떠올랐다. (작가의 말 중에서)" 조용필과 함께 통과한 1980년대의 추억을 담은 소설이 나왔다. 조용필 노래를 들으면서 살았던 그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소설의 1부 '연락선을 타고 떠난 내 형제여'는 어린 시절로 독자를 데려다준다. 2부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는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과 쓰디 쓴 실연의 아픔을 상기시키고, 3부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는 치열했던 80년대의 젊음을 되돌려준다. 4부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는 힘겨웠던 1990년대를 되새기게 한다. IMF 외환위기와 세기말 증후군을 겪은 조용필 키드는 꿈을 잃고 도시의 뒷골목을 헤매다녔다. 5부는 '여행을 떠나요 킬리만자로를 향해서'. 21세기 현재, 중년에 접어든 조용필 키드는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저마다의 꿈을 떠올린다. 대중문화를 넘어 시대를 상징하며, 곧 그 세대의 삶이었던 '가왕 조용필'의 노래와 함께 살아온 세대에게 바치는 소설이다.





몸단장하는 여자와 훔쳐보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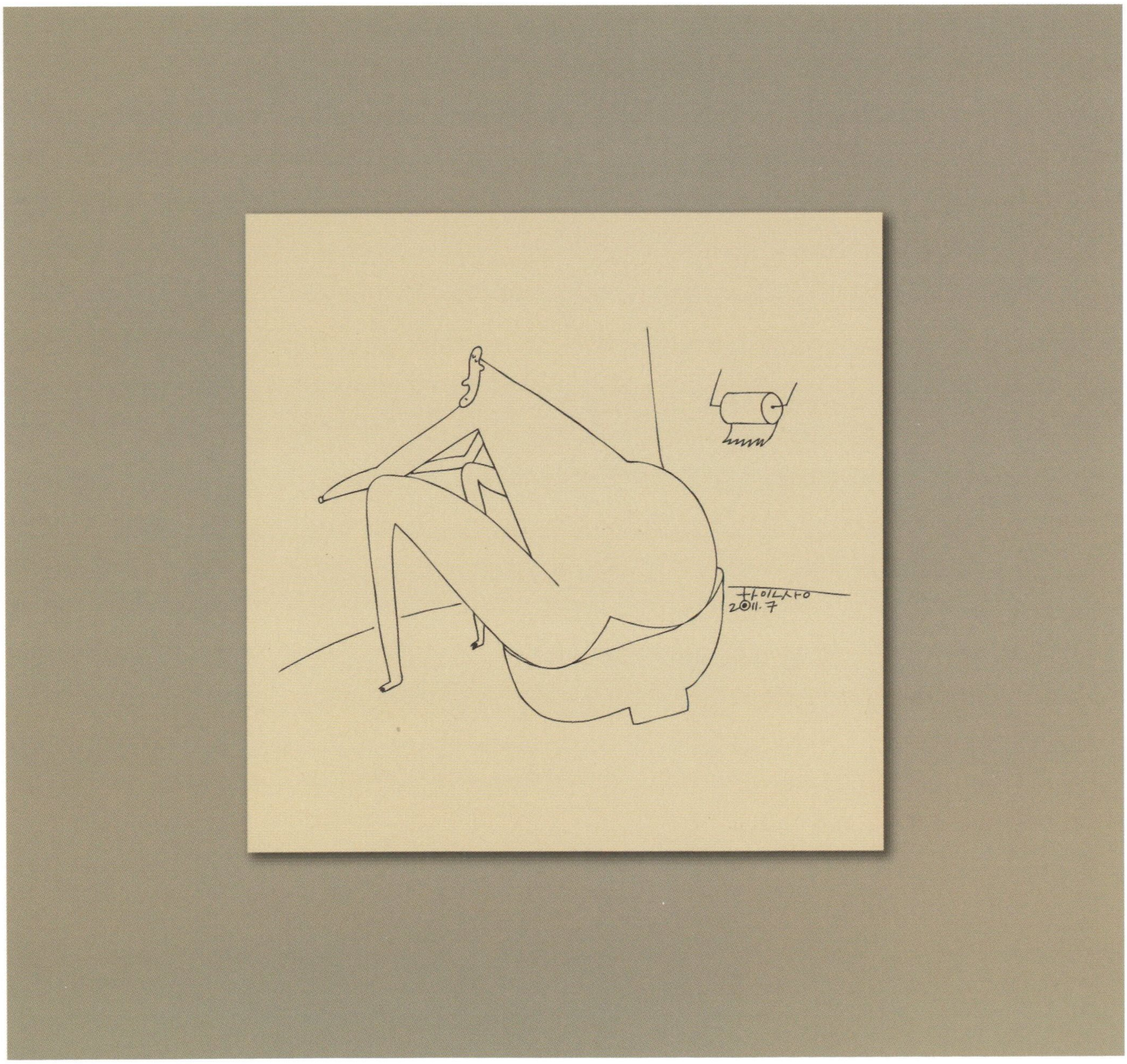
파스칼 보나푸 지음, 심영아 옮김 / 이봄 / 264p / 1만 8천원

약간은 에로틱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음증을 연상시키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은 서양미술 속 누드화에 관한 책이다. 서양미술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림, 아니 서양미술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그림은 '누드화'이다. 선사시대의 '빌렌도르프 비너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술과 역사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고 뜯어보는 대상은 역시 대부분 '벗고 있는 여자'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점을 그냥 지나치곤 했던 서양미술사의 음흉한 비밀을 밝힌다. 우리가 그동안 말로 꺼내지 않고 에둘러서 했던 이야기, 그럼에도 꼭 하고 싶다면 '무례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각오해야 하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아닌 '미술사학자'가 꺼낸다. 이 책의 저자 파스칼 보나푸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문체로 유명한 파리 8대학의 미술사학과 교수이다. 그 역시 처음에는 '자화상'을 연구해왔으나 최근 예순을 넘겨서 누드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누드화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하면 선정적일 수 있다. 저자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선정성에 집중한다. 그런데 저자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자신이 사실 '관음증 환자'라는 폭탄선언과 함께 누드화 속 여인들에게도 발언권을 주는 것이다.

하인상의 생각그림
Metaphortoon

돌고 또 돌고 사람 사는 거 특별한 게 없다.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는 인생사 돌고 도는 우리네 인생. 한해를 바쁘게 살다보니 이맘때면 머리가 어지럽기 다반사다.

메타포투니스트 · 시인



BUSAN CULTURAL CENTER
news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ACROS Fukuoka Lunch Time Concert 참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2014년 1월 21일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아크로스 후쿠오카홀의 '아크로스 후쿠오카 런치 타임 콘서트'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연주여행길에 오른다.

아크로스 후쿠오카 홀의 초청으로 개최하는 이번 공연은 2009년 아크로스 후쿠오카홀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일본에 알릴 수 있는 무대로, 한 · 일 양국의 문화 예술을 통한 상호 이해,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무대는 2014년 창단 2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의 음악적 소양의 폭을 넓히며, 전문연주자로서의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이다.

이날 연주회에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수석지휘자 이동신의 지휘,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임가진의 협연으로 림스키-코르사코프 '스페인 기상곡', 보로딘 '이고르 공' 중 '폴로베츠 사람들의 춤',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왈츠' 등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관람료 인상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관람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그동안 물가인상 수준 등에도 변함없이 1990년 책정된 금액(R석 10,000원/S석 7,000원/ A석 5,000원)을 고수해왔다.

이번 관람료 인상은 교향악단의 우수한 연주수준과 타시도 교향악단 수준과 맞는 관람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인상된 것.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 좌석 체계가 R석, S석, A석 3단계였지만 이번 인상에서는 R석, S석, A석 외 B석을 추가로 편성, 기존 5,000원 관람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웰빙콘서트의 경우 주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공연임을 감안, 관람료 인상없이 기존 관람료를 유지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14년 관람료 인상만큼 더욱 수준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중들과 만날 계획이다.

'생활 속의 비타민' 같은 공간 갤러리 藝家

www.yehga.co.kr



부산문화회관 맞은편 가람아트홀 3층에 자리한 갤러리 예가는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객들에게 또다른 즐거움을 주는 전시공간이다.

지난 2003년 4월 15일 개관해 벌써 10년 넘게 이 곳을 지켜온 갤러리 예가는 그동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을 지냈던 故 이두식 작가 초대전(2003년 10월, 2006년 6월)과 故 박병제 작가 초대전(2006년 4월), 일반 갤러리에서는 드문 대형전시회로 화제를 모았던 정경연 작가 초대전(2008년 5월, 부산문화회관 중전시실) 등을 기획, 부산미술애호가들과 만나왔다.

특히 갤러리 예가에서는 소액 기부 실천은 물론 작가, 작품 구매자와 함께 지역 노인을 위한 목욕비, 아동 급식비, 장애시설을 지원하고 어린이 복지시설에 판화 작품을 기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왔다.

"단순히 미술작품의 유통만을 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 무형의 문화를 확산시켜 생활 속의 비타민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는 갤러리 예가 전우봉 관장. 부산문화회관과 부산박물관, 유엔기념공원, 그리고 영화상영관인 국도예술관과 음악카페, 악기판매점 등이 몰려있는 이 곳이야말로 '부산문화 1번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 생각한다는 전우봉 관장은 앞으로 이 곳을 시민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부산문화회관 주변에는 갤러리, 영화관 등 문화공간에서 부터 식사나 한잔의 차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많습니다.
공연관람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을 찾으실때 부산문화회관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문화회관 앞으로도 관객 여러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휴업체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OZART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 051)622-1456

vin cent
핸드 드립
Espresso Coffee 전문점
Take out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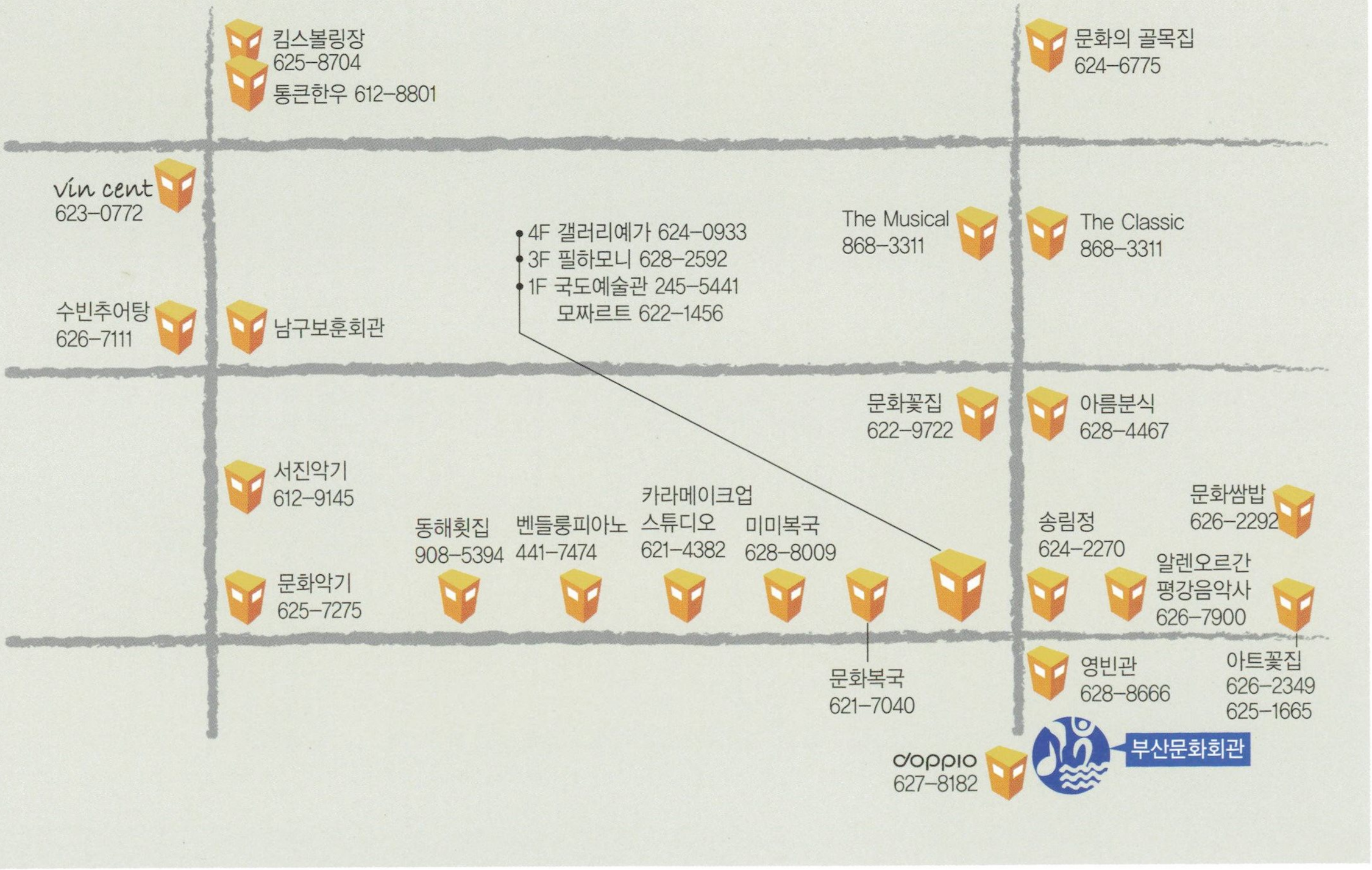
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051)626-2592

송림정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

공연시간에 쫓겨 힘드신 적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지난호정답

합	창			소	원		그	네	
기		바	로	크			래		산
도	드	리		라	트	라	비	아	타
		데		테			티		클
아		기	네	스	북			한	로
기			모		청	해	진		스
공	후	인			사		산	조	
룡		어	린	왕	자			삼	바
둘		공			놀	부		모	
리	설	주		지	음		서	사	시

12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옥자(부산진구 초읍동)
박나래(남구 대연4동)
이계정(남구 용호동)
이영희(중구 대청4가)
최성숙(금정구 부곡4동)

조은극장 초대권
김은희(남구 대연5동)
박미은(연제구 거제4동)
임은정(남구 용호동)
장영희(중구 중앙동)
한은정(동구 수정동)

큰집 식사권
김정화(동래구 사직동)
민지은(사하구 당리동)
이덕봉(중구 대청4가)
정경숙(사하구 다대로)
조봉자(서구 서대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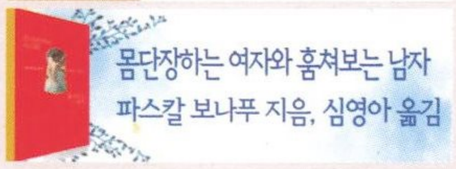
도서 몸단장하는 여자와 훔쳐보는 남자
문정화(북구 화명3동)
박은애(중구 대청동)
박선영(부산진구 부암동)
정은주(서구 암남동)
하정희(사하구 하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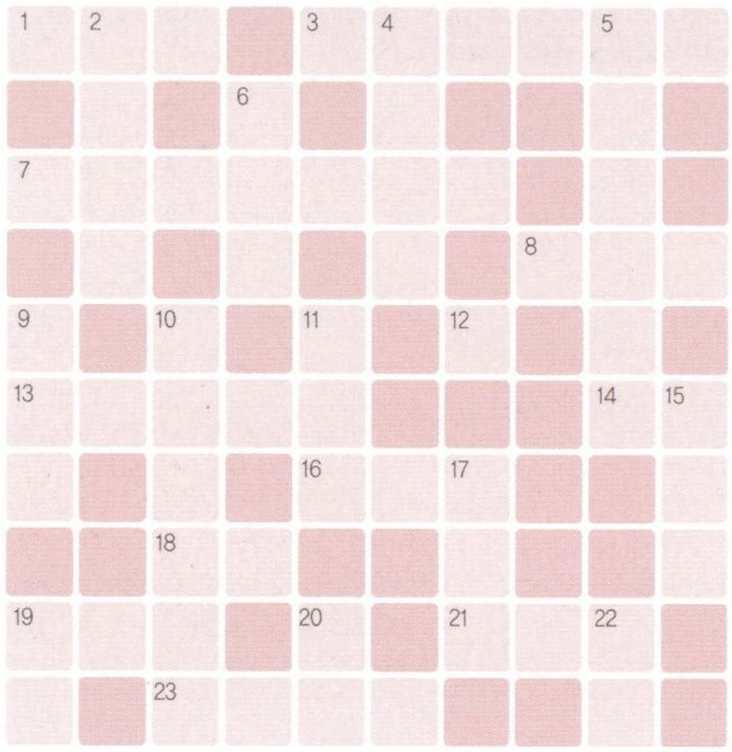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韓國傳統飮食店 큰 집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4년 1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가로열쇠]

❶ 2013년 계사년, 2014년 ○○○.

❸ 19세기 러시아 사회의 풍속도와 여성의 애정 심리를 밀도 있게 묘사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❼ 플라톤과 함께 그리스 최고의 사상가. 그가 세운 철학과 과학의 체계는 여러 세기 동안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과 스콜라주의 사상을 뒷받침했다.

❽ 한강의 토사가 퇴적된 모래땅이었으나 현재는 광장이 조성되고 관공서들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⓬ 새해의 첫날, 정월 초하룻날.

⓭ 지난 2011년 9월 29일 개관한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두레라움.

⓮ 제주 4 · 3사건을 그려내며 독립 장편영화로는 드물게 전국 12만 관객을 돌파한 오멸 감독의 영화. 한국 최초로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브졸국제아시아영화제, 이스탄불국제영화제,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등을 수상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영화명인 ○○은 제주도사투리로 '감자'.

⓰ 할리우드 프로젝트 '설국열차'로 세계적인 감독으로 거듭난 영화감독. 대표작으로 플란더스의 개,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등이 있다.

⓲ 나무의 수를 세는 단위.

⓳ 조지훈 시인의 시 '완화삼'에 대한 박목월 시인의 답시.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㉑ 제주도에 있는 독특한 화산지형으로, 희귀종이 많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 '제주의 허파'라 불린다. 숲을 뜻하는 'ㅇ'과 수풀이 우거진 곳을 뜻하는 'ㅇㅇ'이 합쳐져 부쳐진 제주 고유어이다.

㉓ 체코 민족음악의 창시자이자 보헤미아 민족주의 작곡가. 대표작으로 오페라 '팔려간 신부', 교향시 '나의 조국' 등이 있다.

[세로열쇠]

❷ 점토나 도자기로 만든 간단한 취주악기로, 이탈리아어로 '작은 거위'를 뜻한다.

❹ 프랑스 혁명의 사회적 격동기 후 제1제정을 건설했던 프랑스 황제.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은 당초 공화정을 주창하며 유럽 질서를 재편했던 이 인물에게 바쳐졌으나 그가 스스로 황제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이름이 적힌 악보 표지를 찢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

❺ 바그너가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을 위해 제작, 1876년 8월 첫 공연을 가진 악극.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등 4부로 이루어져 있어 전곡을 공연하려면 연속 4일 밤을 요하는 방대한 작품으로 관현악 편성만도 100명이 넘는 대규모의 작품이다.

❻ 영화감독 박찬욱의 헐리우드 진출작. 미국 영화 평론 사이트인 필름닷컴이 연말을 맞아 선정한 2013년 베스트 영화 25편 중 15위를 차지했다.

❾ 서정적이면서도 깨끗한 목소리로 '영원한 질다'로 사랑받고 있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1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음악팬들과 만난다.

❿ 갓낳은 아기를 목졸라 죽인 수녀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다룬 미국 극작가 존 필마이어의 작품. 국내에서는 1983년 실험극장이 초연, 최장기 공연과 최다 관객동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⓫ 금정산 주봉(主峰).

⓯ 국내 최초 국악실내악 1985년 당시 20대이던 KBS국악관현악단 연주자 민의식, 문정일, 강호중. 노부영. 정수년, 이준호, 조광재 등이 결성했던 국내 최초의 국악실내악단. 탄탄한 연주실력과 새로운 음악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신국악운동의 선두주자로 활동해왔다.

⓱ 포항시 장기반도 끝, 영일만을 이루면서 돌출한 곳, '호랑이 꼬리'라는 뜻으로, 매년 해맞이 행사가 펼쳐진다.

⓴ 오늘날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현을 손가락으로 뜯어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발현악기.

㉒ 18세기 중엽 오스트리아 및 바이에른 지방에서 유래한 민속춤곡. 19세기 들어 빈의 사교계로 진출하면서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고, 1814년과 1815년에 걸쳐 열린 '빈 회의'를 계기로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다.

January 2014 Program Guide

1 2014 January

Grand theater Medium theater Small theater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P.Y.O**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B.M.J.C**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5~4, 12 LIFE 'To see Life To see the World'			1	2 3  1, 24 I Musici		4 Bloomile 1st Performance Free/Bloomile(010-6838-9669) 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5	6	7	8 The 7th Classic Class for Citizen Mozart, Le Mariage de Figaro' 14:00 B.P.O(607-3111~5)	9 The 1153rd MBC Thursday Concert-Busan Wind Brass Ensemble 19:30 10,000/5,000/Busan Wind Brass Ensemble(010-4556-4057)	10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4 New Year's Concert' 19:30 20,000/15,000/10,000/5,000/B.P.O(607-3111~3) The Special Performance of Citizens Dance Dance Classroom & Child Korea Classroom 13:00 Free/B.M.D.C(607-3131~2)	11 Johann Strauss Orchestra Concert in Busan 19:00 70,000/50,000/30,000/20,000/Korea Musica(02-2272-6516) Saturday Regular Stage 16:00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12	13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4 Instrument Family Story' 10:30, 15:30 2,000/B.P.O(607-3111~3)	14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4 Instrument Family Story' 10:30, 15:30 2,000/B.P.O(607-3111~3)	15 The 7th Classic Class for Citizen Donizetti, Lucia di Lammermoor 14:00 B.P.O(607-3111~5)	16 I Musici Busan Concert '2014 New Year's Concert' 19:30 60,000/50,000/40,000/30,000/B.C.C(607-6057)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4 Instrument Family Story' 10:30, 15:30 2,000/B.P.O(607-3111~3)	17 2014 Busan Music Festival-BMF New Year's Concert 19:30 50,000/40,000/30,000/Busan Arts Management(740-5833) Tenor Kim Jugon Recitals 19:30 Invitation/Kim Jugon(010-9313-1624)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4 Instrument Family Story' 10:30, 15:30 2,000/B.P.O(607-3111~3)	18 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19	20 2014 Busan Music Festival-Recalls Brahms 19:30 50,000/40,000/30,000/ Busan Arts Management(740-5833)	21 2014 Busan Music Festival-Piano and Strings Encounters 19:30 50,000/40,000/30,000/Busan Arts Management(740-5833) The 16th Regular Concert of Busan Chamber Orchestra '2014 New Year's Concert for the Citizens' 19:30 Free/Busan Chamber Orchestra(663-4918)	22 The Speci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19:30 5,000/B.M.D.C(607-3131~2)	23 2014 Busan Music Festival-Closing Concert 'Family Concert' 19:30 50,000/40,000/30,000/Busan Arts Management(740-5833) The Speci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19:30 5,000/B.M.D.C(607-3131~2)	24 2014 New Year's Concert 'Soprano Sin Youngok Concert' 19:30 70,000/50,000/30,000/B.C.C(607-6058)	25 The 54th Regular Concert of Noel Choir 19:00 Free/Noel Choir(010-4183-2293) Gang Daehyeon Piano Pecital 17:00 Invitation/Gang Daehyeon(010-4691-4994) 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26	27	28	29 The 7th Classic Class for Citizen Verdi, Otello 14:00 B.P.O(607-3111~5)	30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New Year's Concert' 17:00 Free/B.M.T.O(607-3121~2)	31	

Discounted tickets available for annual members. •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 Please visit our website at http://culture.busan.go.kr for more information. • For invitation, please call the organizer.

청렴韓부산

2014년 1월 공연일정

1 2014 January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국제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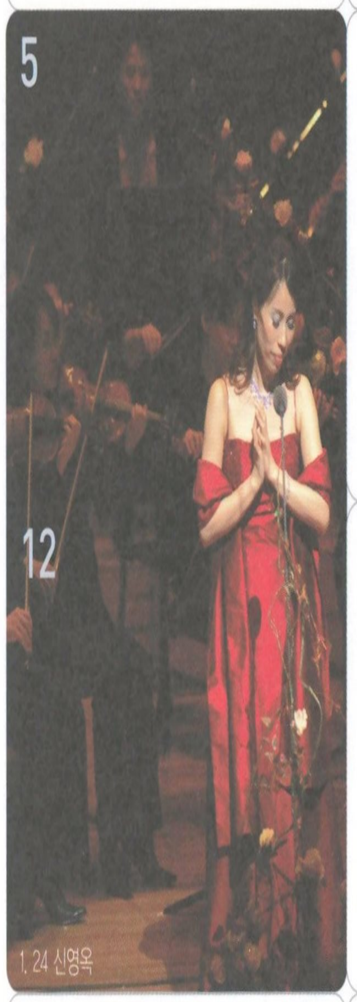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전시실 부산문화회관 기획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라이프 사진전' 1월 5일(일)~4월 12일(토)~대전시실 관람시간/10:00~20:00 입장권/일반 1만2천원·중고생 1만원·초등 8천원 ※겨울방학 특별할인(1.5~12) 6,000원 문의/부산문화회관(607-6053) 디커뮤니케이션(612-6619)			1	2 3  1. 16 아무지치	4 Bloomile 창단공연 18:30 무료/블루밀레(010-6838-9669) 토요상설무대-가족인형극 '피노키오의 모험'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5  1. 24 신영옥	6	7	8 시민클래식교실 개강식 '피가로의 결혼-사랑은 용서를 싣고'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9 제1153회 MBC목요음악회 부산윈드브라스앙상블 신년음악회 '나팔소리의 향연' 19:30 1만원·5천원/(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10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신년음악회 19:30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시민무용교실 & 어린이 한국춤교실 발표회 13: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1 요한 스트라우스 챔버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19:00 7만원·5만원·3만원·2만원 코리아무지카(02-2272-6516) 토요상설무대-JJ 매직패밀리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12	13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악기가족이야기-찌가찌가, 바이올린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4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악기가족이야기-찌가찌가, 바이올린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5 시민클래식교실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미쳐버린 여인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4 이 무지치 신년음악회 19:30 6만원·5만원·4만원·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악기가족이야기-뿌우뿌우, 나팔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7 2014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19:30 5만원·4만원·3만원/부산아트매지니먼트(740-5833) 테너 김주곤 독창회 19:30 초대/김주곤(010-9313-1624)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악기가족이야기-뿌우뿌우, 나팔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8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19	20 2014 부산국제음악제 '거장의 실내악1-브람스의 회상' 19:30 5만원·4만원·3만원/부산아트매지니먼트(740-5833)	21 2014 부산국제음악제 '거장의 실내악2-피아노와 스트링의 만남' 19:30 5만원·4만원·3만원/부산아트매지니먼트(740-5833)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제25회 봉생문화상 수상 기념 제 16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시민을 위한 2014년 신년음악회' 19:30 무료/경성대학교(663-4918)	22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4 우리 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3 2014 부산국제음악제 폐막연주회 '가족음악회' 19:30 5만원·4만원·3만원/부산아트매지니먼트(740-5833)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4 우리 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4 신년음악회 '소프라노 신영옥 콘서트' 19:30 7만원·5만원·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25 노엘합창단 제54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노엘합창단(010-4183-2293) 강대현 귀국 피아노 독주회 17:00 초대/강대현(010-4691-4994)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26	27	28	29 시민클래식교실 '오텔로-질투로 파멸해 가는 인간의 절망'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설맞이 국악한마당' 17:00 무료/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2)	31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r을 click하세요.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4 웰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

Opera 하이라이트

매회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해설 이동신


연출 유철우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문 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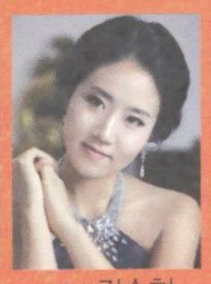
입 장 권 균일 10,000원 (정기회원 30% 할인)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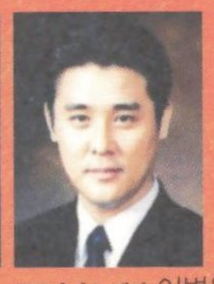
BS 부산은행 전지점

I. 바람 버셋 피자 2.7 (금)


볼륨투아 김유진


포비아 김수현


스코르피오 조윤환


포르마지오 백작 이병웅

II. 레온카발로 팔리아치 4.25 (금)


카니오 김지호


토니오 제상철


네다 박현정


실비오 강경원


베페 김정하

III.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8.1 (금)


피오르딜리지 김현애


도라벨라 신민원


굴리엘모 박상진


페란도 김기태


돈 알폰소 양재원


데스피나 김혜영

IV. 푸치니 토스카 11.7 (금)


토스카 구민영


카바라도시 홍지형


스카르피아 박대용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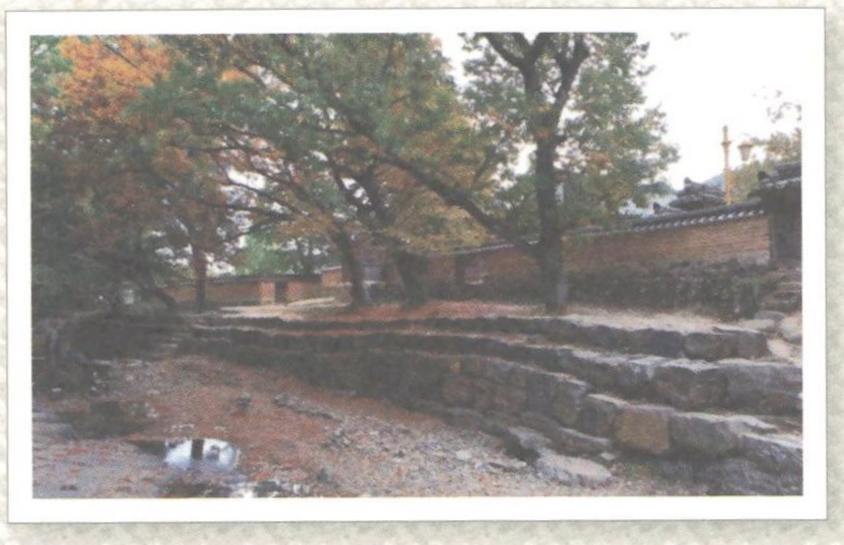


나를 찾아 떠나는 합천

2014년 2월 14일(금)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합천 해인사와 새롭게 단장된 대장경문화축전 주제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를 둘러보며 우리의 뛰어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새봄을 준비하는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및 출발
10:00 해인사 도착, 해인사 탐방
11:30 중식
13:00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람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6:00 부산으로 출발



8주년 기념 다시 떠나는 경주 수학여행

2014년 3월 14일(금)

매달 둘째 주 금요일 펼쳐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8주년을 맞아 테마여행 첫 출발지 경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과 회재 이언적 선생이 공부하던 독락당, 옥산서원 등 문화유적이 산재한 경주 안강 세심마을로 역사 기행을 떠난다.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10:00 경주도착, 양동마을 이동 역사탐방
12:00 세심마을 이동, 중식
13:00 전통놀이(재기차기, 투호, 활쏘기) 체험, 옥산서원탐방
16:30 부산으로 출발



2014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culture.busan.go.kr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 January Vol·26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65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65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센텀점
TODAI Restaurant
20% Discount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가스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Newtop Dental Clinic
해운대뉴탑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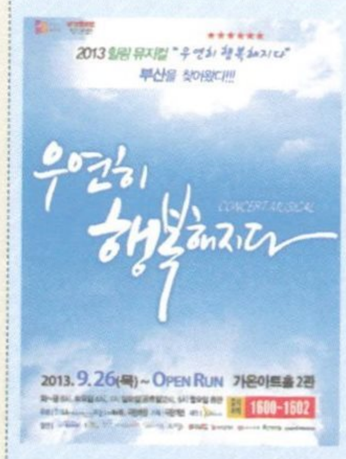


20% Discount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드립니다



핸드 드립/Espresso Coffee 전문점 Take out
Tel. 051-623-0772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10% 할인(커피에 한함)

송림정
Tel. 051-624-2270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5% 할인



20% Discount
콘서트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20% Discount
넌센스 로맨틱 코믹극
도둑과 연인

토다이 센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2-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 뉴탑치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부산 해운대구 우동 602-5
051)744-280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드립니다'

2013.12.3(화)-2014.1.5(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4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6시(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5천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넌센스 로맨틱 코믹극 '도둑과 연인'

2013.12.3(화)-2014.2.23(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5시(월요일, 1/30~1/31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공간소극장(611-8518)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4년 2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동행자명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 자 의 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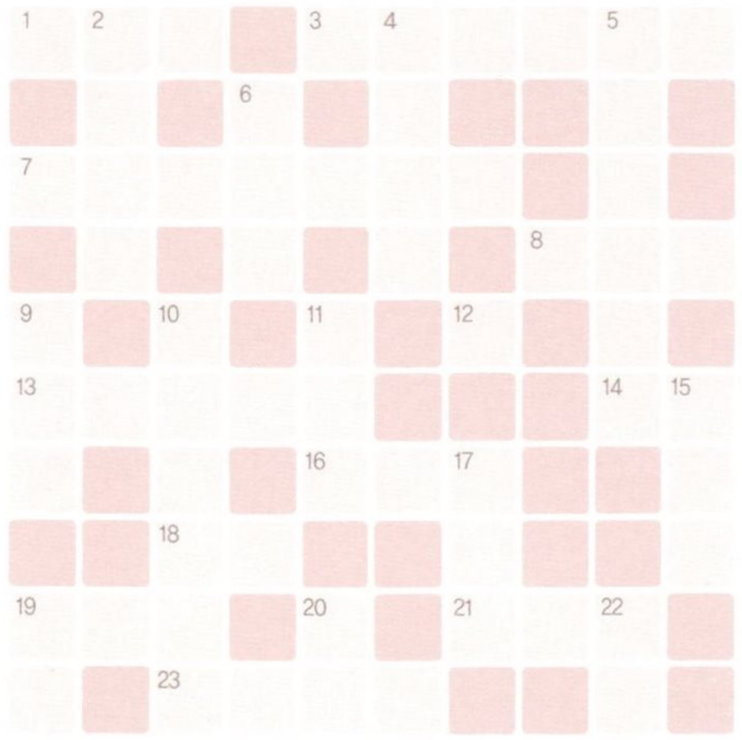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 퍼즐정답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NO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YES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부산시립교향악단

Happy New Year

부 산 시 립 교 향 악 단 제 4 9 6 회 정 기 연 주 회

2014 신년음악회

2014. 1. 10 금 오후 7시 30분 _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_ 김덕기



소프라노 _ 이화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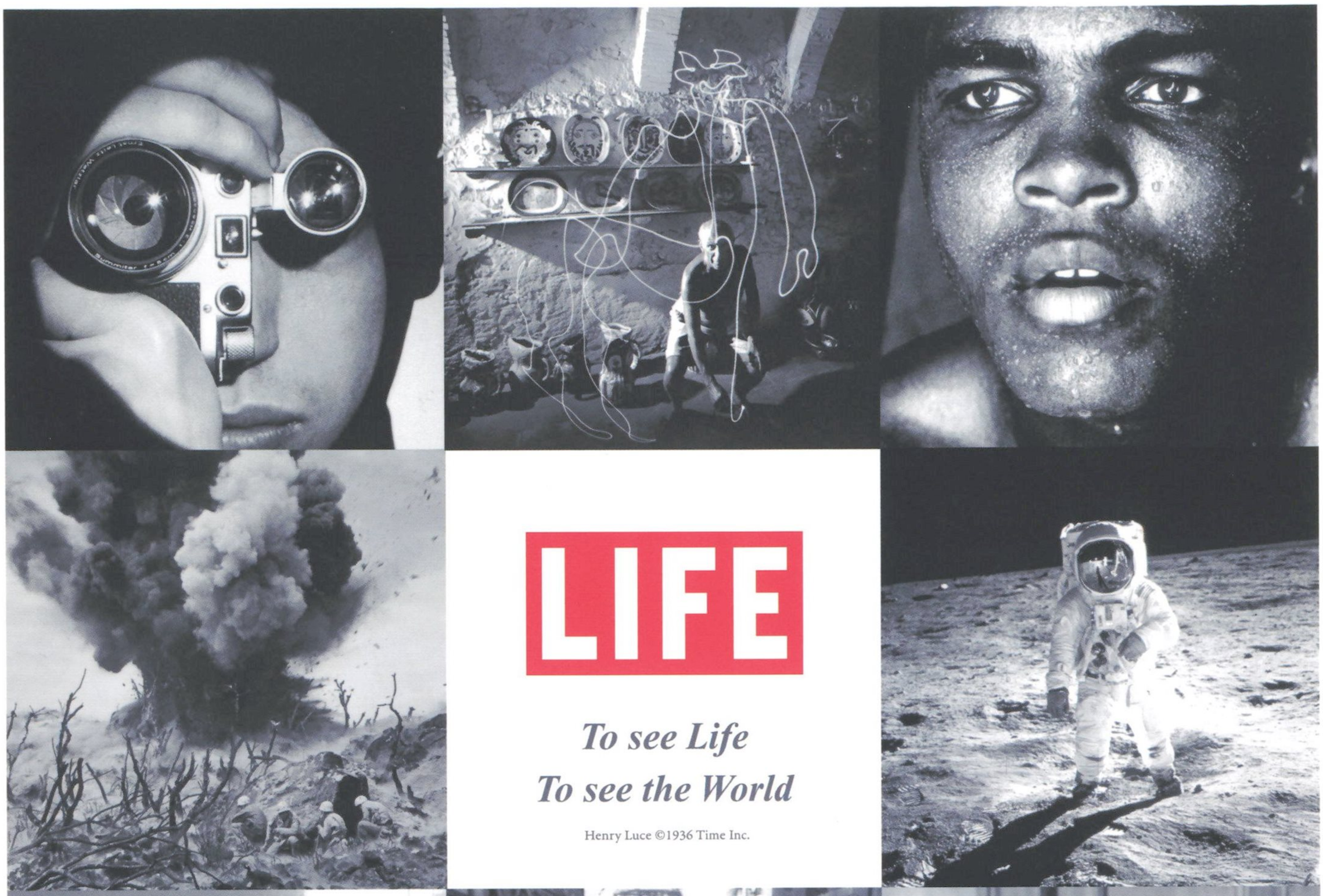


테너 _ 김영환

주 최 부산광역시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문 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셔틀버스(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 The Picture Collection Inc. All rights are reserved.

정점의 순간에서 전설이 된 20세기 최고의 기록 <LIFE>, 그들이 남긴 불멸의 역사를 만난다.

라이프 사진전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2014.1.5 – 4.12 10:00~20:00 /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www.seelife.co.kr

티켓. 일반/대학생 12,000 중학생/고등학생 10,000 초등학생/유아 8,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인 4매 2,000원 할인)
특별할인 6,000 (만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 장애우 / 다자녀)

전시문의 612 .6619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 MBC |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Dcomm UNIQUEPIECE